

081P-033P

구입 납입 1000906719960229

18390.5  
7384

등 ㉠국 회 도 서 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격월간 교육개발/발행일 1996년 2월 29일/등록번호 마-574/발행인·이돈희/인쇄처 국정교과서(주)/비매품

# 교육개발

1996 3  
통권 100호

1000906719960229

축하합니다 • 교육개발 통권 100호

김종서/김학준/안귀덕/편광범/전종자/최민아

특집

교육 개혁은 교실 개혁으로부터

김인회/이재학/양승실/허경철/이인호/강태중/정일제

권두칼럼

교육에 대한 나의 생각/안병영

시론

청소년 폭행의 예방은 시민운동 차원에서/손봉호

감동을 느끼는 문학교육/김대행

합리성을 지향하는 시민교육/김왕근

테마대담 **월만제**

김경애/김일환/홍광식/윤웅섭/조석희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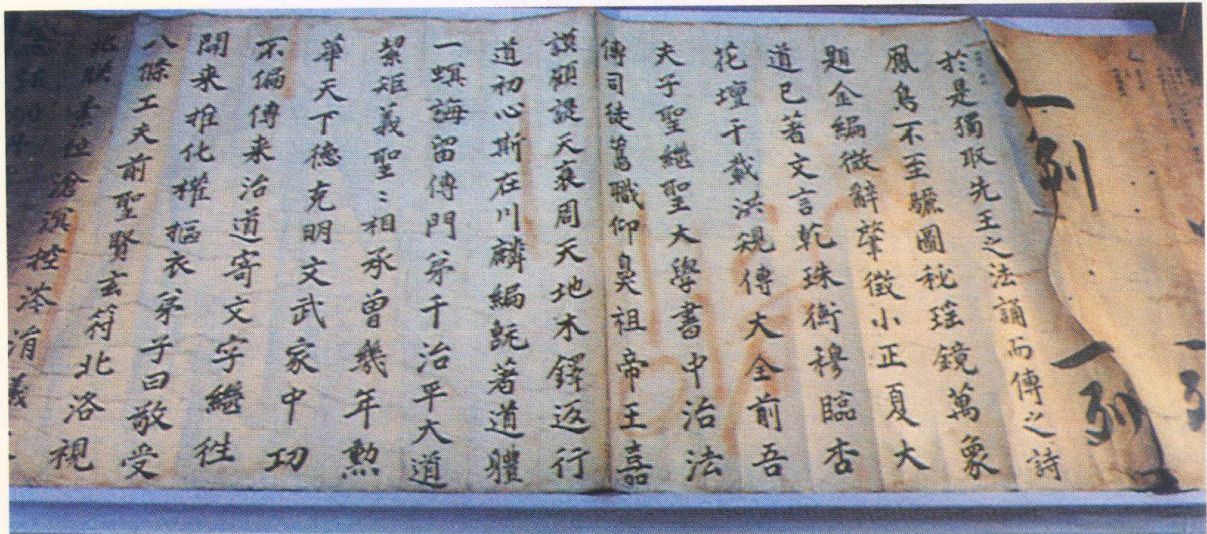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개발**

기획조정실 홍보편집팀 TEL (02)572-5021(233, 234), FAX (02)579-0746



# 과지(科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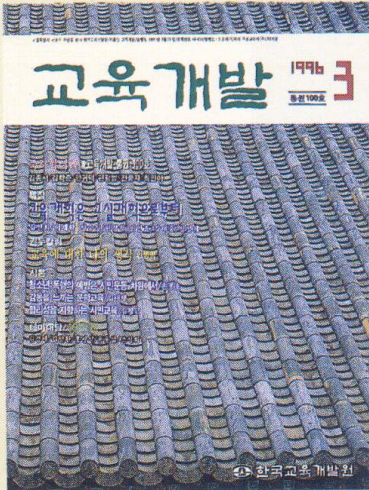
**사진**은 대전 한밭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과거 시험지다. 과거제도란 신라 원성왕 4년에 창설되었던 독서출신과의 일종으로 고려 4대 광종 9년에 다시 시행되었고, 조선시대에 와서 더욱 발전하였다. 조선시대 과거의 종류는 문과와 잡과(역, 의, 음양, 월과)로 나누었으며,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와 특별시(特別試)가 있었다.

인재 등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던 과거제도는 900년간 실시되어 오다가 인재 등용의 병폐로 갑오경장(1894년)과 함께 폐지되었다.

- 자료 제공 : 한밭교육박물관
- 자료 해설 : 손 영 주



# 교육개발



발행인 / 이돈희

출판심의위원장 / 공은배

출판심의위원 / 김왕근, 김홍원,  
김혜숙, 나정, 백성준,  
유균상, 이용순,  
정성무, 천세영,  
최상근

홍보편집팀장 / 남미영

기자 / 손영주, 정태호

교육개발 1996.3/통권 100호/1975년 8월 25일  
등록/등록번호 마-574/1996년 2월 29일 발행/격  
월간/발행인·이돈희/발행처·재단법인 한국교육개  
발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우편번호  
137-791/대표전화 572-5021, 5121/인쇄처 국정교  
과서주식회사

\*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  
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견해  
가 아닙니다.

## ■ 화제의 사진

과지(科紙) .....1

## ■ 권두칼럼

교육에 대한 나의 생각/안병영 .....6

## ■ 한국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18

한국교육의 뿌리 '千字文'/손인수 .....8

## ■ 시론

청소년 폭행의 예방은 시민운동 차원에서/손봉호...12

감동을 느끼는 문학교육 /김대행.....16

합리성을 지향하는 시민교육/김왕근 .....20

## ■ 스승의 한마디

마지막 '조선어 수업'/김요섭.....24

## ■ 특별기획

### 교육개혁은 교실개혁으로부터

학교교육의 본질/김인희 .....28

교사가 본 학교교육의 문제/이재학 .....32

기회의 평등성이 보장되는 학교/양승실 .....36

교육개혁의 열매는 '현장'에서/허경철 .....40

창조적인 아이를 기르는 열린 교육/이인호 .....45

좋은 학교를 만드는 교육 연구/강태중 .....50

교육 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성일제 .....54



**축하합니다**

**교육개발 100호** .....4

김중서/김학준/안귀덕/편광범/  
전풍자/최민아



**학교 탐방** .....59

3대가 같이 배우는 학교, 천인중앙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박인중



**문화광장** .....66

아름다운 지역 전통문화/주강현

**■ 보고서 중계**

고등학교 국어,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 상세화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최성욱 .....69  
국민학교 학습 공간 재편성 모형 개발 연구/박재윤 .....74

**■ 테마대담**

**월반제**

김경애/김일환/홍광식/윤웅섭/조석희

**■ 연구동향**

협동 학습 구조의 연구동향/정문성 .....87  
초·중등학생들의 수학적 문화형성을 위한 교수-  
학습 모형 개발 연구/김수환 .....91

**■ 세계교육의 현주소**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국립대학  
방문기/곽병선 .....96  
일본 소학교의 열린교육/이혜영 .....101

**■ KEDI 연구뉴스** .....105

**■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111

**■ 이달의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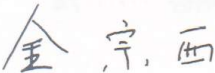
베짱이의 다짐/천세영





**흔히** 특정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잡지는 그 기관의 홍보적인 성격을 띠거나 심오한 이론을 소개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으나,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개발>은 이와는 달리 독자를 초·중등학교 교원에게 맞춘 전문지로서의 위상을 뚜렷이 하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은 문자 그대로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들이며 교직적 신념, 당면한 교육문제, 연구동향, 세계의 교육 등 다양하다. 이와같은 다양성은 <교육개발>이라고 하는 핵심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통합성의 내음이 짙게 풍긴다.

더욱이 편집과 체계의 아름다움과 산뜻함은 매력있는 내용을 더욱 부각시키는 한편 예술 작품같은 느낌을 준다. <교육개발> 지령 100호는 100호답다.

김종서(본원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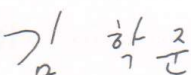
**우리** 나라가 마침내 1인당 국민 소득 1만 달러의 시대에 들어섰다.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부러움을 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큰 나라가 됐다. 기쁜 일이다.

그러면 우리 나라는 어떻게 하여 이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된 것인가? 국토는 작고 부존 자원은 모자라는 약소국이 무슨 힘으로 이제는 신흥공업국가의 지위로 뛰어 오르게 됐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이겠으나 교육의 힘을 빼놓을 수 없다.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였고, 우수한 인적 자원이 늘어났기에 경제 발전을 크게 뒷받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성찰을 통해 우리는 교육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 대통령'이 나오고 '교육 공화국'이 서야 하겠다.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개발>이 더 많은 자극을 주기를 기대한다. 이미 제100호를 기록하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우리 나라 교육 발전의 이론적 기수로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수행해 주리라고 확신한다.

김학준(단국대학교 이사장) 



**나는** <교육개발>이란 책을 받아 읽어보는 것이 큰 기쁨이고 한편으로 다음 호를 은연중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사람이 아닌가 반문해 보기도 한다. 자문해 보기를 아마 내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다만 몇년간이라도 개발원 식구와 함께 한술의 밥을 먹었다는 조그마한 인연이 있어서 동료의식이 발동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책자를 통해서 내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귀중한 교육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귀중한 기회를 나에게 베풀어 준 개발원 동료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린다.

<교육개발>이 그 외양적 모습은 물론 그 내용도 많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창기 <교육개발>은 단색 인쇄에 표지도 세련되지 못하였다. 내용 역시 지금과 같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된다. 100호를 맞이하는 <교육개발>은 그 연륜이 말해주듯이



교육적으로 알차고 새로운 정보들로 채워져 있어서 이제 교육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지 않고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리라 믿는다. <교육개발> 역시 이러한 독자들과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더욱 애쓰실 것으로 기대하며 무궁한 발전있기를 기원합니다.

안귀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 안 귀 덕

<교육개발>은 현장 교육에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오아시스이다.

특히 '세계교육의 현주소'는 우리 교육과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어 준다. 물론 우리 교육이 외국과 비교해서 풍토, 여건이 다른 측면도 있겠으나 바람직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도 노력해서 교육의 질적 내실을 통한 선진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좀처럼 '책'을 접하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내용들이다. 거기에 더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난 결과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과제이다. <교육개발>이 일선 현장에 항상 새로움을 불어넣어 주는 활력소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편광범 (상문고등학교장) 편 광 범

우리 교육을 꾸준히 개발해 온 "교육개발"의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귀지는 교육 관련 인사들에게 교육개혁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이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으로, 세계화에 대응하는 교육으로, 인간성 회복에로의 교육으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귀지가 선봉에서 주십시오.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교사, 학부모 모두가 우리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제몫을 다할 수 있도록 귀지는 지혜와 의지의 샘이 되어 주십시오. 아울러 아직은 가족 이기주의에 얽매어 있는 이땅의 학부모들의 왜곡된 교육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극제도 담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귀지 100호 발행까지의 업적과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전풍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공동대표) 전 풍 자

교직은 외로운 짝사랑의 길이란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부재와 부패, 사제 간의 정없음을 비판당하는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교육개발>은 한국 교육의 희망이자 청신호였습니다.

<교육개발> 100호 발간을 축하하며 언제나 그래왔듯 교육 백년지대계의 선두에서, 후미에서 함께 하는 <교육개발>이기를 바랍니다.

최민아 (성사중학교 교사) 최 민 아





# 교육에 대한 나의 생각

안 병 영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된 후에, 한 신문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장관 글을 두루 찾아 보았는데 교육에 관한 글은 별로 없었습니다. 스스로 교육에 대해 문외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때 내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교육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교육은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자로 저는 오랫동안 인간과 사회에 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교육에 대해 스스로 문외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5년간의 대학교육 현장의 경험도 아마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자 그 기자는 내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그에 대한 내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이 인간을 바르고 쓸모있게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교육은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장관 취임사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경없는 경제 시대에 우리가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간, 경쟁력 있는 인간을 만드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육의 목표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세계화와 민주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능성과 더불어 인간성을 가꾸는 교육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진정한 세계인은 자신의 경쟁력과 유능성을 바른 목적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하며, 남과 경쟁하기에 앞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문제에 천착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사회의 인간화를 우리의 중요한 교육목표로 내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후 나는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의 목표를 “창의적이고 인간다운 사람을 가꾸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편이상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나누어 생각할 때, 나는 양자 중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식교육을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일로 여기기보다 그에 더하여 인간의 창의성을 키우는 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창의력 있는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 계발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된 후, 나는 비교적 자주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창의성은 어린 나이에 그 바탕이 세워져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초등교육은 성공적 교육의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성교육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

장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도덕적 품성과 규범의식은 특히 초등교육에서 바르게 가꾸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양식이 있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초등쪽에는 인성교육이, 그리고 고등쪽에서는 지식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어린 나이에 인간이 어느 정도 바로 세워지고, 그 바탕 위에 나이가 들면서 인간의 유능성과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키워지는 교육과정이 나에게서는 그럴 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21세기의 중심국가로 우뚝 솟기 위해서는 「교육입국」의 길 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세계화, 정보화로 치달는 국제사회의 흐름이나, 민주화와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국내의 사회변화의 추세로 볼 때,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교육개혁을 힘차게 추진한다는 일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차례 교육개혁을 시도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의 교육개혁은 교육전반에 걸친 광범하고 체계적인 교육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의 틀을 다시 짜는, 실로 담대하고 포괄적인 교육개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 전략의 의미와 더불어 사회개혁적, 국민운동적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무엇보다 <GNP 5%의 교육재정>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교육개혁에 실려 있는 국가적, 국민적 기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21세기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100년을 조망하면서 우리 사회를 <열린 사회>로, 우리 국민을 <전 인류적 관점을 가진 세계인>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교육개혁의 기본 철학이, 21세기를 향한 바로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교육개혁은 온 국민의 성원 아래 반드시 성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해야 할 역할은 실로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현장과 긴밀한 연계 아래서 교육에 관한 정책 과제를 연구하는 중심기관이며 교육개혁의 중요한 전인차입니다. 이 기회에 교육개혁의 꿈을 이루는 데 한국교육개발원이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한문교육의 뿌리 ‘千字文’



글 · 손인수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글방·서재·사숙 등에 서는 <천자문>이 한자를 배우는 입문서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기에 옛날에는 밥술이나 먹는 집안에서는 반드시 그 자녀들을 마을 서당의 훈장이나 집안 어른들에게 보내어 <천자문>을 공부하게 했다.

<천자문>은 1구 4자로 250구이다. 즉 모두 합해 1,000자로 된 고시(古詩)이다. 그리고 서당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서 <천자문>을 중심으로 국민대중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민간의 사설 초등교육기관이다. 송나라 서경(徐兢)의 <고려도경>에 나타난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고려시대에 <천자문>을 중심으로 교육하던 서당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이해케 한다.

조선시대 서당의 강독 역시 처음에 <천자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몽선습>·<통감>·<소학>·4



서3경·〈사기〉·당송문(唐宋文) 등으로 올라갔다. 이 〈천자문〉을 중국 양나라 때 무제(武帝)의 신하 주흥사(朱興嗣)가 문장을 만들고 왕희지의 필적 속에서 해당되는 글자를 모아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더 오래전에 위(魏)나라 중요(鍾繇)의 필적을 모은 것이라고도 하며, 중요가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당나라 이후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왕희지의 7대손인 왕지영(王智永)이 만든 〈진초천자본〉(眞草千字本)으로, 1109년에 새긴 석각(石刻)이 남아 있다.

둔황(敦煌)에서 발견된 문서 속에 이것을 필사한 것이 많이 있다. 송나라 이후에는 완전히 전파되어 〈천자문〉의 순서를 이용하여 문서따위의 번호를 만드는 습관도 생겼으며 〈속(續) 천자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완전히 다른 글자를 뽑아서 다른 이름을 붙인 〈천자문〉이 생기기도 했다.

하룻밤 사이에 이 글을 만들고 머리가 허영게 세었다고 하여 ‘백수문’(白首文)이라고도 불리운다.

이〈천자문〉은 1천 5백년 동안 중국은 물론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 한문 교과서로 사용되었는데, 우리의 것은 우리말 발음으로 고쳐 쓰여졌다. 그리하여 이 책에 ‘天 하늘 천’과 같이 새김과 음을 달아 읽게 되었고, 이 석음(釋音)을 단책이 간행되었다.

석음이 있는 〈천자문〉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랜 책은 1575년(선조 8) 광주(光州)에서 간행된 것이다. 현재 일본 동경대학 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광주판 천자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천자문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 왔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우리 나라의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일본서기〉에 285년 백제의 왕인(王仁)이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에서는 법흥왕 8년(521)에 양나라의 승려 원표(元表)가 사신으로 오면서 많은 불경과 〈천자문〉을 가지고 왔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천자문〉은 조선시대 명필 석봉 한호(韓濩)의 글씨로 1583년(선조 16) 서울에서 간행된 〈석봉천자문〉이다.

현재 전하는 〈석봉천자문〉중에서 경북 영주의 박찬성(朴贊成) 소장본과, 일본 나िका쿠 문고(內閣文庫) 소장본이 원간본 또는 이에 가까운 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석봉천자문〉은 임진왜란 뒤에도 여러 차례 중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나라에서 〈천자문〉이라면 이〈석봉천자문〉을 연상하리만큼 일반화되었다.

〈천자문〉의 교수방법은 처음에 한자 한자씩을 가르쳤다. 다음은 단자(單字)를 붙여 음독(音讀)하는 것을 가르치고, 다음에 구독(句讀)의 문리(文理)를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한 장(章)의 대의(大義)를 가르쳐서 마지막에는 학습자 스스로 풀이하여 읽도록 하였다.

특히 강의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놓고 종일 속독(熟讀)시켰으며, 훈장과 학생은 그 읽은 수를 세었다. 속독한 것

### 〈천자문〉의 교수방법은

오늘날 우리의 학교교실에서처럼

일률적으로 학습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학습자의 개인차와 그 능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놓고,

주로 개인적 지도방법에 의하여

교수된 셈이다.



은 그 다음날 암송시켜 통한 후에 다음의 것을 공부하게 했다. 만일 암송을 못하면, 이를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숙독 시켰다. 이리하여 학생의 재질에 따라 천재는 빨리 그 학업을 이루었고, 둔재는 나오되거나 늦게 학업에 도달하였다.

그러니 서당에서 <천자문>의 교수방법은 오늘날 우리의 학교교실에서처럼 일률적으로 학습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학습자의 개인차와 그 능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놓고, 주로 개인적 지도 방법에 의하여 교수된 셈이다. 따라서 서당에 똑같이 입학했어도 그 능력에 따라 교육내용도 다르고 그 진도도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둔한 학생은 <천자문>이나 <동몽선습>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 재능이 우수한 학생 가운데는 4서3경을 모두 읽는 이도 있었다. 그러니 이<천자문>의 교수방법을 현대적인 교육용어를 빌면 무학년(無學年)교육제도를 사용한 셈이고 언제나 월반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실학파의 연암 박지원은 <천자문>의 불가독설(不可讀說)을 말한 적이 있다. 연암에 의하면 <천자문>이 하늘 천(天), 땅 지(地)였으면, 그 다음은 천지간에 있는 산천초목이 나와야 할 텐데, 엉뚱하게 누르 황(黃), 검은 현(玄)의 빛깔이 돌출하여 연상작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천자문>이 글공부의 입문서로 되어 왔는데, 연암은 이 책의 구성이 교육적이 아니라고 하여 <사략>·<통감>과 함께 읽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후에 다산 정약용이 2천자로 만든 <아학편>(兒學篇)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그의 주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이 <아학편>의 편성은 상·하 두권으로 나누어져 각각 천자의 문자를 수록하여 도합 2천자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에 포함된 1천개의 문자는 모두 구체적인 명사로 구성되었으며, 하권에 포함된 1천개의 문자는 추상명사·대명사·형용사·동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학편>의 특징은 아동으로 하여금 유형자(有形者)에 관한 개념을 먼저 학습하게 하고, 다음으로 무형자(無形者)에 관한 개념을 학습케 함으로써 체계를 갖춘 것이다.

<천자문>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문교육의 기본교재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오늘날 이들의 가치는 주로 국어의 역사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천자문>은 우리 나라 한자어의 새김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천자문>의 새김은 <훈몽자회>의 새김보다 전반적으로 옛스러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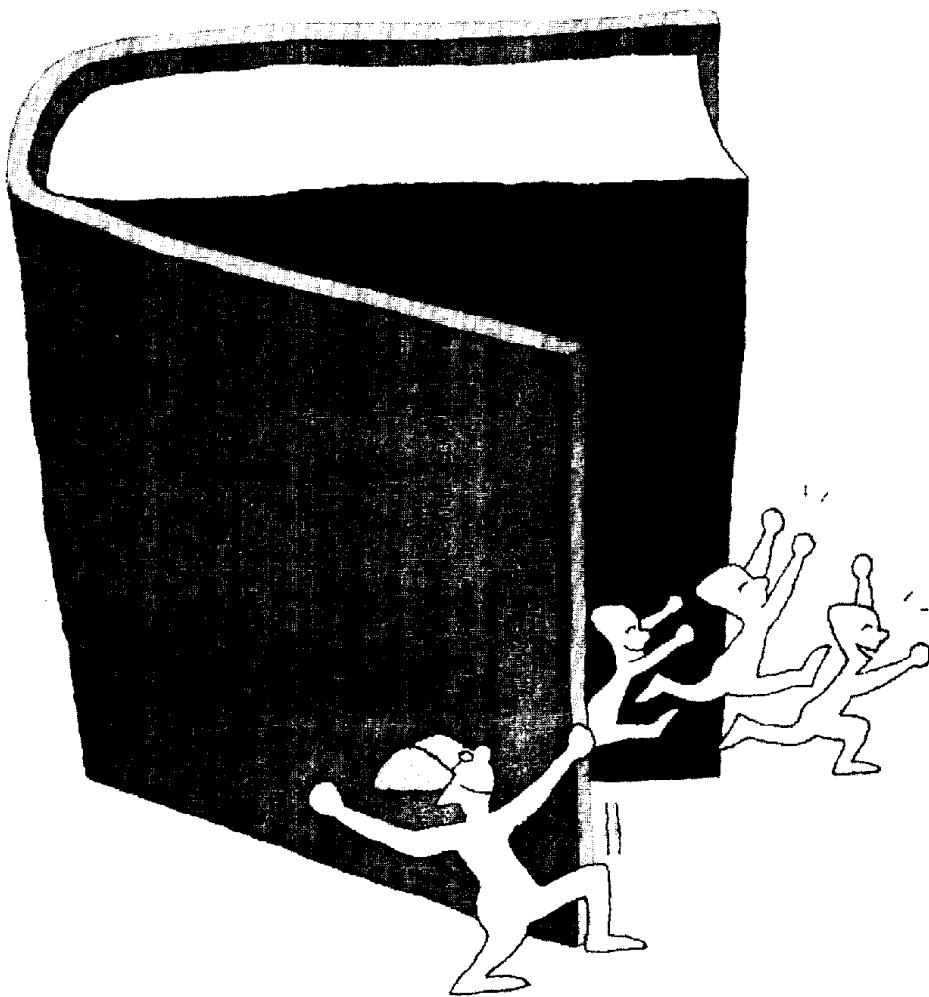


### 손인수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한국교육사」,
- 「한국교육사상사」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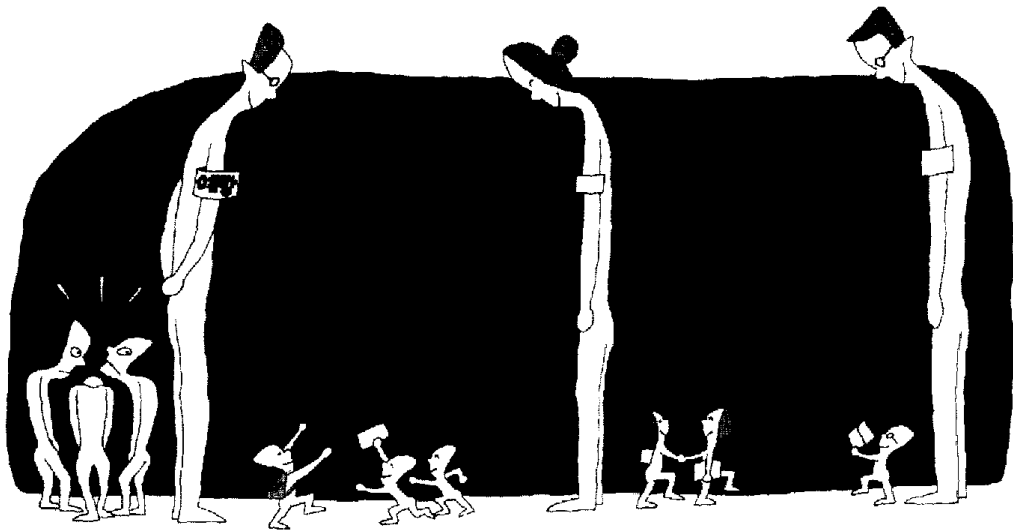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개발」을 통하여 천장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폭행의 예방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손 봉 호



최근 청소년 폭행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조사와 분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 폭행이 증가하는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잘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거나 고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청소년

폭력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청소년 폭행의 심각성이나 그 원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려는 정부, 학교, 학부모들의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자신들은 이론적으로 원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수학, 철학, 이론물리학 같이 순수 이론적인 분야면 몰라도 청소년 폭행문제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야 가치가 있고, 그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그것을 적용할 의지가 있어야 실제로 도움이 된다. 자신은 이론만 제시하고 행동 전략을 세우거나 직접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임무라는 식의 태도는 청소년 폭행과 같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별 도움이 안된다. 그런 태도에서 나온 이론들 가운데는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전략으로 옮길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우리 나라에 수많은 청소년 관계 연구소가 있고 막대한 연구비를 쓰면서도 청소년 폭력은 날로 늘어만 갈 뿐 개선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이론적 연구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물론 청소년 폭행문제를 청소년 관계 이론가들이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폭행의 현황이라든가 그 원인 혹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지극히 상식적인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려고 한다.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통 시민의 상식과 지난 수년간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운동을 펼쳐 본 경험을 근거로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려 한다.

## 1. 폭행을 자극하는 환경의 정화

폭행은 모든 인간에게 태생적인 것이 아니고, 설혹 태생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회에서는 다른 사회들보다 폭행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 교육과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에서 청소년 폭행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다. 살인, 강간,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청소년 폭행도 단연 수위를 점한다. 동시에 영화와 텔레비전, 비디오 등에서 폭력 장면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나라도 역시 미국이다.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무엇보다 신성시하는 전통 때문에 공권력에 의한 영상물과 간행물에 대한 검열은 가능한 한 삼가고 모든 선택과 결정을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

물론 미국의 실험은 실패하고 있다. 아무리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살인, 강간, 강도가 많이 일어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성공한 사회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폭행에 관한 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본받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폭행을 포함한 모든 폭행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폭력을 자극하는 모든 영화, 텔레비전, 만화, 서적을 가능한 한 제거해야 한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 혹은 예술창조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우리는 폭력물을 만들 수 있는 자유조차 보장할 필요는 없다. 언론 혹은 표현의 자유는 과거 절대군주나 독재자가 강압적으로 국민을 다스리던 시대에는 신성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폭력물이 돈 버는 수단으로 제작되는데도 그 자유 혹은 권리를 사회가 보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보호해서도 안된다. 폭력행위가 증가하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돈을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폭행을 조장하는 매체를 통하여 돈 버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비도덕적이지요, 작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존권, 행복권 등 더 큰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폭행을 자극하는 매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론 공권력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나라의 공권력으로부터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학원폭력을 뿌리



뽑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대응만 보이는 검찰과 경찰의 형태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사명 의식이 너무 없고 너무 부패해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청소년 폭행을 걱정하는 소수의 의식이 개인 시민들이 시민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광주 YMCA가 조직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운동이 시작되면 우선 청소년 폭행을 입으로만 걱정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위선을 깨닫고 이런 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눈덩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폭행을 억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부와 공권력으로 하여금 폭력을 자극하는 매체를 규제하도록 하는 압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폭력을 조장하는 매체들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이다. 즉 폭력을 자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광고상품이나 폭력을 조장하는 신문에 게재되는 광고상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펼치고, 폭력 비디오를 대여하는 비디오 가게를 고발하고 반사회적인 가게로 낙인 찍어 마을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2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음란, 폭력물 공동대책 위원회>가 스포츠 신문 등의 음란, 폭력성을 감시, 규제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그런 전략이 효과적임을 보여 준다. 이런 노력도 없이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폭력물을 그대로 두고도 청소년 폭행이 감소되거나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환상에 불과하다.

청소년들에게 폭력조장 매체보다 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교사들의 감정적인 체벌이다. 교육과 훈육에 있어서 체벌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합리적으로 행사했을 때만 효과가 있다.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체벌은 폭력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상을 학생들에

게 심어 줄 수 있으므로 매우 비교육적이다. 그러므로 그런 체벌을 의식이 개인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에 의하여 경고되고 견제되어야 할 것이다.

## 2.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감시

교육과 모범, 환경개선 등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필요하나, 급한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폭행을 막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무고한 청소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폭행을 당하고 있고, 가해자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폭행을 조장하지 않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폭행을 빨리 막아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폭행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어른이 감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 폭행이 중·고등 학생들에 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 중·고등학교 교장들이 감시팀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폭행을 모두 감시할 충분한 인력을 학교가 충당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교장은 가능한 한 많은 학부모들과 사회 유지들을 동원하고, 앞으로 많이 활동할 자원봉사자들도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은 폭행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각 학교는 감시할 시간과 장소에 따라 1조 2인씩의 감시팀을 조직하고 가까운 파출소와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서 폭행이 이루어지면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폭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폭행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감시원은 감시원이란 완장을 두르거나 자동차에 표시를 하며 경찰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 폭력배들이 범행장소와 시간을 옮기면 감시조도 따라 옮길 수 있고, 감시원이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으면 감시원의 수를 늘일 수 있다.



물론 이런 감시가 폭행을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비행을 행사할 유혹을 받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보다는 손해가 크고 재미보다는 고통이 커질 확률을 높임으로 그 유혹을 줄이는 효과를 노릴 뿐이다. 완전히 근절할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시도도 하지 않으려는 흑백논리에서 우리는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폭행과 그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시도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3. 상습 폭행자에 대한 교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감시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폭행 상습자에 대한 과학적인 교화교육이다. 물론 지금도 소년원 같은 기관이 있지만 처벌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의 청소년 교화사업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시급한 것은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는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을 수용하여 계도하는 시설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기숙사를 갖춘 특별학교를 몇 곳 설립하여 비행 청소년들을 일정기간동안 교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종교단체 등 사명감을 가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맡도록 하고 정부는 제도적, 재정적인 지원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민간인 단체는 얼마든지 있다. 다만 제도적,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흔히 빠지는 흑백논리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비행 청소년들이 모두 혹은 거의 대부분 다시는 폭행을 저지르지 않을 만큼 교화된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그런 시설을 만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대로 두면 사회에 큰 해를 끼치고 자신들도 불행한 일생을 보내야 할 청소년 한 두 사람이라도 그런 노력을 통하여 교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한 사람의 폭행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는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일생동안 고칠 수 없는 장애자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런 교화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고,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시행착오도 거쳤을 것이다. 그 경험과 연구결과를 최대한 이용하면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우리 상황에 적합한 교화 과정을 새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행하게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의 등종교인들이 이런 청소년 교화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의지와 자극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시작될 수 있다.

좋은 말은 위선자들도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폭행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관들과 시민들은 입으로만 봉사하지 (lip service) 말고 행동으로 자신들의 선한 의지를 표현해야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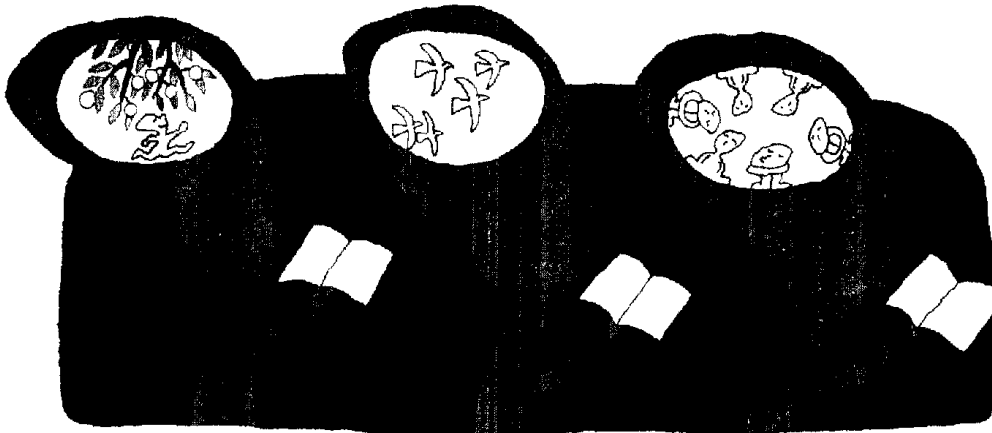
#### 손 봉 호

- 서울대 문리대 영문과 졸업
- 화란 자유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Science and Person」, 「나는 누구인가」 외



# 감동을 느끼는 문학교육

김 대 행



## 문학 교육의 현 주소

자, 보자. 문학을 가르치는 교실은 대체로 이런 풍경이다. 교사는 설명한다.

이 작품을 지은이의 이력서, 작품의 주제, 형식, 구성, 수사법……등등. 학생의 책은 그런 내용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송곳 박을 틈도 없이 뽕뽕이 채워진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난다. 명색이 문학 작품 한 편을 이해 감상하였는데 가슴이 찡하는 감동은 커녕 자잘한 것을 외기에 골머리만 아파 온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문학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천만의 말씀이다. ‘개도 구력도 다 잃는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 문학을 가르치는 교실은 ‘문학도 교육도 다 잃고’ 있다는

것이 정직한 표현이 된다.

## 문학 교육은 가능한가

우선 ‘교육’에 대한 오해가 크다. ‘가르친다’는 말을 ‘아는 것을 전해 준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자취가 역연하다. 그리고 그 ‘아는 것’도 사뭇 불편적이고 훈고적이거나 주석적인 것에 국한된다. 이렇게 되고 보니 오늘날의 교육은 ‘교육’은 커녕 ‘훈련’도 못되고 그저 ‘전달’에 그치고 만다.

‘훈련’이 ‘표준화된 사태 대응 방법의 체득’이라면 ‘교육’은 ‘사태 파악의 방법에 변화 주기’로 구별된다. 훈련의 결과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행동의 창출로 나타난다. 훈련이 강조되는 교



문학교육은 문학과 인간의 그러한 본질을 따라감으로써 성취될 수 있고,  
마땅히 교육되어야만 인간다움을 말할 수 있다.

육은 인간을 어떤 수단과 도구로 삼고자 할때 효용이 극대화된다. 그러나 교육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여러 국면에서 새로운 사태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자신의 삶을 그답게 전개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전달에 그치는 수업은 인간과 문학 양쪽 어디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땅하지 않은 것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인간은 원시의 모습인 발가숭이로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나 100년이 채 못 되는 삶을 통하여 고도의 문명인 또는 문화인으로 성장하여 사멸한다. 무엇이 이 엄청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가. 분편적 지식 전달의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항상 새로운 사태에 부딪히면서 저 스스로의 본능으로 개척하고 향상하려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 그 새로운 사태 앞에서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에 변화를 줌으로써 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것이 교육이다. 파악된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 가는 완전히 저의 몫이지 교육의 몫이 아니다. 인간을 무슨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쪽에서는 그 대처 방식까지를 규정해 주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저 저 자신의 인간이지 무엇의 도구가 아니다.

문학은 늘 새로이 파악되어야 할 '세계'로 우리 앞에 있어 왔다. 과거에도 그것이 그러하였으며, 오늘에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것이 그러한 까닭은 문학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교육은 문학과 인간의 그러한 본

질을 따라감으로써 성취될 수 있고, 마땅히 교육되어야만 인간다움을 말할 수 있다.

### 허구성 그리고 인간의 이해

이 짧은 글에서 문학의 본질을 다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문학의 가장 중핵적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허구성'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교육될 수 있으며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허구성'을 '거짓말' 정도로 이해하고 마는 것은 너무 소박하다. 모든 문학은 본질적으로 허구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언어로 전설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어떤 언어도 '사실' 그 자체는 아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보고 생각한 흔적일 따름이다.

그러나 보통의 언어와는 달리 문학은 대상을 파편적으로 보거나 설명하지 않고 전체를 보고 형상으로 파악하여 그려낸다는 점이 다르다. '춘향'이 그러하며 '베르테르'가 그러하고 서정주의 '국화'가 그러하다. 이런 과정을 일러 '상상'이라 한다.

'상상'을 '환상'이나 '몽상'의 동의어로 오해하는 것은 조잡하다. 상상은 가능성이어야 하고, 전체와의 관계이어야 하며, 타당성이어야 한다. 인간의 마음과 능력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 되 이치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문학이 '미'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미'는 공교롭게 꾸민 화장과 같은 가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상상의 산물이 가능성, 전체성, 타당성을 지니면서 얼마나 숭고하고 우아하며, 그래서 얼마나 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동을 알도록 하는 문학교육이다.  
 자신의 삶을 거기 투사하면서 어떤 때는 동질감에서,  
 어떤 때는 내 번민을 대신해 주는 쾌감에서,  
 그리고 어떤 때는 새로이 깨닫는 각성에서  
 가슴 떨리는 감동을 맛볼 줄 알도록 해야 한다.

리를 즐겁게 하고 전율하게 하는가에서 감동을 얻는 것이 '미'의 영역이다.

지구 저 편, 그리고 아득한 세월의 저 편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고뇌하던 영혼의 형상을 읽는 감동은 그 사람의 밤잠을 설치게도 할 것이고 혹은 숙면에 들게도 할 것이다.

문학의 본질이 허구라는 것을 가르치는 목표는, 그것이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데 있지 않다. 허구이므로 앞으로 문학을 대할 때 그 상상의 깊이와 높이, 그 정신과 언어의 심오한 아름다움에 대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이 문학 교육이다. 그 교육의 결과는 인간에 대해 늘 새삼스럽게 알고 깨닫는 길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상징성 그리고 삶의 이해

문학이 형상이라는 말은 그것이 '상징'이라는 말과 동의어다. 상징이란 '그것으로 어떤 다른 것을 대신하는 것'을 뜻한다. 비둘기를 생물로서의 비둘기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평화'로 대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문학은 설명하는 대신에 어떤 모습으로 그려 내므로 자연스럽게 상징이 된다.

그러지 않아도 뜻이 많은 것이 언어인데 상징이 되고 보면 더 많은 뜻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 상징성을 따라 저마다 풍요로운 뜻을 음미하는 것은 인간된 보람이 되어 준다. 신문에 난 자살 사건은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족하지만, 앙드레 지이드의 「전원교향악」에 나오는 눈먼 소녀가 개안 수술을 받은 다음에 자살을 한 사건은 환멸, 좌절, 인간, 세상, 꿈 등등 온갖

상징적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 이 다양한 의미가 바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삶의 이해로 나아가게 한다.

언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것쯤은 경험으로도 족히 아는 일이거나 이 세상 삼라만상이 한 가지 뜻만을 지닌 것은 없다는 사실도 세상 웬만큼 산 사람이면 다 안다. 거기에다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도 이 사람 저 사람 겪어 보면 다 안다. 그러나 세상을 많이 살지 않더라도 그런 다양성 혹은 다의성을 알게 해 주는 것이 문학이다. 그 까닭은 문학이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상징이기 때문이다.

김성한의 「바비도」를 이해한답시고 15세기 영국의 이단자 명단을 조사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15세기 영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어느 곳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런 갈등을 빚어 내는 현실은 어디에나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냐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게 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상징이 된 문학의 형상은 과거 속에서 오늘로 걸어 나오기도 하고, 오늘의 내 모습을 미래의 어느 시공간으로 던져 놓고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마음과 옷깃을 여미게도 해 준다. 그것은 인간이 현실의 여러 조건들과 뒤얽혀 살아가야 한다는 암시를 던져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이 미래 앞에 인간다운 역사 의식이냐는 자문 자답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김유정의 「동백꽃」은 저 강원도 어느 농촌의 숫총각이 겪은 주간지적 사건(?)이 아



나라 인간의 성장이 어떤 곡절을 겪으면서 이루어지는가를 넘어서 들려 주는 이야기가 되며, 박지원의 「허생전」은 꽤 많은 당나귀 같은 선비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인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어 준다.

문학 교육은 이런 상징을 통하여 삶을 알고 깨닫도록 해 주는 것이라야 한다. 그 일은 재수 없이(?) 교과서에 실린 어느 작품을 파편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일과는 사뭇 다른 길이다. 그래야만 문학은 교육 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의미있는 상징이 된다.

### 문학을 문학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오늘날의 문학교육, 아니 문학교육으로 행해지는 전달 행위의 내용이 파편적 지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임을 다시 지적하고자 한다. 율격이라든가 시점 또는 플롯 등등의 유식한 용어는 말할 줄 알면서도 그것이 실은 우리 일상의 언어 활동에서 널리 쓰이는 것임을 모른 채로 문학만의 비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학을 우리 곁에서 자주 떠나 보내려 한다.

그러나 율격이라는 것도 시만이 아니라 장사꾼의 외침이나 정치가의 연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에까지 널리 산재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플롯이라고 하는 것도 편지를 쓰거나 논술을 하거나 심지어 밥상머리에서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할 적에도 늘 고려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학의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다만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것을 탄탄하게 압축하여 질서를 갖춘 것이 문학일 따름이다. 따라서 문학을 알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남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동을 알도록 하는 문학교육이다. 자신의 삶을 거기 투사하면

서 어떤 때는 동질감에서, 어떤 때는 내 번민을 대신해 주는 쾌감에서, 그리고 어떤 때는 새로이 깨닫는 각성에서 가슴 떨리는 감동을 맛볼 줄 알도록 해야 한다. 문학 교육이 그러할 때 문학을 교육 받은 사람은 삶의 여러 국면에서 문학으로 각성된 파악의 방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자신답게 꾸려 갈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을 문학의 본질에 들어서서 문학답게 가르치자. 그러면 거기 문학에 인류가 인간과 삶을 고뇌하며 터득하고 그려 낸 세계가 있으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점차 터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교육의 이름으로 바랄 것이 더 무엇이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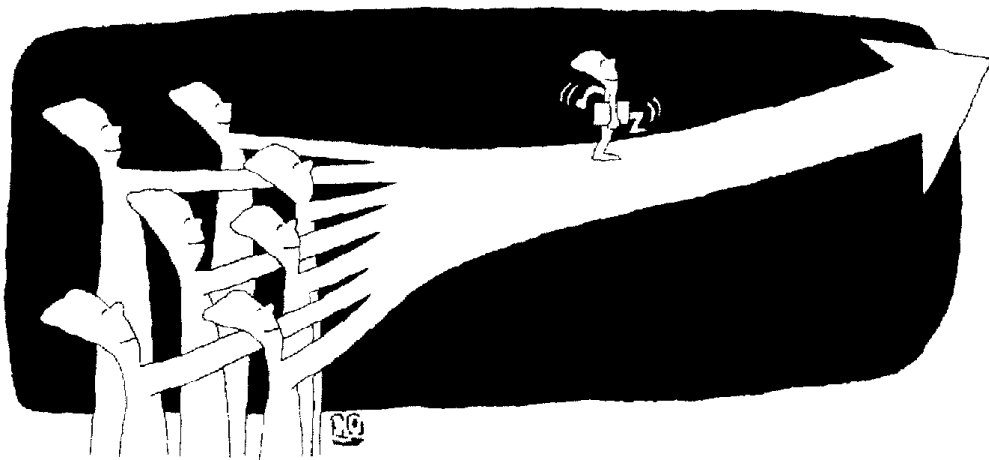
김 대 행

- 서울대학교 국어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 박사)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문학이란 무엇인가」, 「시가시학 연구」 외



# 합리성을 지향하는 시민 교육

김 왕 근



## 표준의 상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두 정당이 갈등 국면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A정당은 소득세의 누진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B 정당은 소득세의 누진률을 낮추고 대신 간접세의 비례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두 정당은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

A 정당은 이렇게 말한다. “함께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외 집단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의 누진률을 상향 조정하여 결과의 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정의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B 정당은, “정의는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제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차별적인 세금을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에 따라 대우하는 평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상반되는 주장을 내놓는다.

이른바 정당 A는 사회 복지로서의 정의를 주장하고 있고, 정당 B는 자유로서의 정의를 내세우고 있다. 일견, 정의는 자유와 복지를 조화롭게 추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두 주장은 배타적이기보다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들어가보면, A의 주장과 B의 주장은 배타적임이 드러난다. A와 B는 누진세율 인상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A는 찬성의 근거로서 복지를 내세우고 있고, B는 반대의 근거로서 자유를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A와 B는 모두 정의를 복지와 자유로 환원시키고 있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두 주장이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A와 B가 모두 정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정의의 표준이 갈등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 가능한 표준적인 근거는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정의의 표준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렇듯 사고와 행위의 방향을 안내해 주는 표준이 상실되면, 통일적인 질서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회 현상이 나타난다. 이른바, 합리적인 설명을 허락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위가 늘어나는 것이다. 예컨대, 한편에서는 합리성에 근거하는 과학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신적 또는 맹신적인 행위가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에 앞서 강자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한다.

표준의 상실이 가져오는 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의적인 판단과 사회적 아노미가 상승적인 메카니즘으로 연결되면서, 이기적이고 배반적인 행동이 점증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소위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죄의식을 동반하지 않는 범죄 행위'가 확산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표준의 상실에서 기인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교육을 통한 표준의 정립

종종, "사회가 민주적이지 못할 때, 시민 교육은 무의미하다. 시민 교육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사회의 민주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말은 꽤나 설득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회가 비민주적일수록 시민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교육의 의미를 명료히 하기 위해 교육을 사회

화와 대비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반면에, 교육을 '목적에 지향하는 의식적 작용'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구분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민주화를 선행적으로 요구하는 주장에는 암암리에 교육을 사회화 과정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 교육을 사회화 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즉 교육은 인간을 사회에 적응시키는 과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사회가 곧 교육의 장이며, 학교와 같은 공식적인 교육 기관 역시 사회와 같은 교육의 장의 하나로써 사회화를 더욱 조직적으로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따라나온다.

이와는 달리, 목적을 지향하는 의식적인 작용이라는 맥락에서 교육을 설명하는 관점은 교육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즉, 사회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러한 요구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삶의 가치에 견주어 재해석하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을 그려내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이 일이 때로는 사회의 현재적인 관행이나 가치 체계를 넘어서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가 비민주적일수록 시민성의 표준을 그려내고 이를 실현하는 일은 더욱 교육에 맡겨져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교육은 상실된 표준을 정립하고 지향해야 할 표준을 정제해 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표준에 의해 수평적으로는 교육적인 것과 비교육적인 것이 구별되고, 수직적으로는 출발점과 도달점의 차별이 가능해진다. 요컨대, 사회적으로 표준이 상실되어 갈수록, 표준을 조감하고 설계하여 시공하는 일체의 일은 더욱 교육에 맡겨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나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



과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부여된 자격에는 특정한 요구되는 행동 방식이 뒤따른다. citizenship에 들어 있는 membership의 의미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동시에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의미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운전자에게는 운전자로서의 자격과 운전자로서의 책무가 동시에 따라다니며, 그러한 자격과 책무가 곧 시민으로서 운전자가 따라야 할 행위의 표준이 된다.

교차로의 신호는 운전자가 따라야 할 행위의 표준을 안내한다. 신호를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설령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운전자의 행위를 안내하는 표준은 다름아닌 바로 '신호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 '신호를 지키는 것'이 행위의 표준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신호를 어긴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운전자들이 '신호를 지키는 것'을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자신 역시 '신호를 지키는 것'이 행위의 표준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호를 어기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신호를 어기는 운전자는 단지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있을 뿐이지, '신호를 지키는 것'이 운전 행위의 표준임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신호를 지키는 것'은 운전자가 따라야 할 행위의 표준이 되며, 이러한 표준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표준을 따라 자신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람이 곧 시민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 교육은 시민성의 표준을 정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러한 표준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표준으로서의 삶의 형식

인간은 교육, 학문, 경제, 정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삶의 형식을 통해 사회 생활을 영위해 간다. 그리고 각각의 삶의 형식에는 좋고 나쁨을 구별해 주고 우수함과 열등함을 결정해 주는 기

준이 들어 있으며, 그러한 기준을 따라 삶의 형식에 담겨 있는 내재적 가치(목적)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과 가치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표준이 그려지게 된다. 마치 화자와 청자가 구문과 문법을 공유하고, 공유하는 문법을 표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모든 삶의 형식은 구성원들이 삶의 형식에 들어 있는 행위의 표준을 따를 때 비로소 유지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 속에는 바람직한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의 모습,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의 모습, 좋은 교과서와 그렇지 못한 교과서 등을 구별해 주는 규범적 기준이 들어 있으며, 그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따라나온다. 일체의 삶의 형식에는 그 삶의 형식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안내하는 표준이 들어 있는 것이다.

삶의 형식에 들어 있는 행위의 표준은 우연히 또는 어떤 절대 정신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의 형식에 관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식이 체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그들의 확대된 의식이 당대까지의 행위의 표준을 삶의 형식이 지향하는 내재적 가치에 비추어 판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삶의 형식은 선대로부터 이어 받아 의식의 조사를 거친 후 후대로 넘겨 주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세대를 이어 가는 유기적인 전통으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식에 의한 판단과 평가 작용은 다름아닌 합리성을 추구하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판단과 평가는 근거와 이유를 따지는 행위이며, 근거와 이유를 따지는 행위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성이나, 보편성, 일관성, 그리고 공정성 등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합리성의 정도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은 전대의 표준을 따라 삶의 형식에 입문하는 한편, 그러한 표준을 의식의 대상으로 삼



아 판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삶의 형식을 만들어 다시금 후대에게 물려 주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학자로서의 자아'를 지닌 시민과 '정치인으로서의 자아'를 지닌 시민,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자아'를 지닌 시민등과 같이 삶의 형식에 담겨 있는 표준을 내면화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시민이 존재하게 되며, 또한 이러한 시민들에 의해 보다 높은 수준의 합리성을 구가하는 학문계와 정치계 그리고 교육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 합리성에 의존하는 시민 교육

행위의 표준을 담고 있는 삶의 형식이 합리성의 路程을 따라 보다 완성된 삶의 형식을 지향하듯이, 시민 교육 역시 합리성의 노정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을 삶의 형식에 입문시키는 과정에서 기계적이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배척하는 대신, 삶의 형식에 들어 있는 합리성과 학생들의 판단 형식 간에 상승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둑계(하나의 삶의 형식)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定石은 자신이 배우고 따라야 할 표준이 된다. 정석은 바둑계에 내재된 좋고 나쁨을 가려 주는 기준과 우열을 결정해 주는 기준에 입각해서 흑백 간에 최선의 경쟁을 벌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표준화해 놓은 것이다. 정석은 현재 시점에서의 최선의 판단 형식이 들어 있는 것이며, 이는 곧 현재 시점에서의 최선의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석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현재 시점에서 정석에 들어 있는 최선의 판단 형식 즉, 최선의 합리성을 깨우친 사람에게 있어 정석은 더이상 자신의 행위를 제한하는 표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있어 정석은, 단지 예전의 자신처럼 바둑계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둑이라는 삶의 형식에 들어 있는 판단 형식을 가르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제 자신 스스로는 정석에 들어 있는 현재 수준의 합리성의 세계를 뛰어 넘어 보다 높은 수준의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삶의 형식에는 입문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표준이 들어 있고, 표준에는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적재되어 있는 바, 삶의 형식에 입문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 형식을 동원하여 표준에 들어 있는 합리성의 노정을 따라 궁극적으로는 표준을 뛰어 넘는 합리성의 세계에 들어 갈 수 있게 된다.

"전통의 프락을 지나 이성의 궁전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전통에 들어 있는 합리성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의 삶의 형식을 뛰어 넘어 보다 합리적인 삶의 형식을 추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성의 궁전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전통의 프락없이 그것은 불가능하다. 시민 교육은 전통의 주변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을 지나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전통에 들어 있는 합리성과 그곳을 지나는 사람의 판단 형식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된다.



김 왕 군

- 서울대 사회교육과 졸업
- 서울대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본원 교육과정연구본부 선임연구원
- 「합리성에 기초한 시민 교육의 비판과 대안」의



## 마지막 ‘조선어 수업’

김요섭

1930년대 후반 나는 한창 장난기 많은 보통학교(초등학교) 소년으로 함경북도 나남 근처에서 보통학교를 다녔다. 학교에서는 주로 조선어와 습자(習字)를 배웠는데 그 때는 조선어가 왜 그렇게 어렵던지 보통학교 2학년 까지도 다 깨우치지 못했다. 우리말의 받침이 많아 아주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 학교 수업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보통학교 2학년 까지도 조선어를 못깨우치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정도였다. 그 정도로 조선어 배우기를 싫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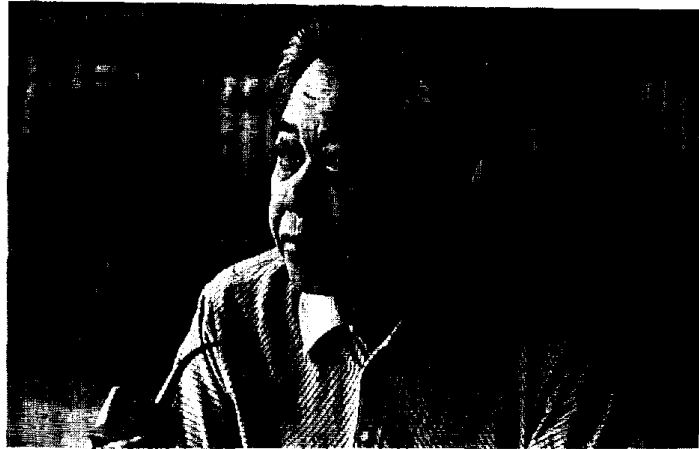
보통학교 5학년때 담임 선생님은 전해룡(全海龍) 선생님이었다. 선생님과 한창 수업을 하고 있던 어느날이다. 갑자기 담임이셨던 전해룡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시게 되었고, 학기 중간에 일본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바뀌게 되었다. 일본인 선생님은 우리가 전해룡 선생님이 가르쳐준대로 수업을 하니 모두 잘못되었다고 편찬을 주시면서 일본어를 새로이 가르쳤다. 아마도 그것이 조선총독부에서 우리말을 정책적으로 사장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선생님을 그만두게 하고 일본인 선생으로 대신한 것 같다.

나는 속으로 ‘이제 조선어를 안배워도 되겠구나!’ 싶어서 오히려 그 선생님이 그만둔 것이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나의 세계에 희망을 가르쳐준 권륙(權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선생님은 나의 1학년때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셨는데 일본인 선생님이 오시지 않은 날 우리반에 와서 하루 수업을 대신 맡아서 하셨다.

선생님은 칠판에 ‘남구만’의 시조 한 수를 쓰셨다.



- 청진 교육대학교 졸업.
- 매일신보 신춘문에 당선.
- 대한민국문화예술상, 한국시인협회상,  
펜클럽문학상, 서울시문화상,  
대한민국상 등 수상.
-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 시집 <채중> 외 13권, 동화집  
<깊은 밤 별들이 울리는 중>  
외 다수.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흐는 삼기 아니 일었느냐  
재너머 스래 긴 발을 언제 갈려 하느냐

그리고 하루 수업을 이 시조 한 수로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시조의 내용을 설명하고 감상하게 하고 아이들 모두에게 외우게끔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더욱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나라를 잃지 않고 찾을 수 있다.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밝은 세상이 올 것이니 희망을 잃지 말고 노력해라”

선생님은 당시의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자상하셔서 아이들 개개인의 가정 환경과 성격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가르치심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셔서 “너희들의 하는 행동은 저 관모봉(그 지방의 가장 높은 산 봉우리)에서 다 지켜보고 있으니 어디서나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자신의 맡은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선생님의 깊은 뜻이었다. 또한 내 시에서 ‘아이들’과 ‘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권 룩 선생님이 하루동안 내게 가르쳐준 시조의 영향인듯 싶다. 하루 동안의 그때 그 수업이 내게 있어서는 조선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말의 아름다운 운율을 가슴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어쩌면 그 때의 영향으로 시인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일제 시대에 웃을 줄 모르던 아이들, 가난하고 외로웠던 아이들, 힘이 없던 아이들, 위축된 아이들에게 힘이 되셨던 권 룩 선생님

그분은 나에게 웃을 줄 알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던 나의 영원한 스승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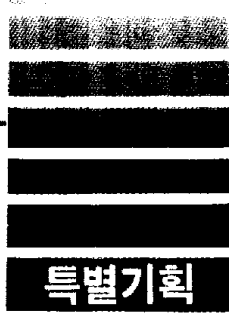
# 한국교육 원고 공모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전문학술지인  
<한국교육>제 23 권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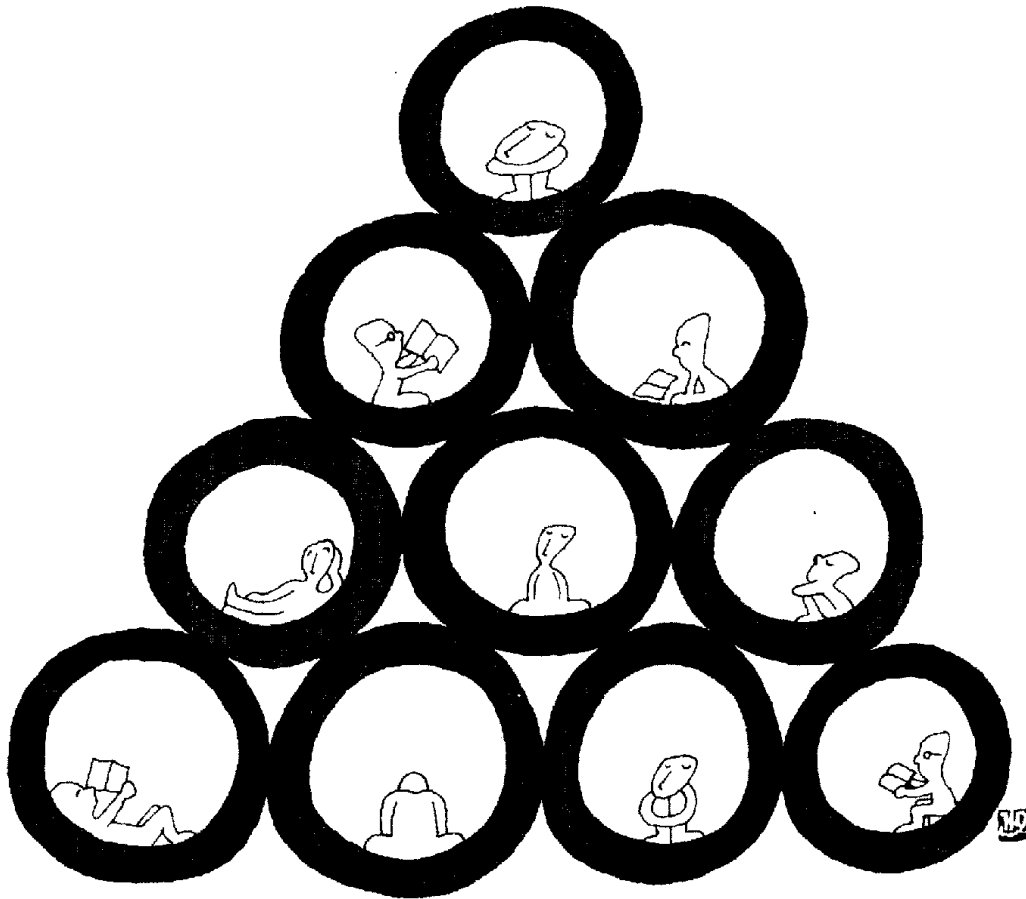
- ◆ 내용 : 한국 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서 타 학술지에 게재  
사실이 없는 논문에 한함.
- ◆ 마감 : 1996년 6월 30일
- ◆ 매수 : 원고는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분량으로서 한 편당 2부  
(디스켓 포함) 제출 및 영문요약  
A<sub>4</sub>용지 5매 이내 첨부  
(더블스페이스 타자)
- ◆ 제출처 : (우)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조정팀  
(Tel : 572-5121, 교환 210, 211)
- ◆ 기타 : 제출된 원고는 본원 연구기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개혁은 교실개혁으로부터



\*\*\*\*\*  
김인회/이재학/양승실/허경철/이인호/강태중/성일제



# 학교교육의 본질

김 인 회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 외

학교교육의 본질은 교육의 본질과 어떻게 다른가? '학교'라는 두 글자가 앞에 붙어 있으니 다를 수 밖에 없다. 교육은 사람을 가르쳐 키우는 일이다. 그러니 교육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교육적 존재임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사람은 교육될 수 있고, 교육에 의해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교육이라는 말 속에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보편적 인간관이 교육이라는 두 글자 속에 감춰져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교육이라는 개념의 포괄 범위가 참으로 넓다. 쓰임새가 넓기에 교육이라는 두 글자는 그 앞이나 뒤에다 무슨 단어를 붙여 놓아도 잘 어울리는 듯 싶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육과 가장 적절한 짝 노릇을 해온 명사가 바로 학교인게다. 학교교육이라는 말은 그냥 교육보다 훨씬 권위 있어 보이고 그럴듯 해 보이고 중요해 보인다.

학교는 무엇인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교라는 장치를 만든 모든 사회들은 예외없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직이나 시설로서의 학교라는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학교의 하는 일, 역할, 기능 같은 것이 필요해서, 이른바 학교교육이라는 것의 기능이 필요했기에 사회는 학교라고 하는 사회적 장치를 만든 것일 게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첫째 본질은 그 기능의 사회적 의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보편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꼭 학교라는 장치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학교교육 기능의 사회적 의미라고 하는 학교교육의 본질은 두말할 필요없이 사회적 요구와 필요, 나아가서는 책임과 관련되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모든 학교교육은 기존의 사회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학교는 그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을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조직인 셈이다. 그 기능을 학교교육의 보수적 기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두번째 본질은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 역할과 관련된다. 학교의 보수적 기능, 곧 사회 문화 체제를 지속하고 전승하기 위한 학교교육 기능을 성공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은 사회 내의 다른 교육 기능들 보다 조직의 구성, 교육의 내용과 실천, 경영의 효율성 등에서 탁월해야만 한다. 학교교육의 여러 측면에서 전문성이 탁월하지 못하다면, 사회 안의 다른 조직이나 기구가 학교를 대신하려 들 것이고, 그리되면 학교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의 비중은 그만큼씩 줄어들게 될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교육이나 학교교육 전문가들이 학교 밖에서 이 청소년의 교육적 환경과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은 채 학교교육의 비중만을 강화해 온 결과 생겨난 사회적 장치가 있다.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교육외적 발상과 동기에 의해서 5공시절에 생겨났다가 변질된 체육 청소년부가 그 예이다. 학교교육의 두번째 본질은 그러니까 교육기능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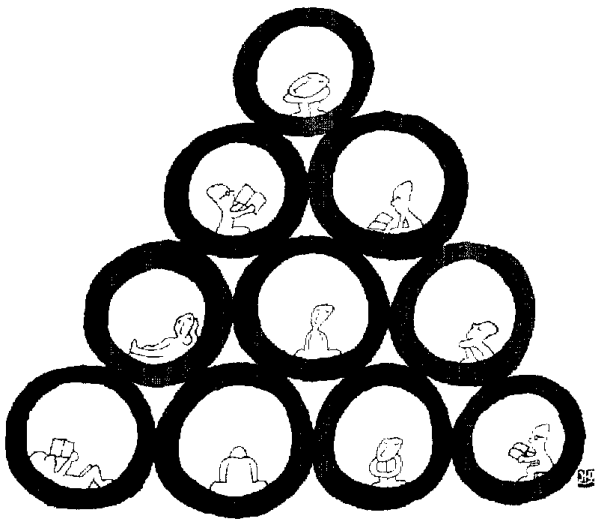
학교교육의 세번째 본질로서 제국주의적 속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교는 제국주의적 질서를 정당화하고 옹호해왔다. 흔히 교육의 기능을 보수적 기능과 창조적 기능으로 일컬어 온 것이 사실이다. 문화전승이라는 보수적 기능, 문화 창조 내지는 개조라는 창조적 기능이라는 교육의 양대 기능은, 그러나 넓은 의미의 교육기능이라면 모를까, 학교교육의 기능이라고 말하기에는 주저되는 기능이다. 교육의 보편적 기능임에는 틀림없지만 적어도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어쩌서 그런가 하면 학교교육의 첫째 본질, 바로 학교는 사회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학교가 갖는 사회적 의미란 기존 사회의 필요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한마디로 학교는 기존의 사회를 보존,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다 할 책임을 부여받고 태어

난 사회적 장치인 것이다. 기존의 사회란 무엇인가? 기성의 문화와 체제와 질서, 가치관, 이념, 정신 등이다. 생존보존의 법칙에 따라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점에서는 사회도 동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회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만들어 놓은 학교라고 하는 장치의 존재 이유란 바로 사회의 존속, 성장, 발전인 게다. 기존의 사회를 해체, 전복, 파괴하는 기능을 기대하고 학교를 만든 사회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문화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기능은 학교교육의 기능들 중에서는 덜 중요한 기능 내지는 명목상의 기능일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19세기 이래로 학교교육은 이념교육에 있어 체제 옹호이데올로기의 내면화와 기능과 지식교육에 있어 기존의 사회와 문화 질서에 대한 적응 및 순응 경쟁을 큰 방향으로 삼아왔던 것이랄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로서의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거의 예외없이 그 사회 안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집단의 기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의 명분 상으로는 인간 평등과 자유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관을 표방하는 학교교육 체제라고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내면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사회적 강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학교교육의 사회적 기능인 것처럼 실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강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학교교육의 기능은 그러나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화, 문화화 등의 개념으로 그럴 듯하게 호도되기가 일쑤이다.

학교교육의 세번째 본질로는 따라서 우승열패의 진화론적 생존경쟁의 논리와 질서를 옹호, 확산하는 제국주의적 속성을 들 수 있다.

학교교육의 본질을 사회적 조직으로서의 보수적 기능, 기능수행을 위한 전문성, 그리고 진화론적 생존경쟁 질서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속성의 세가지로 규정한 것은 어쩌면 한국의 학교교육만을 경험하고 관찰해온 필자 나름의 편견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학교교육





을 총제적으로 재검토해야만 할 오늘의 상황에서 학교교육의 본질로 이 세가지 이외에 더 많은 항목들을 손꼽을 수는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학교교육의 본질일 수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성 싶다. 요컨대 학교교육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린 국민들을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학교라고 하는 장치 속에 집어 넣고서 기존의 질서와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기성 사회에 순응 또는 적응하도록 길들이는 일을 조직적, 제조적으로 실천하는 전문적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에서의 성공 여부는 각 개인의 사회적 적응과 성취, 사회와 국가체제의 안정 및 발전에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학교교육과 다른 나라들의 학교교육을 앞에 열거한 학교교육의 본질들을 기준으로 삼아 비교해 보는 일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동안 교육문제를 연구할 때에 보편적 원리와 기준을 먼저 설정해 놓고서 교육 현실을 고쳐나가는 이른바 연역적 방법론에 주로 의존해 왔다. 조선조 교육에서는 성리학적 우주관의 원리를, 일제 식민지 교육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제국주의 원리를, 해방 이후부터는 미국식 교육학의 실증 원리를 학교교육의 이념과 실천의 본질로 삼아 왔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성 싶다.

우리의 학교교육은 언제나 고귀하고 영원한 불변의 원칙과 진리를 기준으로 미리 설정해 놓고서 변화무쌍한 현실적 삶의 상황과 천태만상의 살아있는 개인들을 그 기준에 맞도록끔 강요하고, 훈련하고 경쟁시키는 것을 언필칭 학교교육이라고 믿어 왔던 것이다. 연역적 방법론 일색의 교육전통을 우리는 지켜온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교육 정신사를 정리한다면 교육을 바라보는 발상 방식의 연역적 전통을 귀납적 발상으로 전환한 철학적 혁명은 18세기 실학운동과 19세기 동학운동때 비로소 처음으로 표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듯 싶다.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교육을 생각하는 실학과 동학의 발상 전환은 연역적이기만 했던 이 나라의 교육철학이 귀납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들어내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강자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을 이끌어 온 지도자들은 귀납적 방법으로 교육의 원리와 방향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실학과 동학의 인간 중심적, 현실 중심적 발상 방식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교육 근대사에서는 학교교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왔다.

그러나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해체주의니 하면서 새로운 발상 방식들이 설치고 있는 오늘의 정신사적 전환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육정신을 지녀 왔으며, 앞으로는 어찌할 것인지를 솔직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천착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교육계의 처지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학교교육의 세가지 본질만을 놓고 돌이켜 볼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학교교육을 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보수적 기능면에서 조선조 때에는 5백년씩이나 성공했다. 일제 시대 이래 오늘날까지 학교교육은 체제옹호 기능면에서, 생존 경쟁력 향상 기능면에서, 교육 기능의 전문성 신장면에서 예외없이 성공을 거듭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학교교육의 성공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따져 볼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과 직면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체계를 장악한 부도덕한 힘, 곧 강자의 자비와 자선에 감사하고 순응하는 국민으로 길들여져 온 것인지도 모른다.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굶주린 군중의 모습과, 오늘의 교육 경쟁 대열에서 앞을 다투기에 여념이 없는 교육계 현장의 모습 사이에 과연 본질적 차이가 있을까? 교육을 생각하는 발상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필요한 학교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교육의 첫째 본질은 사회의 필요가 아니라 개인의 필요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학교교육의 기능은 사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와 체제는 옹호되고 지속되어야 할 신성한 대상이 아니다. 사회란 내가 간섭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편안한 대상, 내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집과 같은 대상이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주인으로서의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 확인하고 발견하는 일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보다는 사회가 제시한 기준과 틀에다 자기를 맞추도록 경쟁시키는 일을 학교교육의 본질로 삼아온 과거의 교육은 피식민지 원주민에게나 적합한 교육이었지, 종주국의 주인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아니었다.

학교교육의 두번째 본질은 교육기능에서 전문성의 다양화, 개발화, 개방화이어야 한다. 학교라고 하는 폐쇄적 공간 안에서 학업 성적 성취라고 하는 한가지 종류의 교육 기능을 마치 전문성 인양 믿어왔던 것이 20세기까지의 연역적 학교교육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학교가 존재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앞으로는 기존학교의 종류와 형식도 해체과정을 겪게 될 것 같다.

한 교실, 한 학년, 한 교과 속에 모든 학생이

종속되는 종래의 학교라는 개념이 아닌 새로운 학교교육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한 학생이 여러 학교와 관계하고 학교의 범위나 종류도 범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될 때가 올 것이다. 인터넷의 확산과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통신망의 발달 속도로 미루어 보면 먼 장래의 꿈이 아니다. 따라서 미래의 학교교육의 중요한 내용 중에는 내가 누구인가 못지 않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와 어떻게 다르고 또 같은가에 대해 스스로 발견, 터득하게 하는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외모, 능력, 성격, 언어, 문화, 종교 등에서 나오는 같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고 서로 이해하며 공존, 협동할 수 있는 자질, 품성, 능력의 신장이야말로 학교교육의 중요한 본질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되면 자연스럽게 학교교육의 세번째 본질이던 제국주의적 속성의 내용도 변해야 한다. 군사, 자원, 국토, 경제 등이 토대가 되던 제국주의의 시대가 앞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 정보, 예술, 문화 등 새로운 차원에서의 제국주의적 경쟁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개인들의 획일적 단결력 보다는 다양한 개성과 창조성이 훨씬 유리한 적응력을 발휘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세대들을 교육하게 될 학교교육은 진화론에 터한 구 시대적 생존 경쟁 질서의 가치체계를 하루 속히 폐기 처분해야만 한다.

결국 앞으로 학교교육의 진정한 발전은 구시대적 학교교육의 본질을 과감하게 해체해 버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다. 교육적 존재로서의 인간성에 대한 신뢰, 특히 다양한 개성과 창조적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삼는 새로운 교육관의 정립이 필요할 성 싶다. 학교교육에서는 '학교'라는 두 글자 뒤에 '들'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한마디로 '학교들'의 교육이 미래교육의 특징일 것 같기 때문이다.🌟



# 교사가 본 학교교육의 문제

이 재 화



· 청주 사범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교육부 의무교육정책관실 장학관  
· 「도덕 교육의 이론과 실제」 외

## 1. 들어가는 말

일선의 교사들은 교육개혁의 실현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 교육학자나 교육행정가나 학부모들 보다는 교단에서 직접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구동성으로 '학교발전 내지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사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학교교육 발전과 교육개혁의 열쇠는 교단 교사가 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교육행정의 지원 체제나 이론적 뒷받침 등은 교단에서 실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교수-학습 자체를 돕는 일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사들은 어떠한 의식 상황이며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개혁 실천상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유기술형 설문에 의한 응답 내용의 자료와 필자의 수년간 학교행정 경험을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 2. 교단 교사의 학교 생활에서의 의식·태도 상황

학교 현장 교사들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관의 혼돈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치를 포함하는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적 상황과 물질 만능의 사회 실상과 더불어 기초가 약한 급속한 경제 발전에서 오는 취약성 및 도덕·윤리의 타락과 불신의 사회 풍조 등은 교사들의 가치를 더욱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 삶에 대한 사유를 이상과 현실로 나누어 볼 때 이상을 추구해야 할 교사들은 현실에 너무 급급하고 있다 하겠다.

이런 상황들은 국가의 대 과업인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겠다.

둘째, 교사 자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점이다. 30년이 넘도록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교육을 받거

나 교육행정에 젖어 온 교사들은 겉으로는 민주적이라고 내세우지만 근무태도나 교수-학습활동 상황 등이 상당히 권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세대들은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주의일 경우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교경영이나 학급경영에 있어서 쉽게 권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셋째, 일부 교사들의 수동적 태도 성향이라고 본다. 권위주의에 습관화된 일부 교사들은 능동적인 것보다는 수동적 성향이 짙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상적 성향보다는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창조적이며 민주적 태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가르침과 연찬의 노력과 책무성이 있는 창의적·민주적 태도보다는 보다 현실적이며 안일한 생각 등이 학교발전 뒤집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는 학교발전의 문제점에 대한 물음에 23%의 교사들이 교사들의 의지 부족, 긍지, 자부심 부족, 무사안일 등으로 나타냈다.

### 3. 교사들이 본 학교교육의 문제와 교육개혁

교사들은 학교 발전 및 교육개혁을 위하여 학교교육을 자신들이 운영하면서 제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았다.

첫째, 재정 투자(30%)의 문제이다. 그 중에서 교실의 현대화·첨단화를 들고 있다.

학교 환경 개선, 시설 투자, 교사의 중·개축, 시청각 기자재, 학습자료,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정보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교실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교육개혁이 성공한다고 본다. 이는 개혁을 위한 GNP대비 교육투자 확보의 정부 결정에 대하여 대환영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문제점	%
교실 투자	31
교사의 수업 기술	24
교사의 사명감	23
인성교육 업무량 과중 등 기타	22

〈교사들이 본 학교교육의 문제점〉

외형상 나타나는 건물 모양이나 건물 등의 배치, 학교의 위치 등이 신교육을 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시설·설비, 자료 등이 타 기업체, 기관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다인수 학교, 과밀 학급에서는 열린 학습의 여건에 크게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본다.

학습 자료를 예로 들면 온도계 하나를 보더라도 제작 회사마다 온도의 눈금이 다르게 나타나는 학습자료의 낙후성을 들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 투자의 질 관리에 철두철미한 계획과 실행이 요청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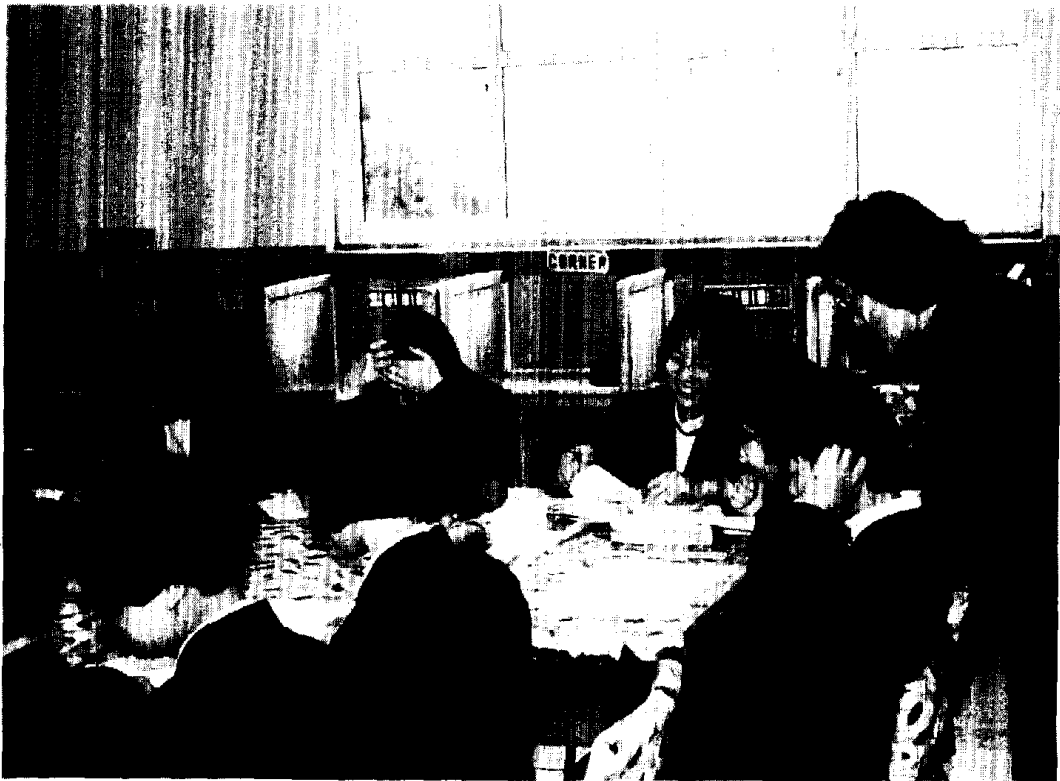
둘째, 교사의 수업 기술에 대한 문제이다.

교사들은 교사 자신들이 교수-학습기술에 대해서 문제(24%)가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수업에 있어서 일회성·전체성의 지도와 학습량의 과다 등은 종래의 주입식 교수-학습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입시 위주의 성향의 원인도 있으나 권위주의 시대의 권위적 교육행정에 오는 영향이라고 본다. 이는 앞에서 살폈듯이 교사들은 주어진 법적인 수업시수 내에서 많은 양의 교수 내용을 가르칠 때 단과성에 습관되어 교수-학습의 과정보다는 학습 결과에 따르는 성과에만 치중한 연유라고 본다.

따라서 닫힌 수업인 지식·이해 중심의 하등정신 기능 신장 수업에서 적용·분석·종합·평가 능력의 고등정신 능력 신장의 열린 수업을 하자면 교사들이 교수-학습기술이 모자란다고 보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인수 학습 교육에 익숙해진 교수기술의 개선에 있어서는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화 교수기술이 더욱 요청되고 있으며, 교사의 발문과 자료의 투입, 학생 활동의 치밀한 계획 등이 사고력, 창의력, 탐구력 신장 등에 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50년이 넘도록 외국의 수업기술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한국적인 수업 방법의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교육학자들도 외국의 사례를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하려는 것보다는 순수한 한국 학생들의 학습 발달 심리학,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 성향, 한국의 교육환경학 등이 체계있게 연구되고 검토되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의 설정, 우리의 고유한 교수-학습방법, 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의 사명감의 문제이다.

교사의 사명감(23%)은 긍지, 자부심, 자신

감 미흡과 지나친 현실성(이기심), 사회적 지위 저하, 유인체제 및 연수의욕 미흡,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는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나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과감한 보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은 특단의 우수교원 확보 정책 개발 시행만이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이 성공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사 자신이 새로운 각오로 자부심을 갖고 교육 발전과 개혁의 대열에 서야 한다고 한 의견들은 우리 교육의 앞날을 상당히 밝게 해 주고 있다.

또한 과거의 위로부터의 교사의 의식 개혁을 위한 잦은 형식적인 연수보다는 아래로부터의 교사들이 자신의 긍지높이기를 위한 운동의 태동으로 움직인다면 교육개혁의 효과를 상당히 앞당길 것이다.

넷째, 인성교육의 중요성 및 업무량 과중 등의 문제이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학습량이 과중한 현실

에서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과중한 업무량을 문제로 들고 있다. 인성교육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여유있는 모든 교과 시간과 방과후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의 현실은 수업시간이 끝나면 학생이 학교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고, 곧바로 학부모가 계획한 시간에 따라 과외공부가 이어지므로 학생과 교사의 만남의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적 시간 할애의 인성교육 시간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참다운 인간 교육이 어렵다고 본다.

다섯째, 학부모의 교육관의 문제이다.

학부모는 아직도 종전의 입시위주의 지식 주입의 학습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쓰고, 읽고, 셈하고, 많이 외워서 시험에 만점을 받아야 하고, 자주 시험을 보아 성적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 학부모의 그릇된 현실적 교육관이다.

탐구, 조사, 관찰, 전학, 노래부르기, 놀이활동, 사고활동, 리포트 작성, 개인의 소질, 적성 계발 등을 위한 사고하는 창의력 신장의 열린 학습에 대하여 학부모들은 익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한 학부모 교육이 선행되어야 교육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

여섯째, 교육 개혁의 홍보의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라 하더라도 온 국민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교사들은 EBS에서만 교육개혁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음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다. KBS, MBC, SBS, CA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이 총동원되는 지속적인 교육개혁 홍보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일곱째, 그외 학교발전 및 교육개혁을 위한 의견을 대상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행정면—체제의 유연화, 책임부처의 소신, 장학방법 개선, 상부지시 과다, 실태 조사의 간소화, 옥상옥의 특색 사업 추진, 실적 위주 지양, 개혁은 천천히, 행정의 획일화, 아직도 하향식 현장 실무자의 의견 청취, 잦은 법 개정, 승진제도 개선, 권위주의, 수업 위주 지원, 위

정자(정치)의 의식개혁

학교 행정—학교장 재량권 미흡, 민주적 학교 운영, 학교장의 개혁 의지 미흡, 학교 조직 개혁, 격의 없는 대화

교사—교사의 자율성 침해, 교원과 일반직 직급 조정, 여교사의 과다, 초·중등의 수업 시수 차이, 정채된 교사 교체, 교사의 의견수렴 장치, 승진 및 인사 제도 개선, 연수비 확대, 교사는 수업에만 전념,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위한 교사의 개혁 기획 참여, 자연발생적 개혁, 교육개혁의 개인별 실적의 보장

학생—인성·도덕·윤리·예절교육, 질서교육, 베푸는 사람

학부모 및 사회—자녀의 과보호,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 의식, 사회의 교육력 무시, 개혁의 당위성 홍보, 학력 중시 풍토 파괴, 지구별 세미나 홍보, 가시적 교육개혁, 홍보의 단일화 등으로 다양한 의견과 개혁의지를 나타내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 4. 맺는 말

우리의 교육 개혁은 이제 시작의 불이 서서히 붙기 시작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위의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중 높게 실시되고 있다. 다음은 방과후 활동을 통하여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 개인의 소질·적성 계발에 이바지하고 있음은 정부의 과감한 개혁의지의 성과라고 본다. (1)



# 기회의 평등성이 보장되는 학교

양 승 실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정책학 박사)  
· 하탑 국민학교 학부모,  
본원 교육정책연구본부 연구원  
· 「현대 한국 초등교육정책의  
무방향성과 탈교육적 성향」 외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면서 치열한 학부모 노릇 경쟁 대열에 끼게 된다. 이때부터 자식 가진 죄인으로, 치마나 바지 바람을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교육열을 소지한 희생자로 자리 매김되기 시작한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특히 제도 교육을 중시하는 까닭에 아이를 의무 교육의 첫단계인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학부모가 되는 일에 설레이기도 하고, 약간은 흥분된 상태로 아이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은 다양한 학교 교육의 문제에 하나 하나씩 마주하게 되면서 실망, 자괴감, 분노 등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학부모들을 실망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자신들이 다녔던 한 세대 전과 너무나도 똑같은 학교 환경에 향수마저 느끼게 된다. 학교는 학령기 아이들이 깨어 활동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의 삶의 터전이다. 얼마 전 우리의 국민 일인당 소득이 1만 달러에 달했다는 소식에 접하고서 나는 다시 큰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작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을 떠올려 보았다.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는 점심 식사 후에 마실 물이 없고, 코트나 우비 등을 걸어 둘 곳도 사물함도 없으며, 눈비 올 때 운동이나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강당이나 체육관도 없다. 과학실, 컴퓨터실, 미술실, 음악실 등의 각종 특별교실도 말뿐이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어떤 중등학교의 과학실은 체벌을 가하는 곳으로 변하고, 낡고 먼지진 실험 용구가 흥기로 둔갑하여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마저 심어 주고 있다고 한다. 교실의 온도도 아이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아직도 바깥 기온이 영하 3도 이하가 아니면 난방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한국 교육은 공공 교육투자가 미약하여 너무 춥고 고달프다.

눈에 보이는 학교의 교육 환경이 우리의 경제 사회 발전 지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실망한 학부모들이 다음 단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자못 심각하다. 교육이란 넓은 의미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의 인간적인 교호작용을 통하여 이전 세대의 문화 유산을 전달하고 다음 세대의 문화를 창달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활동에서 이전 세대의 문화 유산을 전달하는 기능을 '사회화' 기능이라고 하

고, 다음 세대의 문화를 창달해 가는 기능을 '사회 혁신' 기능이라고 한다. 따라서 학교가 역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두가지 기능의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의 교육 과정은 이전까지의 문화 유산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므로 정의적인, 인지적인, 운동 기능적인 문화 유산을 골고루 잘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 교육은 너무나 지식 중심이고, 주지주의적이다. 즉 이전 세대의 '덕'과 '체' 영역의 문화 유산보다는 '지' 영역에 과도한 강조를 두고 있다. 그래서 '덕'이나 '체'는 '지' 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나아가서는 불필요한 사회화 영역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즉 우리 사회에서 지향해 온 가치나 도덕 예절 등에 대한 사회화 기능을 학교가 약화시켜 버린 것이다. 통합 교과 과정 등의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이 도입되기도 하고, 근래에는 실천위주의 인성 교육,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방법 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교과서의 지식을 몽땅 흡수하여 답안에 그대로 쏟아놓는 시험점수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은 인성과 창의성의 발달이 중요한 것이고 아이의 개성이나 재능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 시험을 보는지, 시험범위는 어딘지, 다른 집 아이는 어떻게 시험에 대비하는지 등에 촉각을 세우게 된다. 심지어 아이들 시험기간 중에는 동네 상가나 시장이 한산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험 공부를 하거나 아이가 딴 짓을 못하게 감독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족의 기본적인 식생활마저도 학교 시험에게는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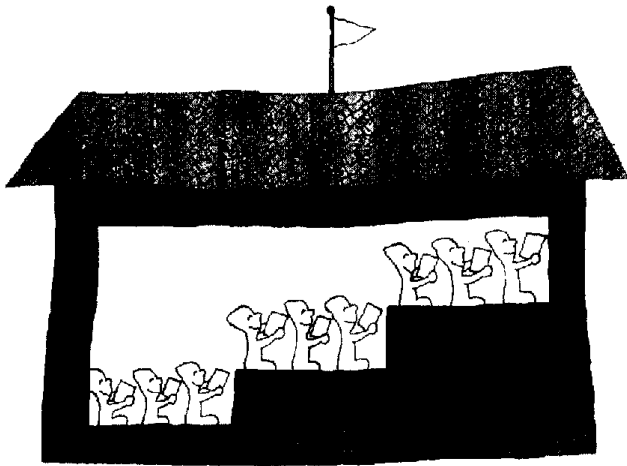
학교의 중심 기능 중의 하나가 학습하는 것이므로 학교에 다니는 동안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물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시험 성적이 모든 학교 활동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 활동 과정에서 아이들의 동기 부여에 매우 중요한 상과 벌주기에도 공부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당연히 생각되는 일종의 관례로서 공부 못 하는 아이는 선행상도 탈 수 없다면 공부를 잘 해야 착한 아이도 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날마다 챙겨야 하는 준비물을 혹가다 빠뜨려도, 사소한 싸움에 말려들어도, 있을 수 있는 실수를 해도 공부 못 하는 아이는 공부를 못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리하다.

그러나 한국의 학부모들이 한편으로는 아이의 시험 점수에 반영되는 공부에 매달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의 눈치를 살피고, 이미 여러번 사회 문제화되어 한국 교육을 망치는 학부모로 낙인 찍히면서까지 촛지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큰아이의 초등학교 일학년 시절 다른 집 엄마들처럼 아이 옆에 붙어서 이것저것 챙겨 주며 아이가 생애 최초로 부딪히는 공권력과 대면 과정에서 경험하는 회로애락을 함께하지 못했다. '저학년 공부는 부모 공부야' '아이 기 죽이지 말고 학교에 신경 좀 써' '요즘 아이 상 좀 받아와?' 그때는 노파심이나 유난함으로 들렸던 주변의 많은 친지들로부터 접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의 속뜻을 아이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하나 둘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바로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낳은 연유도 우리의 학교 현실이 빈한하여 좁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된 가용 자원이 대단히 부족하므로 학부모들은 치열하게 경쟁하여 획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좁은 교실에서 활동성이 강한 많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의 관심과 눈길이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아이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부모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한된 학급활동의 기회도 쟁취해야 한다. 학부모의 눈에는 학급 활동 기회의 평등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안전하고 조용하게 통제해야 하는 교사들이 아이들 간에 문제





**학부모들은 아이가  
한가지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재능을 보이면  
오히려 당황하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골칫거리로 여긴다.**

가 생겼을 때 문제의 발생 원인을 꼼꼼히 밝히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하는 체벌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도 부모에게 주어져 있다. 지식 중심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벌은 앞 뒤가 안맞게도 '체벌'만이다. 우리 사회에는 '지벌'과 '덕벌'에 대한 논의조차도 없다. 우리의 학교 폭력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소리에 접하면서 우리의 공교육 과정이 가혹한 체벌로서만 아이들을 통제하면서 폭력의 씨앗을 길러온 것이란 생각이 든다. 고등학교 시절 당시 상당히 일류로 알려진 근처 남자 고등학교에 '스치면 중상 바로 맞으면 사망'이란 별명을 가진 어떤 선생님 덕분에 학교앞 거리에 접골원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가 거리의 전설처럼 떠돌아 다녔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가벼운 웃음거리로 떠들어 내면서 묵인하는 풍조였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교사와 학생은 인간적인 교호작용을 하지 못한다. 마틴 부머라는 철학자는 교육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중등학생들은 교사들을 '국어', '수학', '영어', '음악', '도덕' 등으로 부른다. '야! 국어 온다 조용히 해!' '어제 수학이 시험지 나눠주면서 때리더라. 때리면 알게 되냐? 맞으면 수학공식이 팍팍 머리 속에 박혔으면 좋겠다. 나 그러면 매일 맞을란다.' '요즘 나 영어 한테 찍혀서 영어 시간만 되면 죽을 맛이야.' 학생들이 각각의 선생님들을 걸어 다니는 참고서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을 버릇 없는 애들의 문제로 돌릴 수만은 없다. 스스로 지식전달자로 행세한 교사와 이를 유도한 우리의 학교 교육활동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관리와 통제 위주의 교육행정에 맞닥뜨린 어린 교육 수요자들의 자괴감의 발현으로 보고 싶다. 교실 문을 닫고 서면 교사가 왕이고, 학교문을 닫고 서면 교장이 왕이다. 그러나 학교 문을 열고나면 공교육을 관리하

는 중앙의 행정부서가 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교육적으로 의미 없는 경쟁 대열에 끼게 되어 제살 깎아 먹는 영화 게임(zero-sum game)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자 중심주의로 인해 딱부러지게 무엇이 라고 잡아낼 수 없는 우리의 교육활동 과정 상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제가 형성된 것이다. 교육 개혁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육활동과정에 복병처럼 숨어 있는 이러한 기제를 찾아 깨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학부모를 갈등하게 하는 또 하나의 학교 교육의 커다란 문제는 학교가 팔방미인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열가지도 훨씬 넘는 학과목들을 모두 잘 해야 인정받는다. 아니 좋은 등급의 판정이 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아이가 한가지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재능을 보이면 오히려 당황하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골칫거리로 여긴다. ‘애 이제 과학 공부 그만하고 영어 좀 해라. 너는 과학은 잘 하지 않니?’, ‘책만 읽지 말고 국어공부 좀 해라’, ‘이제 ○○공부할 시간이다.’ 얼마전 어떤 학부모로 부터 상담요청이 있어 들어 보니, 그 집 아이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편인데 예술 분야에도 재능을 보여 그림을 잘 그릴 뿐 아니라 그림 그리기도 좋아해서 걱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켜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공부 잘하는데 왜 미술을 시키려고 하느냐는 주변의 입방아에 왠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아이 아빠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실로 모순과 갈등의 덩어리다. 우수하여 다방면에 소질을 보이는 아이를 원하면서도 중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어서 가능하면 중요과목을 택해야지, 대학 입학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방안을 전공으로 택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나는 교육학자가 겪는 자녀교육의 갈등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였다.

나는 가끔 키가 제 엄마만큼 커진 큰아이로부터 쓰라린 비판을 듣는다. ‘엄마는 교육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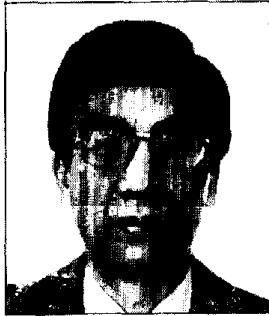
라며 점수 중요한 것을 모르세요?’ 찬찬히 못 챙겨주어 바람막이가 돼주지 못하는 엄마대신 점수를 잘 받아두는 것으로 바람막이를 삼으려는 아이에게, 이론적 노파심에서 그런 것 외울 필요 없다고 한마디 거들고, 논리정연한 어린 교육 수요자의 비판에 본전도 못챙기고 가슴 저 밑바닥이 쓰러 오는 것이다. 책 제목중에 ‘○○의 이론과 실제’라고 붙은 것이 많이 있다. 이는 실로 이론과 실제간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교육학은 실천 학문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 참여자들이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



# 교육개혁의 열매는 '현장'에서

허 경 철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 본원 교육과정연구본부연구위원  
· 「현장교육연구원」,  
「교육과정개발연구」의

## I. 문제의식

1995년 5월 31일에 대통령에게 보고된 교육개혁안에는 교육의 개혁을 위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 아이디어들은 '개혁의 방안'이란 제목하에 크게 9가지 주제로 분류되어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상호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상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독립적인 아이디어들이 과연 어느정도나 포함되어 있는지 수량화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5·31 교육개혁의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디어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번역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안에 제시된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다 세분화된 범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하여 교육부에서는 5·31 교육개혁의 내용들을 정책화하는 노력의 제 1단계 사업으로 5·31 교육개혁안에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48개의 정책 과제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과제별로 추진 일정과 추진 주무 부서를 설정하였다. 앞으로 교육부의 여러 부서들은 자기 부서에 할당된 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5·31 교육개혁의 아이디어들이나 교육부의 48개 교육개혁 정책 과제들은 교육과 관련된 전 영역에 걸쳐 있다. 교육법이나 행·재정 영역으로부터 세세한 학교 교육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대하여 개선의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의 눈에 가장 현저하게 그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은 바로 초·중등학교 교육의 영역이다.

다른 영역에서 아무리 괄목할만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도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교육개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개혁이 성공적이라면 학교 현장 교육과 관련된 어떤 분야에서건 의미있는 변화가

발생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국가수준에서의 교육개혁사업의 성공, 실패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현장에서의 교육변화의 양과 질의 정도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교육개혁 추진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나 기관들은 개혁의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느 정도나 어떠한 모습으로 실천되고 있는가에 궁극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교육개혁이란 나무의 열매는 '현장'이란 가지 끝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개혁의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실천되게 하기 위한 노력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부분으로 개혁의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잘 실천되기 위하여 갖추어져야 할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 그 결과 어떤 노력들이 앞으로 더 시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해 보기로 한다.

## II. 개혁의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잘 실천되기 위한 조건

### 1. 특정 아이디어의 실천적 의미가 명료하여야 한다.

개혁의 특정 아이디어가 현장에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아이디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 특히 그 아이디어가 어떤 실천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그 아이디어의 실천적인 의미가 분명해야 한다. 특정 아이디어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으며, 이해된다 하더라도 잘못 이해된다. 이해되지 않거나 잘못 이해되는 상황에서 그 아이디어가 제대로 실천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다.

개혁의 아이디어가 명료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는 대개 두가지로 구분된다. 한가지는 아이디어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다. 이 경우는 개혁의 아이디어 그 자체가 문제다. 개혁을 제안한 사람 자신이 불분명한 생각을 제시했거나 혹은 아이디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분명한 개념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명료하지 않

은 경우다. 두번째 경우는 개혁의 아이디어를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와 이 경우는 아이디어는 명료하게 제시되었는데도 이해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해 능력의 부족 때문에 명료한 아이디어가 명료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다. 어느 경우에건 이와같은 상황에서는 개혁의 아이디어가 현장에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개혁을 현장에서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개혁의 과제 하나 하나에 대하여 그 개혁 과제 자체의 의미는 물론 그 과제가 현장의 변화에 대하여 제시하는 실천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그 부분의 의미를 명료히 하는 추가작업이 시도되어야 한다. 만약 잘못 파악하고 있다면 바르게 파악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활동이 시도되어야 한다.

### 2. 특정 아이디어에 대한 폭넓은 공감적 지지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개혁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명료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의 실천에 대하여 찬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실천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개혁의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잘 실천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찬성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그 개혁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천할 사람들의 공감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장 학교에서 개혁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천할 사람들은 교사들이다. 물론 학교 현장은 교사 이외에도 교장이나 지역 교육청의 장학진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으나 마지막 실천은 결국 교사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므로 특정 개혁의 아이디어가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역 장학사나 교장, 교감들의 공감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교사 집단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특정 개혁안이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대한 현장의 지지도, 특히 교장 및 교사 집단의 지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의 반응도 알아 보아야 하지만 교육실천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교사들의 반응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특정 개혁안에 대하여 교사들이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와 그 정도를 잘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개혁안이 성공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게 된다.

### 3. 특정 아이디어는 현장의 요구와 여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어느 특정 개혁안이 현장에서 잘 실천되려면 그 아이디어는 현장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의 요구에 적합해야 하며, 현재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 현장의 여건에 어느 정도 부합되어야 된다. 만약 특정 개혁의 아이디어가 현장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와 무관하거나 또는 그 아이디어가 현장의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경우 그 개혁 과제가 현장에서 실천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다.

이 세번째 조건은 사실상 위에서 기술한 두번째 조건의 일부 원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상호 중복되는 점이 있다. 즉 개혁의 특정 아이디어에 대하여 학교 현장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 그 원인은 대개 개혁의 아이디어가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나 이해 사항과 배치되거나 또는 학교 현장의 여건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째 조건과 셋째 조건은 개념상으로는 적어도 구분될 수 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처한 특정 상황이나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적합성이란 좁은 범위를 벗어나 보다 넓은 관점(예컨대 국가적 관점)에서 특정 개혁안의 취지나 의미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번째 조건과 이 세번째 조건을 구별될 수 있다.

개혁의 아이디어가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개혁안이 현장의 요구나 여건과 상당한 정도 일치하여야 된다. 그러므로 개혁의 추진자들은 특정 개혁안이 현장의 요구와 여건에 어느 정도나 부합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개혁안이 현실여건과 전혀 맞지 않는 경우 현실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개혁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개혁안이 현장 교육자들의 요구에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그들을 설득하거나 개혁안을 수정 또는 철회해야 할 것이다.

### 4. 개혁의 여러 아이디어들 간에 상호 갈등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

5·31 개혁안은 개혁의 수많은 아이디어 군(群)으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48개나 되는 정책들로서 구체화되어 있다. 이들 아이디어나 정책들이 현장학교 수준에까지 잘 적용 실천되기 위해서는 그 여러 아이디어나 정책들 상호간에 갈등되거나 모순되는 점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서로 갈등되는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갈등되는 아이디어의 전부 또는 그 일부는 현장에서 실천될 수 없다.

예컨대 종합생활기록부제에는 여러가지 좋은 개혁의 아이디어들이 있으나, 그 중의 일부 아이디어들은 서로 모순된다. 개혁안에 의하면 종합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성취란에는 '절대기준 평가'의 결과를 기술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동시에 교과별 석차를 기술하게 되어 있다. 교과별 석차를 기술하는 아이디어와 절대기준 평가를 한다는 아이디어는 상호 모순·갈등되는 아이디어이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아이디어인 것이다. 이 경우 실제로 현장에서는 교과별 석차를 산출 기술함으로써 절대기준 평가의 아이디어는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개혁의 추진자들은 현

장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개혁의 다양한 아이디어 간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모순의 가능성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그 결과 갈등 모순되는 점들이 발견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기에 그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 5. 개혁의 아이디어들은 일관성(지속성 또는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정 개혁의 아이디어가 그 뜻이 분명하고, 폭넓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현장학교의 여건과 요구에도 부합되고, 개혁의 다른 아이디어들과 상충되는 점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가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현장에 정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5·31 개혁의 내용들은 학교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고 위(국가)로부터 시작되어 아래로(현장학교) 뿌리내려야 하는 성격의 개혁이다. 이런 유형의 개혁일수록 개혁을 추진하는 기관의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정책 구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중하게 결정된 개혁 정책은 가급적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정 개혁 정책의 실천을 맡은 책임자가 바뀌거나, 책임부서가 바뀌었다고 개혁정책이 바뀌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번 5·31 교육개혁의 경우, 교육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이 바뀐다고 개혁의 내용들이 변경되어서는 안되며, 만약 총선이나 대선의 결과로 정권이 바뀔 경우, 그렇다고 개혁의 내용들이 수정되어서도 안된다. 그렇게 되면 개혁의 아이디어들은 현장에 도저히 정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선정된 교육개혁의 과제들은 정권 차원을 넘어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에 입각한 추진 기구는 개혁의 아이디어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작업을 벌여야 하며, 추

진 기구는 최소한 그때까지 존속되어야 한다.

#### 6. 개혁의 정책들(또는 아이디어들)은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용되어야 한다.

개혁의 아이디어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다섯번째 항목과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은 개혁의 아이디어가 모든 상황에 획일적, 고정적,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관성과 지속성은 개혁 아이디어의 핵심적 취지와 골격의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의 세부 항목들이 표현된 문자의 의미 그대로 실천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5·31 개혁안 중에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상호 갈등되는 점도 있으며, 현실의 여건을 고려할 때 실천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개혁 정책들은 앞으로 좀더 구체화·명료화·정련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특히 현장의 여건 변화와 더불어 그 적용 과정에서 개혁안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수정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혁 아이디어의 제안자들은 가능한 한 한 아이디어의 변용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현실과 부딪치고, 특히 현장에서 적용·실천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변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개혁의 추진자들도 원칙은 고수하되 주변적 내용들의 변화는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혁의 아이디어들이 현장에 착근되기 위하여 어떤 종류와 어떤 수준의 변화, 변용이 있어야 할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7. 개혁의 아이디어들이 현장에 정착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책이나 개선책을 제안하는 다양한 수준과 종류의 기구가 조직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특정 아이디어가 현장 학교에 정착되기까지는 긴 과정이 요구되며 그러는 동안에 많은 번움을 겪게 마련이다. 추진의 동력이 약한 경우 중간 과정에서 소멸될 수도 있고 강하게 살아남아 현장에 정착된다고 해도 처음의 취지와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으로 정착될 수도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건 교육개혁의 아이디어들이 정책화되고, 그런 정책들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감시 체제의 제도화는 개혁안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과거의 개혁안들이 거창하게 시작되었다가 흔적없이 사라진 이유 중의 하나는 전 과정을 계속 감시하여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감독 홍보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혁안이 최종적인 수준에서까지 실천되려면 모든 과정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진실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감시기구가 존재해야 하고, 그 기구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개혁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을 결성하였는데 이 기관이 공적인 차원에서 개혁안의 추진과정을 자체 감시할 수가 있다. 그러나 더 바람직하게는 각종 민간단체들이 개혁추진과정을 감시 감독하기 위한 기구들을 결성하여 그 진행의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다.

### Ⅲ. 맺는말

교육개혁은 학교교육의 변화로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 교육개혁의 기치가 아무리 요란하게 휘날려도 학교현장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휘황함은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개혁이 현장에서 구

체적인 모습으로 정착 적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의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개혁안이 현장에서 실천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가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개혁의 아이디어는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하고, 여러 수준과 부류의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현장학교의 실패와 구성원들의 요구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아이디어들간에 상호 갈등이나 모순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개혁의 아이디어들은 유연 적용되어야 하며, 그 아이디어들이 현장에 실천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여러 수준의 감시 감독 점검 기관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사정(査定)되어야 한다.

개혁의 씨를 뿌리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개혁의 결실을 거두는 일은 더 더욱 어렵다. 5·31 교육개혁의 씨앗은 뿌려졌다. 지금은 이 씨앗이 학교 현장에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

# 창조적인 아이를 기르는 '열린 교육'

이 인 효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 본원 학교발전연구본부책임연구원
- 「인문계 고등학교 교직원문화연구」,  
「교사와 교직원포토」 외

학교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찾는다는 크게 두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교육 이론으로부터 연역하는 접근이고, 또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학교 개혁 방안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다. 전자의 접근은 교육이론가들이 주로 취해온 것으로, 이론적 모델을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절차, 방법, 자료를 구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접근에 따라 마련된 방안들은, 연구 개발 과정에 일부 현장 교원들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적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거나 일부에서만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연구진들은 아무리 좋은 교육 모델을 제공해도 교사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관성에 젖어 있어 그것을 쉽게 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출발한 학교교육 개혁 방안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교사들이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교사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교사가 자신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순간에 마음을 달리 먹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변화될 수 있다. 현장 교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열린 교육"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교육"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그것은 현장 교사나 교육 관계자들에게 참신한 충격을 주었다. 그때까지 거의 바꾸기 어려운 것처럼 비관적으로 생각해왔던 획일적 일제식 수업이 간단하게 부정될 수 있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열린 교육" 실천자들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학생들의 개별적 능력과 수준에 따라 학습 내용과 속도와 시간을 달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교육은 흔히 개별화 교육, 개인차에 부응하는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개별화 교육은 교육학의 오래된 教授 이론 중의 하나로서 현장 교사 중 교대나 사대 재학 시절 한번이라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이론으로 알고 있던 개별화 교육을 다인수 학급, 입시 준비, 시험 준비 등등의 이유로 실천하지 않고 있던 교사들에게 "열린 교육"에서의 개



별화 교육은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즉, 40명 이상이 되는 과대 학급에서도, 능력별 반편성이나 방과후 보충지도 등을 하지 않고도, 시험과 입시 준비에 일제식 수업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개별화 수업 방법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 “열린 교육”에서의 개별화 수업은 “소집단지도/개별학습 병행 수업”(이용숙, “열린 교육이란?”, 제주도교육청, 『열린교육』, 1995)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업 방법이다. 이 수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 시간의 수업 시간에 다룰 학습 내용과 학습 전개 절차를 전체 학생 앞에서 교사가 설명한다. 이때 학생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도 있고, 교실 앞 자리에 교사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들을 수도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이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는 기본 과제와, 기본 과제를 마친 학생에 한해 할 수 있는 심화 과제 및 선택 과제를 제시한다. 이후 교사는 5~6명의 소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집단별로 차례로 기본 과제에 대한 지도를 해준다. 교사가 소집단 지도를 하고 있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기본 과제, 심화 과제, 선택 과제를 개별적으로 학습하며, 중간에 의문이 생기면 소집단 지도를 하고 있는 교사에게 가서 물어본다. 학생들은 과제를 끝마치면, 보조교사(학부모 자원 봉사자, 교사 혹은 과제를 먼저 끝낸 다른 학생)에게 제출하여 그 자리에서 채점을 받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학습한 후 검토를 받는다. (비교적 간단한 과제의 경우, 학습공간 한 편에 해답지가 제시되어 있고, 과제를 끝낸 학생들은 각자 해답지를 가서 보고 채점한 후 교사의 검토를 받는다.)

개별화 수업은 대중교육체제에서의 획일적 수업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즉, 신세호는 1973년 글레이서(Glaser)의 일반교수모형과 개별처방식 교

수체제(Individually Prescribed Instruction)를 소개하였다. IPI는 教授목표를 가능한 구체적 행동목표 수준으로 상세화한 후, 특정 과제에 대한 사전 검사를 통해 학생이 그 과제를 학습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여, 통과하면 그 과제를 학습하게 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그 이전 수준의 과제를 학습하게 하는 절차를 따르는 교수모형이다(신세호, “교수의 개별화”, 김호권외, 『현대 교수이론』, 교육출판사, 1973: 102). IPI는 모든 학습자들이 완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속도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컴퓨터 보조수업(CAI)과 컴퓨터 운영수업(CHI)등으로 발전되고 있다(권성호, “수업매체의 활용”, 서울시교육연구원, 『수업기술의 이론과 실제』, 1995: 305).

이와 같이 이미 소개되었던 개별화 수업과 “열린 교육”에서 하고 있는 개별화 수업은 무엇이 다른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IPI에서는 학습 내용의 학생간의 차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열려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열린 교육”에서는 한 단위의 수업 시간(1시간 혹은 1주일)에 한정하여 열려 있다는 것이다. 즉, IPI에서는 극단적으로는 무학년제까지 가능한 반면, “열린 교육”에서는 매 수업 단위마다 학생들은 모두 동일한 출발점(기본 과제)에서 출발하여 다만 매 수업 단위 끝에 도달한 지점에만 개인차가 있게 된다.

IPI에서는 교육과정이 교과별, 수준별로 상세화되어 있고 계열에 따라 순서화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열린 교육”에서는 교육과정을 수준별로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개인차가 수직적으로 크게 벌어지게 하는 대신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과제의 종류를 늘리는 수평적 선택 과제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열린 교육”은 개별화 수업이기는 하되 단위 수업시간내의 개별화 수업이며, 개별화를 단위시간내로 한정하기 위

하여 선택 과제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개별화 수업에 학생의 자율적 과제 선택권을 추가하고 있다.

IPI나 “열린 교육”이나 둘 다 기본적으로 개별화 수업을 지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IPI는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못한 반면(1970년대 중반에 개별화 수업의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학습”이 전국적으로 시도되었으나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다), “열린 교육”은 처음에는 느리게 전파되다가 1993년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993년에는 10여개 학교가 실시하던 것이, 1994년에는 100여개, 1995년에는 400여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용숙, 1995.)

그것은 무엇보다 기본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성장 및 시민의식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우리 사회가 이제 사회 전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시대적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에도 IPI보다 “열린 교육”이 전파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더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 나라 학부모들의 조건반사적인 자녀 학력 콤플렉스, 자기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 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공개’되는 것을 참기 어려운 수치로 여기는 태도 때문이 크다. 이런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력 차이(학습진도의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IPI를 실시한다는 것은 석유통을 들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일 것이다. 개별화 수업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자기 자녀가 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남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는, “열린 교육”에서와 같은 단위 수업시간내의 개별화 수업이 최상의 대안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앞으로 부모들의 자녀학력 콤플렉스가 어

는 정도 해소된다면, “열린 교육”에서의 개별화 수업이 단위수업시간 밖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열린 교육”에서의 개별화 수업이 단위 수업시간 밖으로까지 확대되면, 그것은 학교급간 구별을 없애고 1학년부터 10학년제로 운영되고, 수준별 교육과정이 운영될 7차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부모들의 자녀학력 콤플렉스가 줄어들고 있는 징조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20대 학부모들은 그 이전 학부모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자녀교육열을 보이고 있다.[이인효, 1995] 즉 30대 학부모에 이르러 최대로 확대되었던 일류대학을 향한 열망이 20대 학부모들에게서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에 보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이 30대에서 가장 적고 20대에서 많아진다. 올해 대학입시 지원 상황에서도 고득점자가 전문대에 많이 지원하고 4년제 대졸자가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등 학력과과 지원현상이 작년에 비해 심해졌다.)

그러나 “열린 교육”은 개별화 수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열린 교육”의 또 하나의 의미는 통합교육이다. 통합교육은 교과간의 경계가 ‘열린’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열린 교육”에 포함되어 있다. “열린 교육”을 선도해 온 어떤 교육자는 통합교육이 “열린 교육”의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말하였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통합교육은 개별화 교육의 발전된 형태가 아니라 서로 별개의 형태라고 생각된다.

즉, 개별화 교육은 학생이 학습해야 할 학습 내용이 무엇이나를 따지는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어떤 내용이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반면, 통합교육은 학생이 학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나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서, 교과만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통합교육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경

우를 보면, 통합교육은 소수의 학생만이 만족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탈피하고 모든 학생들이 만족스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능력, 흥미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혁하려는 것이다(이현남: “열린 교육의 유래와 개념”,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연구회(편), 『열린 교육의 이해』, 양서원, 1994). 통합교육은 처음 시작할 때인 1960년대에는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 과목의 교육내용에서 출발해서 비슷한 주제를 찾아내는 방식을 취했으나, 그 방식으로는 통합이 어려워 80년대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흥미있는 주제를 먼저 정해 놓고 각 과목의 교과내용을 가능한 많이 이 주제와 연결시키는 “주제중심접근(topic approach)”을 취한다(HMI, 1989. 이용숙: 19에서 재인용).

한국에서 “열린 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먼저 교과를 중심으로 개별화 학습 방법을 시도하고, 개별화 수업에 익숙해진 다음에 통합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통합교육으로는 영국의 통합적 접근과 주제중심접근이 모두 시도되고 있으며, 두 접근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교사가 상당수 있다. 통합적 접근을 하는 교사들은 학년별로 국민학교 9개 교과의 교과서를 펼쳐 놓고, 서로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을 뽑아 주제별로 한데 모아서 교육과정을 다시 조직한 후 그 교육과정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 주제중심접근을 취하는 교사들은 교과서를 모두 덮어두고, 학생들이 하루 혹은 한 주일 (교과교육시간이외에 별도의 시간을 내어 주제중심접근을 하는 교사는 주1회 한 달, 한 학기 등) 동안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게 하여 그 주제를 중심으로 교사의 도움을 받아 조별로 혹은 개별적으로 학습활동을 하게 한 후,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이 교과서의 어느 단원에 어떻게 실려 있는지 찾아보게 한다.

한국의 “열린 교육”에는 또한 부르너가 말한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되 문자나 언어 등의 象徴

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피아제가 제시한 아동의 인지적 발달단계 중 낮은 단계에 맞추어 동작 혹은 作動으로 표현하거나 映像으로 표현하여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열린 교육”에는 “논리적으로 일관된 설명을 해주어 학생들의 머리를 환하게 해줌으로써 의문을 없애는 수업”(“압축식 수업”, 이인호, 『인문계고등학교 교직원문화 연구』, 1990)이 아닌, 인지적 불일치를 의도적으로 조장하여 학생들이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도록 하는 수업(양미경, “질문의 생성을 촉진하는 교육적 조건 연구”, 『교육학 연구』, 제33권 제1호, 1995), 창조적 발상을 맘껏 펼치도록 유도하는 수업이 포함되어 있다(임선하, 『창의성에의 초대』, 1993).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이론적 배경에서 주장된 교육의 여러 원리들이 “열린 교육”의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어, “열린 교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열린 교육”인지 혼동스러워진다. “열린 교육”이란 이름을 쓰지 않으면 도저히 표현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도 “열린 교육”의 정체를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때, 과연 그 무엇이 있는가? 개별화 수업, 통합교육, 지식의 구조(作動的, 映像的 표현), 탐구식 수업, 토론식 수업, 창의성 교육 등의 이름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까지 어떤 교육이론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한국 “열린 교육”의 독특성은, 한국 상황에 맞게 변형된 개별화 수업 즉, 단위수업시간내의 “소집단지도/개별화학습 병행수업”이라는 수업 방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교육학자 중에서는 이러한 “열린 교육”을 개별화 수업의 이상(효율적인 완전학습)도 실현하지 못하고 교육내용의 가치문제도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라고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른다.

그러나 학생을 나름대로의 세계를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아무 개성없는 똑같은 빈 자루들처럼



럼 취급해온 획일적인 일제식 교육—이 교육의 뿌리는 우리의 전통교육이 아니라, 일제 통감부 시절에 이식된 것이다(오성철, 『1930년대 초등교육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을 벗어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 바로 이 “열린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열린 교육”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열린 교육”에서의 개별화 수업은 단순히 수업 방법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일제식 수업을 하려는 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제시할까, 학생들의 전체적 반응은 어떻게 등만을 생각하지만, 개별화 수업을 하려는 교사는 학생들 하나하나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학생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이 내용을 지속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영호는 필 선택 과제로 주면 좋아할까?” 등등을 생각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졌던 교사의 마음은 수업 시간 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되어 학생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선생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을 알게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학생을 심하게 때렸던 자신을 반성하고 다시는 학생을 때리지 않기 위해서 “열린 교육”을 시작했다는 한 열성적인 열린교육 실천 교사의 고백은 “열린 교육”이 가져오는 이러한 효과를 잘 보여준다.)

“열린 교육”의 개별화 수업은 교사 자신의 교직에 대한 태도도 변화시킨다. 주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예상 시험문제에만 주로 맞추어 어떤 학생이 대상이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설명을 하는 교사는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교직을 자신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학부모나 교장의 등쌀에 떠밀려서 할 수 없이 해야하는 비참한 직업으로 생각하지만, 학생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그들에게 알맞는 교육을 해주려고 계획하는 교사는, 교직을 힘들기는 하지만 매우 창조적이고 뿌듯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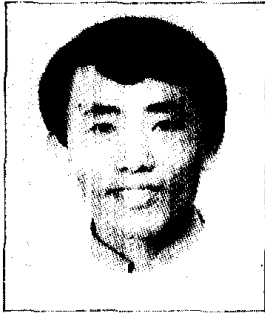
육내용과 방법으로부터 이탈된 교사가 아니라 교육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decision-maker)이며, 어떤 것이 보다 나은 지를 반성해 보는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들이다. (또 한 사람의 열성적인 열린 교육 실천교사는 교사들이 흔히 교수-학습자료가 부족해서 수업을 잘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많은 교수-학습자료가 공급되어도 그것이 교사에 의해 재해석되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습의 상황에 맞게 재조직되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열린 교육”에서의 개별화 수업은, 기존의 일제식 수업이 통합교육, 지식의 구조(作動的, 映像的 표현), 탐구식 수업, 창의성 수업 등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통합교육 등등은 개별화 수업을 통해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업하고 학습하는 습성이 몸에 밴 교사와 학생들의 경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열린 교육”은 ‘열린’이라는 수식어가 뜻하듯 그 개념과 지향 자체가 열려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아동에 관심을 가지는 어떤 수준의 교육이든지 “열린 교육” 속에 포함될 수 있는지 모른다. 또한 “열린 교육”은 그것을 실천하는 교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형 발전시키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열린교육자들은 “열린 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한 방식의 교육들의 의도, 이론적 근거, 개념 등을 변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열린 교육”을 실천하는 교원들과 “열린 교육”에 관련된 이론 및 개념의 명료화 작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서로의 작업을 검토해주는 협동적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하여 “열린 교육”의 실천이 세련되고, 이론이 구체화될 것이다. ●

# 좋은 학교를 만드는 교육 연구

강 태 중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본원 학교발전연구본부  
학교체제연구팀장
- 「A Further Search for School  
Effects on Achievement  
and Schooling Experience」 의

학교 개선을 궁리하면서 둘러보아야 할 연구는 수없이 많다. 사실 교육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치고 학교 개선에 일말의 시사도 없는 연구가 있겠는가. 이 점에서 모든 교육 연구가 학교 개선을 모색하는 연구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며, “학교 개선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살핀다는 말은 매우 애매한 것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피겠다는 연구가 어떤 것들인지 글의 머리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수많은 교육 연구들이 교육 실제상의 문제를 묵시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시사하는데, 그들 중에는 바람직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탐구한다는 목적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여기에서 살피려는 연구들은 이와 같이 학교 개선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이다.

학교 개선 문제를 다룬다고 명시하는 연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한 부류는 ‘좋은’ 학교들의 특성을 찾고 그 특성들을 다른 학교에 전파하려는 연구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연구자가 주목하는 학교 교육의 문제를 밝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의 연구들을 ‘성공적 학교의 연구’라고 부르고 후자의 연구들을 ‘학교 대안 연구’라고 부르기로 한다.

‘성공적 학교의 연구’는 말 그대로 성공적인 학교들을 살피는 연구이다. 그러한 학교들을 관찰하여 그 학교들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는 학교 특성을 찾고, 다른 일반 학교에서도 그러한 특성을 키우는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이다. 어떤 학교를 성공적인 학교로 보고 어떻게 그 학교들을 확인해내는가 하는 점에서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지역사회에서의 명성이나 교육자들의 의견에 비추어 성공적인 학교를 찾아 관찰하는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의 현재 여건에 근거해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추정하고 실제 성취도와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비해 현격하게 높으면 성공적인 학교로 보고 세밀하게 살피는 연구들도 있다.

대체로 ‘성공적 학교의 연구’는 어떤 특성들이 성공적인 학교들을 다른 일반 학교들과 구별되게 하는지 밝히고 있다. 그러한 특성을 밝히는 작업에는, 물론, 그 특성들이 다른 학교에서 키워진다면 그 학

교들도 성공적인 학교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학교의 개선을 염두에 두고, 개선을 위해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서 성공적인 학교의 특징을 지적하는 양상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숫자로 치면 대여섯 개의 특징을 드는 사례에서부터 삼사십 개의 특징을 드는 연구까지 다양하다. 상세한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특징들은 크게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성공적인 학교들에는 전통이나 교육 목표 등을 핵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이나 집단 정신 같은 것이 있다고 얘기된다. 학교의 이념이나 목표에 대한 이해가 학교 구성원들 간에 공통적이고, 따라서 구성원들의 응집력이 강하고 목표를 향한 학교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된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도전적이고 최선의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도 성공적인 학교의 특징으로 흔히 지적된다. 학생들을 방임적으로 두기보다는 평가나 독려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부를 많이 시키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위하여 도전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회로서 학교가 매우 질서정연하다는 특징도 중요하게 지적된다. 교실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여러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학교가 성공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긴밀하다는 점도 종종 지적된다. 학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역기능적으로 간섭하는 경향은 적고 또한 학생들의 일탈을 암암리에 방지하는 사회적인 연대의식이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학교는 제대로 설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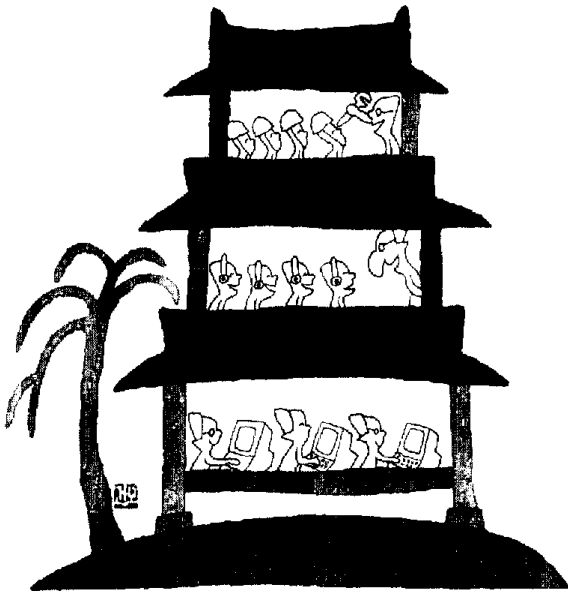
끝으로 하나 더 든다면, 성공적인 학교의 특성으로 거의 빠짐없이 열거되는 것이, 학교장의 훌륭한 지도력이다. 지역사회나 상급 관청으로부터 오는 비교육적 간섭을 차단하여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살릴 수 있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선택과 운영을 전문성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교장

의 존재가 성공적인 학교에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성공적 학교의 연구’들이 보고하는 “좋은” 학교의 특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평가(評鑑)들은 드물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육자들이) 그 연구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며, 성공적인 학교의 특징으로 논의된 것들이 교육 개혁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특징으로 논의된 것들이 교육 개혁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특징들을 일반화해서 받아들여거나 정책적인 방안에서 여과없이 활용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다. 우선, 그 특징들이 다분히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추출된 것이어서 객관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한 학교 혹은 소수의 학교에서 성공적이었던 양태가 다른 학교에서도 성공적이라는 보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성공적 학교의 연구’가 흔히 어려운 여건에서 좋은 결과를 냈던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비교적 여건이 좋은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학교 발전을 시도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다. 또, 그 연구들이 대체로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졌는데, 학교급이 다른 중등학교에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교 대안 연구’라고 앞에서 이름한 다른 한 부류의 연구들은, 이제까지 간략하게 정리한 ‘성공적 학교의 연구’와 달리, 이미 있는 학교에서 성공의 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교의 대안을 구상하여 제시하는 연구들이다. 각 연구는 나름대로 기존 학교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 모형을 제안한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연구들이 문제시하는 학교 교육 양상은 연구자들의 배경만큼이나 다양하다. 정신 건강에 전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은 학교 활동이나 생활이 초래하는 정신





**성공적인 학교들에는  
전통이나 교육 목표 등을 핵으로 하는  
공통체 의식이나  
집단 정신 같은 것이 있다고 얘기된다.  
학교의 이념이나 목표에 대한 이해가  
학교 구성원들 간에 공통적이고,  
따라서 구성원들의 응집력이 강하고  
목표를 향한 학교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된다.**

특별 기획

건강상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를 구상한다. 학습 이론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올바른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중시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제안한다. 조직 이론이나 경제학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은 공립 학교가 정치적 과정이나 관료적 운영 체제에 묶여 자율적이며 능률적인 운신을 할 수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학교 교육을 자유 시장의 원리에 근거한 사립 학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좀 더 포괄적인 견지에서 학교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대안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를테면, 엄격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노력을 촉구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흥미 위주의 친박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가 공부를 멀리하는 '신세대' 학생들과 타협하는 현상을 개탄하면서, 학교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엄격한 요건을 명제의 형태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요청하는 연구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학교가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

'학교 대안 연구'의 연속선 상에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보면, 현재의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또 다른 형태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학교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학교를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까지 학교에 기대 하였던 교육적 기능을 사회 속에 갖출 것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있다. 현재와 같은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이러한 연구들의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면서도 여러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대안들은 다양하다.

국가적 교육망(단순한 정보망이 아니라 조직, 기구, 시설, 설비 등이 거국적으로 동원되는 망)을 구성해야 한다는 대안이 있다. 그 망을 통하여, 배움에 활용할 수 있는 기구나 시설이 어

디에 있는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같이 배우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등 개인 학습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요건을 구비시켜 주는 체제를 구축하자는 대안이다. 개인들이 간판으로서의 졸업장이 아니라 참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 학교 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 교육 체제(정보망과 첨단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초고속 학습 체제)를 구축하자는 대안도 있다. 현재의 학교 체제가 사회적 불균등 문제를 심화시키거나 과학 기술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된 야심적인 대안들이다.

학교 대안 연구들이 내놓고 있는 안들은 대체로 혁신적이고 그만큼 참신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요즘과 같이 “생각해보지 못한” 개혁 아이디어를 반기는 풍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기울일만한 대안들이다. 그러나 제안된 대안들이 대체로 특정한 측면을 편중되게 배려하면서 교육의 총체적 균형을 잃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정신 건강이나 인지적 학습만이 학교 교육의 초점일 수는 없으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본연의 목적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 ‘성공적 학교의 연구’를 비판하던 똑 같은 논리로 ‘학교 대안 연구’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인 문제 인식을 토대로 연구자 배경에 구속되어 있는 문제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주장이나 제안에 전면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사실 모든 연구가 (적어도 사회 과학 영역의 연구가) 연구자의 편견에 의해 채색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연구 결과가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면, 이제까지 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들을 개략적으로 살피면서 행한 비판은 지나치게 진부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비판은, 연구자들의 편견이 연구 결과를 좌우한 듯하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신중해야겠다는 주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바, 지극히 상식적이고 어느 상황에서건 휘둘러 댈 수 있는 편리한 비판의 칼이라고 하겠

다.

이와 같이 진부한 논의를 끌어 오면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학교 발전을 궁리하는 과정이나 결과의 판단은 궁리하는 사람들의 편견에 있다는 점이다. 학교 발전의 비전이나 구체적인 대안이 그들의 편견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을 들어, 기존의 많은 논의들을 섭렵하고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는 과정이 학교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앞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피고 그것들에서 시사를 찾는 과정에 병행해서 (아니 어쩌면 그러한 과정에 우선해서), 우리의 교육적 편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 필요성은 연구자 개인의 편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교육적 관념 일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학교 교육을 포함한 여러 부문의 교육적 개혁을 도모하면서 우리는 다분히 이 진부한 상식을 간과해왔다고 여겨진다. 개혁 아이디어의 참신함이나 시류적(時流的) 대응성에 주목한 나머지 (예컨대 ‘교육적 선택권 보장’, ‘교육의 질 제고’ 등의 문구로 포장되는 경제 논리의 개혁안들이 풍미하는 요즘의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안을 제안하고 지지하는 우리들의 편견을 되돌아보는 데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개혁안에 함축되어 있는 교육과 학교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일그러져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 교육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성 일 제



- 서울대 교육심리학과 졸업
- 캐나다 앨버타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 본원 학교발전연구본부장
- 「자연과피와 발전관의 재지향」의

## 미래의 우리 삶의 질은 우리 사고의 질에 달려있다 (드 보노)

교육의 핵심은 '올바른 인간'이 되는 데 있다.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 철이 들고 성숙해 가면서 '원만한 인간', '격조 높은 품격을 갖춘 인간', '자기를 알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으로 육성해 가는 것이 교육의 본이며, 그것은 결국 '완성된 인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때문에 그것은 끝이 없으며 평생토록 같고 닮아야 할 과정인 것이다.

반면 영어에서 '목적'이나 '목표'를 흔히 'end'라고 하는데, 그 말은 '끝'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일정 목표에 도달하면 그것이 끝이다. 교육을 여러 개의 단계나 단위로 나누어 볼 때, 각각으로 보면 끝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목적 혹은 목표라고 명명했음직 하다. 그러나 그 끝은 또 다른 과정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졸업'을 뜻하는 'commencement'가 동시에 '시작'을 의미한다는 게 그 예다.

여기에서 교육에 대한 두 가지의 다른 시각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과정중심' 교육관이요, 다른 하나는 '목표중심' 혹은 '결과중심' 교육관이다. 전자에서는, 교육의 시작은 있으되 끝은 없다고 보는 반면, 후자에서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정도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각각의 단계는 또 다른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된 과정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절된 매듭의 연결이기에, 각 단계는 그 나름의 끝(목표)을 상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정중심'에서는 '끝'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반면 '목표중심'에서는 '과정'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한다.'...는 등의 표현이 '목표중심'의 입장을 대변한다.

실제로 교육의 과정에서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 내용별 단계나 단락을 구분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잠정적 '편의' 때문이라 할 수 있



는데, 거기에 큰 의미를 두다 보니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가령 올림픽에서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은 '과정 중심'을, '메달을 많이 따고 보아야 한다'는 것은 '목표중심'을 각각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생각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과정중심'은 과정 그 자체를 교육의 목적으로 보는 반면, '목표중심'에서는 교육을 궁극적으로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것이다. '목적'과 '방법'의 도치가 바로 여기에서 연유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각 단계마다 결과(끝 혹은 목표)를 중시하다 보니 그것을 또 다른 무엇을 위한 방편으로 여기게 된 게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끝'을 보아야 하는 데서는 끝까지 '끝'을 추구하게 마련이지만, '과정중심'에서는 끝이 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원래 교육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교육을 잘해서 성숙된 인간이 되면, 그 결과로 남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도자적 위치에 나서게 되기도 했다. 여기에서 교육수준과 소위 사회적 출세 정도는 반드시 정비례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수련을 쌓은 사람일수록, 공부를 많이 하여 도통한 수준에 이른 사람일수록 세속적인 것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통례였다. 출세를 위하여 공부를 하고 과거에 합격하고자 한다거나, 사회적 계층상승이나 부의 증대를 위하여 교육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들은 근래에 와서의 일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원래의 교육의 본질이 변질되어 어떤 다른 외물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그것이 오늘날 지배적인 인식으로 된 셈이다. 결국 '과정중심' 보다는 '목표중심'교육관이 지배적이 된 것이다.

학문이라는 것도 원래는 그 자체가 좋고, 보람이 있어서 그냥 할뿐이었던 것이, 요즘에는 어떤 모양이든 대가(목표) 없이는 안하게끔 되었다. '양을 찾기 위한 송사로 변호사를 찾아가면 소값을 묻다'는 스페인 속담처럼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다 대가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 공부를 한

사람들이인 셈이다.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교육은 크건 작건 '인간 사회'가 존재해 온 곳에 함께 존재해 왔으며, 그러기에 그것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의 생존 혹은 종족의 번식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은, 때의 고금이나 양의 동서나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앞서 지적한 바 '목적'과 '방법'의 도치가 이루어지고, 또한 교육에 대한 '다다익선'식 사고가 지배적 상황이 되면서 '방법' 즉 '어떻게'라는 데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반면, '목적' 즉 '무엇'에 대한 질문은 좀처럼 들어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교육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기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할 수 있겠는가에만 관심을 둘 뿐, 그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필요하며 '무엇'을 위해 좋은 것인가라는 문제는 망각해 버리게 된 셈이다. 교육은 어떤 교육이든 무조건 다 좋은 것일 수는 없다. 가령, 소매치기 교육, 깡패 교육, 도둑놈 교육, 욕심쟁이 교육, 극단적인 사교(邪敎)집단의 교육...등은 좋은 교육일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어떻게 '교육'이라 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 그런 교육 없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며, 입시 위주의 파행교육의 결과나 인성교육을 등한시한 결과로 그런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결국 그런 파행교육의 책임일 수 밖

원래 교육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교육을 잘해서 성숙된 인간이 되면, 그 결과로 남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도자적 위치에 나서게 되기도 했다.

여기에서 교육수준과 소위 사회적 출세 정도는 반드시 정비례할 필요가 없었다.



교육은 내용이 그 본이며, 형식은 껍데기일 뿐이다.  
 학교도 호화로운 시설, 최신 기자재,  
 현란한 장식 등 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교사들의 사명감, 열정, 올바른 교육관,  
 바람직한 학습 풍토 등이 백배 천배 중요한 것이다.  
 형식은 내용을 위한 포장일 뿐이다.

## 기획

에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의 많은 역작용은 '어떻게'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하여 '무엇'에 대한 방향 감각을 상실한데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면에서 교육을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형식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졸업장, 학교간판, 학력(學歷)수준, 점수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다. 무엇을 얼마나 배웠으며, 대인관계, 인성, 적성, 창의성, 애국심, 질서의식, 예의, 양보심, 협동심, 태도, 인생철학 등 전체적인 사람의 됾됨이에 관련된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관심밖에 없다. 사회일반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형식'이 주가 되다 보니 개인들도 그런 경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교육은 내용이 그 본이며, 형식은 껍데기일 뿐이다. 학교도 호화로운 시설, 최신 기자재, 현란한 장식 등 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교사들의 사명감, 열정, 올바른 교육관, 바람직한 학습 풍토 등이 백배 천배 중요한 것이다. 형식은 내용을 위한 포장일 뿐이다. 최소한의 포장이야, 사람에게 웃이 있어야 하듯,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과대 포장은 더 큰 실망만을 안겨 줄뿐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또 다른 면에서 교육의 과정을 '눈덩이'와 '구르는 돌'의 두 측면으로 비유해 볼 수 있다. 무엇이든 빠른 시일안에 엄청 많아지는 것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표현한다. 해방과 6·25를 전후한 상황을 오늘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눈덩이'처럼 발전해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육도 양적인 면에서는 그와 유사하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발전이란 '빠르고, 효과적이며, 대량적 규모로 무엇이 증대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무엇'이란, 근래에 와서 '외물'을 독점적으로 지칭하게 되고, 이것이 경제 위주의 발전관으로서 다른 모든 부문의 발전을 경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후 그야말로

‘발전’의 천하통일을 이룬 소위 지배적 발전전형이다.

반면 ‘구르는 돌’의 경우는 스스로를 깎아서 둥글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모나고 거친 부분들이 같고 닳여서 원만하게, 그리고 더욱 단단하게 된다. 인격을 도야한다고 할 때는 이 비유가 제격이다.

명석을 펼 때 끝이 있듯이, ‘눈덩이’를 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펼쳐진 마당의 눈이 한계요, 굴리는 사람의 힘이 한계다. 가령 집채만한 눈덩이를 만들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구르는 돌’에는 한계가 없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그렇다.

이상에서 교육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시각을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다. 과정중심 대 목표중심, 본질론 대 수단론, ‘무엇’ 대 ‘어떻게’, 내용 대 형식, ‘구르는 돌’ 대 ‘눈덩이’ 등이다. 논조로 보면 본질론 쪽의 입장을 지지하고 그 반대되는 시각은 본질론 쪽으로 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필자의 입장을 좀 더 확실히 말한다면, 우선 우리는 두 가지 시각을 다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떡어야 산다’는 것이 사실인 만큼이나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남자도 여자도 다 있어야 한다. 하늘과 땅,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로 내려다 보면 모든 것이 구별되고, 차이가 나고, 좋고 싫고, 그리고 옳고, ...그러나 위로 올려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넓은 지평의 아래로 잠겨 버린다. 현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상도 중요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 시각을 다 필요로 한다. 그 때 비로소 두 다른 시각이 상보적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의 기술·공학사회, 경제위주의 무한 경쟁사회에 이르러 교육에 대한 수단론 쪽의 시각이 너무 지배적인 상황이 되었기에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본질론 쪽으로의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지주의 교육관이 틀렸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 가령 정의적 측면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이다. 더 나아가서 교육에 관한 본질적으로 본질론 쪽이 조금이라도 더 우선하여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되어 왔기에 하는 말이다. 거듭 말하건대 교육의 일차적 관심은 인간의 내면성의 변혁에 있지 외물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발전에 있어서의 핵심 과제는, 그리고 현재상황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두 다른 시각의 보완을 통한 보다 넓은 지평의 구축에 있다. 이것은 개인에 있어서도, 국가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학교발전, 그것은 학교장, 교사, 학부형, 교육행정가, 교육연구자 모두의 교육에 대한 시각이 본질적으로 올바르게 잡혀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㉞

---

### 개인적 변혁이야말로 세계적 문제해결의 근원적 열쇠이다 (로마클럽)

---



# 투 터 의 내

본원에서는 교육개발 연구 결과를 교육기관 및  
교육 관계자에게 널리 홍보 보급하여  
한국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본원 기관지  
'교육개발'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 내용

- 1) 칼럼 명 : 연구동향  
칼럼 성격 : 한국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로  
새로운 연구동향이나 알리고 싶은  
연구동향  
분 량 : 200자 원고지 기준 30매 내외
- 2) 칼럼 명 : 멀지만 가야 할 길(신설)  
칼럼 성격 : 현장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정밀하게 다루어 보아,  
그 개선안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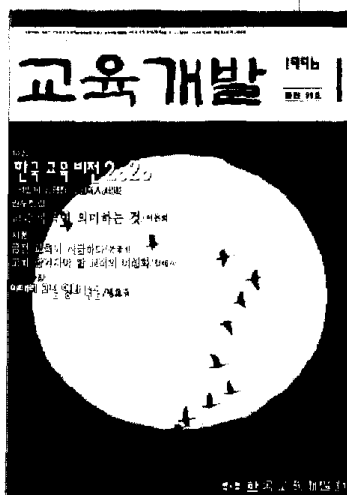
## ◆ 기한 : 수시 접수

## ◆ 제출처 : (우)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홍보편집팀  
(Tel : 572-5121, 교환 233, 234)

## ◆ 기타

- 1) 제출된 원고는 출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합니다.
- 2) 한자는 가급적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원고를 보낼 때는 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 3대가 같이 배우는 학교

천안중앙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 3대가 같이 배우는 학교

— 천안중앙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찾아서 —

박인종 (본원 선임연구원)



**일요일에** 천안중앙고교를 찾은 이유는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통고)가 일요일에 수업을 하기 때문이다. 천안시 원성동 아파트로 둘러싸인 학교의 입구에는 본교 교명과 똑같은 녹색 바탕에 금색 부조의 교명이 나를 맞는다. 학교의 크기에 비해 다소 좁은 교문 안팎에는 방통고 학생들이 타고 온 것으로 추측되는 여러 대의 승용차와 트럭, 봉고 차량이 수업이 끝나면 타게 될 주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방통고 학생들은 20대~50대의 성인들이 대부분이며, 80% 정도가 유직자이기 때문에 차량들을 소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본부교무실과 분리되어 있는 방통교무실에 들어가니 낮익은 최창길 교무주임이 교장실로 안내한

다. 전근대 사회의 해체와 함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적 사정과 봉건적 교육관으로 제때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청장년층에게, 고교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이 땅에 방통고가 설립된 시기는 1974년도이다. 올해로 설립 23년이 되는 방통고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천안중앙고 부설 방통고는 6년이 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천안중앙고 부설 방통고는 태생학적으로 흥미로운 면이 있다. 원래 인천에 소년교도소가 있었고, 그 중 공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물포고교 부설 방통고가 교도소 안에 설립되어 있었다. 그런던 것이 소년교도소가 김천에 이어 천안으로 이소하게 되자, 배



우고 있던 교도소내 재소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의 기회를 주고자 천안중앙고 부설 방통고가 생겨나게 되었다. 마침 인근 천안을 중심으로 일반 성인 학생들을 흡수하여 오늘의 이 학교가 되었다. 그래서 1, 2회 졸업생이 모두 재소자 출신이다. 96년 1월 현재 재적 학생수는 총 390명인데, 이 중에 111명은 교도소 재소자이다.

이 학교는 전국 42개의 공립교에 부설되어 있는 어느 방통고에 비해 학교 운영이 건실한 학교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설립 역사가 짧아 지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잘 운영되는 몇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교사들의 열의가 대단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이 학교 교사들은 학기초와 학년말에 자체 워크숍을 열고 있다. 이 워크숍에서 4년마다 순환 전보 발령되어 새로 부임하는 교사들에게 방통고 학생들의 특성과 교수 학습의 특수성, 교과수업방법,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토론하고 있다. 방통고 학생들은 짧지 않은 학습공백기가 있고 기초학력이 저조하며, 면대면 수업일수가 연간 26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학생 대부분이 유직자의 성인층이라는 점, 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는 일반교과와 동일하다는 점, 따라서 이러한 방통고 학습자



교육환경에 가장 적합한 교수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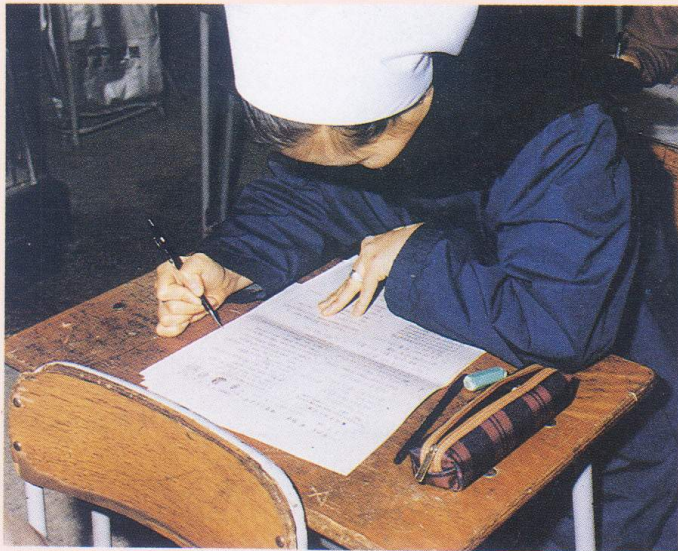
또 담임교사 중심으로 '방통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학적관리와 학생관리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어려운 과제를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해결하고 있다. 여기에 방통고 담당 담임교사 13명과 교무 및 학생 주임교사 2명이 함께 수당의 일부를 모아 '방통계'를 조직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공식적 및 비공식적 조직과 연결망을 만들고 있는 점이 어느 방통고와는 다른 점이었다.

교과지도 및 운영면에서도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다. 방통고는 격주 일요일, 연간 26일 이상 출석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과지도를 충실히 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소단원 제목만 설명하고 날아가도 금새 1시간이 다된다. 학생들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그야



말로 필사적이다. 방통고의 여러 여건이 일반고와 천양지차로 다른 데도 불구하고 방통고 교육과정을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한 점이 방통고가 해결해야 할 가장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의 교과지도는 남다른 데가 있다.

우선 전교과를 지도하는 데에 교과내용을 성인학습자들의 학습 환경=삶의 환경으로 환원시켜 지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텍스트(text)를 학생들이 학습하고 살아가며 일하는 컨텍스트(context)로 리코드(recode)하여 교수한다는 것이다. 학문적 지식 암기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고, 재생할 수 있는 내용위주로 가르친다. 예컨대 국어 교과서의 경우 읽기보다는 쓰기에 주력하도



록 하며 그 소재를 유아일기나 자녀성장 일기로 실생활과 밀접시킨다는 것이다.

수학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활용하거나 실생활에 맞게 지

도한다. 영어는 회화와 생활영어에 주력한다. 생물과목의 경우 가정 건강과 관련시키며, 기술의 경우 학교의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생활에서, 직장에서 직접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내용위주로 지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과지도 방식은 외면상으로 용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어렵다. 교과에 대해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매일 매일 사회지식이나 생활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학생들이 처한 환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방통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고교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학문적인 수준과 실생활 위주의 구조나 용어로 교수해야 하는 수준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이제상 교장도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 본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보다 오히려 더 경험이 많고 노련한 ‘베테랑’ 교사들을 방통고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듯하다. 여타 방통고의 경우 방통고를, 담임이건, 주임이건, 교과지도건 서로 안맡으려고 하는 바람에 본교 교사 배치를 다 끝내고 남는 교사나 새로 전근해 온 신참 교사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나 학교 경영자가 보통 철학적 소신이 없다면 지역 사회와 교육계, 정치계, 학부모로부터, S대는 몇 명 보내고, Y대와 K대는 몇 명 보낼 것인가 하는 커다란 압력에 부심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압력에 직면하다 보면 교사들을 ‘닥달’하게 되고, 그 교

사들은 다시 학생들을 '닥달'하여 공부를 시키기 마련이다. 이른바 전사회적인 입시경쟁구조가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보충수업이다, 영재반이다, 별도 특수학급이다 정신없이 지도하게 된다. 여기에도 격주이기는 하지만 일요일에 집안 경조사 참석은 물론이요, 쉬지도 못하고 학교에 나와 방통고 학생들을 지도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본교 보충수업비만 하더라도 1만 5천원 정도하는데 일요일 휴일 반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당이, 그나마 시수 적은 교과 지도교사에게 '차비'도 안되는 1만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고를 맡겠다고 나서는 교사들이 신기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우선 교무주임이 국어과이며, 학생주임이 수학과 담당 교사인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의 배려와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안용환(생물담당) 3학년 담임 교사는 본교수업이다 방통수업이다 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쩌다 일요일에 쉬게 되면 무엇을 할까하고 멍해진다고 한다. 가족들에게 제일 미안한데, 그래도 학교에 나오면 열심히 학생들을 도와주어야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한다. 이러한 지도로 '94년에 졸업생중 39명이 방송대에, 10명이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도 방송대에 22명이, 4년제 대학에 5명이 각각 지원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어떠한가. 학생들의 열의와 학습의욕은 대단하다. 우

선 이러한 학교제도가 아니었다면 나이들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방통고 제도 자체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방통고 학생들은 그야말로 어려운 생활과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학력이 없어 좌절과 부끄러움을 맛본 뒤에야 배워야 하겠다는 의욕으로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열의가 높다. 또 교사에 대한 고마움도 대단하다. 교장실에서 대화를 가진 이 학교 동창회 부회장인 지태운씨(37세, 기계제작업체 대표)에 의하면 "우리가 동창회를 조직하고 열심히 뛰는 이유는 고마우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였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어려움을 생각하니 흐뭇한 사제지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 졸업반인 장미선(35세) 주부 학생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6남매 중 맏이로 태어나 젊었을 때 배움의 기회를 놓쳤는데 국민학교 동창의 권유로 입학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자신이 방통고를 다닌다고 뽐뽐이 이야기하고 오히려 이 학교다니라고 권유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사실 방통고 학생들은 '방통교(放通敎)'의 신자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방통고를 알게 되는 계기는 일간지와 지역정보지, 반상회보, 우연한 기회에 접한 포스터, 팸플렛 등 다양하지만 연출과 인맥을 통한 대인 접촉이 제일 많고, 가장 효과적이다.



친구와 동료, 선후배 등의 채널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적 접촉을 통한 '포교' 활동은 쉽지는 않다. '저 사람이 중학교만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실 '이 나이에 학교는 가서 무얼하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하는 반응을 듣기 일쑤다.

이러한 사정은 여성의 경우 더 심하다. 번듯한 바깥 양반의 안사람으로 누구나 다 고교를 졸업한 줄 아는데 본인은 시댁과 주변사람 몰래 방통고에 다닌다는 여학생이 매우 많다. 평일날 자학자습하다가 이웃 친구나 시댁 식구가 불쑥 찾아오기라도 하면 여간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1, 2학년 기간에는 벽장이나 장농안에 방통고 교과서를 신주단지 모시듯 보관한다. 이 정도는 행복할 수도 있다. 어린 아이들이 있어 돌봐줄 사람 없는데 출석수업 받으러 학교에 갈 때는 가슴이 매우 아프다고 한다. 실제로 어린 아이들에게 가스볼 잠그는 방법이나 라면 끓이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는 주부 학생들이 매우 많다. 그래도 불안하면 아예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와서 교무실에 놓고 공부하러 교실에 들어간다고 한다.

방통고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치료'의 과정과 같다. 아픈 부위를 진단하고 쓰다듬으며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들과 그 방법중 최상의, 아니면 차선의 치료 방법을 권유하고, 환자의 주문에 따라 성심성의껏 치

료한다. 그러면 그 환자는 곧 쾌유된다. 일상으로 돌아가 보통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아니, 오히려 쾌유된 환자들은 자기와 같은 증상으로 집에서 앓고 있는 다른 환자에게 자기가 치료받은 것을 토대로 치료 방법과 절차, 치료 결과들을 이야기해 준다. 앓아 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 한 교실에서 배움을 같이 나누는 3대의 사람들,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 등등 너무나도 이질적인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 학교에 오면 누가 교사인지, 누가 학생인지 구분이 안되며, 학생들 간에도 몇 학년인지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이 학교는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학년마다 색깔을 달린한 명찰 달기 운동을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줌마', '아저씨'하다가 '형'으로 호칭이 바뀌기도 한다.

서로 만나는 기회가 적고 정이 그리워서인지 수업이 끝나도 집에 가지 않고 교실 안에 옹기종기 모여 정담을 나누고 서로 격려를 하면서 정붙이기를 한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학생들은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교무실 책상 위에 음료수를 빠짐없이 갖다 놓는 등 조그만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여간 흐뭇해 하는 것이 아니다.

천안중앙고 부설 방통고도 몇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가장 커다란 문제로 교도소 재소자 학생지도의 어려움이다. 재소자 학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학



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교도 소까지의 출장강의는 그렇다치고, 한명의 학생이라도 배울 의지가 있는 학생이 있다면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교사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접해 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한다. 서너개의 쇠창살을 통과하면서 느끼는 위압감, 더운 여름날 옷통 벗고 강의듣는 학생들의 몸 전체에 수놓아져 있는 문신들, 강의하기 이전에 눈싸움부터 해야하는 점, 그밖에 글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한다. 무엇보다 더 큰 어려운 점은 방통고 후원회로 조성된 비용을 재소자 학생들을 위한 강의와 지도에 일부 반영함으로 인하여 혜택이 돌아가야 할 본교 방통고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 재소자 학생만큼의 후원회비에 상응하는 부분을 법무부가 별도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도소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특수지 근무로 간주하여 별도의 승진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인다.

천안중앙고 부설 방통고는 학생들의 중도 탈락 방지도도 부심하고 있다. '95년 학교 통계에 의하면 1학년중 27.4%가 중도 탈락했고, 2학년은 19.1%가, 3학년은 8.3%가 중도 탈락했다고 한다. 중도 탈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학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학교 운영을 과도하게 학력위주로 한다



는 점, 학생 출결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점, 학생들의 학습공백기가 너무 길어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점, 가정생활이 복잡하다는 점, 일요일에도 공장이나 기업체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부족하다는 점 등등이 그것이다. 원인이 복잡하고 다중적이면 그 처방도 간단치 않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출결사항을 엄격히 하고, 출석수업 전날이면 교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학생들에게 내일은 '주일날(수업일)'이니 꼭 학교에 오라고 격려를 하고 학생들 상호간에 전화연결망을 만들어 서로 독려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활용해왔다. 이 학교의 '95년 학년별 중도 탈락의 양상을 보면 짐작하겠지만 중도 탈락은 대개 1학년 초기에 대거 발생한다. 따라서 신입생 초기에 학생들이 학교와 동료와 교사들에게 정을 붙일 수 있고, 정의적 측면에서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㉞



# 아름다운 지역 전통 문화

주 강 현



**서울** 같은 도심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실감이 덜 가겠지만, 지방으로 가면 교육의 지역성을 심각하게 다져보아야 할 것이다. 도 대체 교육에서의 지역성이란 무엇일까. 아무래도 본인의 전공분야인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나름의 전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시계바늘을 조금 돌려서 전통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당시의 문화는 거개가 지역문화였음을 실감할 수 있다. 교통이 불편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전통문화의 실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권에 토대를 두었다.

남사당패나 사당패, 솟대쟁이패 등 유랑예인집단이 각지를 떠돌며 연행을 팔았고, 관에서 주도하는 상부문화구조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향유한 문화는 지역적 현실과 처지에 부합되게끔 변화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일제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지역전통 문화라는 개념은 약화, 소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 바로 지역문화의 주체인 지역민들의 문화생산력이 극도로 약화된 탓이다.

사회의 제영역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한, 문화라고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대중매체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 일괄 ‘공급되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흉내내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별다르게 뾰족한 대안 없이 지역문화

의 활성화만을 부르짖는다고 일거에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체가 잘 정착된 나라일수록 문화의 지역적 주체성이 강하게 살아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어차피 지역적 차이를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문화개념이 일반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역 자생의 문화를 찾는 노력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지역적인 문화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문화이다’는 주장이 가능하듯이 ‘가장 지역적인 문화야말로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이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전통문화들의 거개가 지역적 삶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가령, 김치는 한국인이 발명한 매우 뛰어난 발효



식품으로 전국 어디서고 김치를 먹는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의 김치맛이 획일적으로 같다면야 매우 무미건조한 식생활이 되었을 것이다. 바로 각각의 지역적 현실 속에서 것갈을 주재료로 한 김치도 나오고, 백김치도 나와서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김치는 똑같은 김치되 맛은 모두 다른 김치로 되어 있으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국의 김치라는 점에서는 전국의 김치문화가 한가지로 통일되는 것이다.

새삼스레 지방화 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지역 전통 문화라는 과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그 전에도 이러한 문제 제기는 수없이 있어 왔다. 문제는 각 지역에서의 지역 문화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문화주체들이 약했다는 점이다.

가령, 오늘날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지역문화제라는 현장을 찾아가 보면 어디서나 으레 끼어드는 레퍼토리를 늘어놓기 식의 구색맞추기 문화제가 대중을 이룬다. 민속놀이 경연대회라는 장치를 통하여 발굴된 지역전통문화가 다수 있지만, 바로 그 지역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란 좀처럼 보기 힘들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전래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통문화들이 중심을 이루면서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이입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곳도 있으나, 기실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도래와 더불어 전통문화 분야에서 당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지역 고유의 성격'을 지닌 문화를 옹기 세워나가는 일이다. 이 점은 '지역의 유구한 전통에서 비롯된 민족 문화적 형식'을 기초로 해서 '지역적 삶의 현실을 그리는 내용'을 결합한다는 대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제주도 사람들이 전통문화 분야에서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제주도 전래의 생활과 풍습에 기초를 둔 문화를 세워나가면서 이를 전승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이에 기초하여 제주도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창작을 생산해 내려는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전통 문화를 옹기 세우는 노력은 여전히 긴급을 요하는 과제인지도 모른다.

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 다시 복원시킨 많은 전통문화들 조차, 소멸 변질을 거듭하고 있다는 저간의 판단에서 비롯된다.

급격한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전래의 전통문화들 역시 급격한 변화의 물줄기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30년만에 살아난 '풀뿌리민주주의'니 하는 말들이 많이 오가는 처지에 '풀뿌리 민족 문화 유산'을 지켜 내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지역단위에서 지역의 전통문화유산들을 정리하고 지표를 만드는 노력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행히 중앙의 문화기관들이나 지역 소재의 대학연구기관, 각 군단위 문화체계가 잘 결합하여 다양한 민족문화유산 지표조사보고가 다수 나오고 있는 좋은 사례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지표조사들이 충분한 양은 못된다. 현재 이 시점에서 많은 지역의 민족문화유산들이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소멸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들도 그대로 활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통문화의 중심축을 세우는 노력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결실은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살아오면서 현실의 자기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열성적인 노력이 담보되어 지역사회로 환원됨을 원칙으로 한다.

가령 서해안 일대에서 대대적인 간척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 전통문화의 소멸이라는 결과도 낳고 있다. 좁은 국토에서 땅을 넓히기 위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바다가 물으로 되는 현실 속에서 그나마 좋은 어업민속들을 지녀왔던 마을들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칠산 어장의 위도 띄벳놀이 현장을 방문해보면 고기가 잘 안잡혀서 큰 배들이 떠나버린 관계로 근근히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어버린 현실을 마주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는 그간 향토축제라는 이름으로 각 도에서 한개 지역씩 표본으로 설정하여 보존육성을 하여왔던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지방자치화에 따른 새로운 주체들이 해야될 의무가 생긴 것이다. 바로 자기 지역의 삶과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주인이 되어 각 지



역마다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지니는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계승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한 면에서 '지방화시대'는 전통문화분야에서도 지역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음을 보여준다.

서울 같은 대도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서울 천도 600주년을 넘겼지만 어디에 내세울 만한 서울지역 특유의 문화유산이 곳곳에 다수 남아있는 가를 살펴보자. 향토축제로 지정된 남이장군대제 등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충분하다는 답변은 나오질 않는다. 이 점은 일본의 경우 대도시에도 여전히 움직이는 전통 축제와 대비된다. 일본인들이야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타 민족의 문화를 파괴하는 데는 일익을 담당했지만 자기들 문화유산만은 잘 간직하려는 전통적인 관점이 강한 민족이다. 따라서 우리 같이 많은 전란과 외세의 침입으로 어려운 처지를 겪은 나라에 있어서는 그들보다도 몇배 어려운 고통을 거쳐야만 겨우 온당하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옹기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현재 각 지역에 마을단위로 남아있는 마을의 전통 문화들 중에서 여전히 많은 잠재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령 현재도 전국 어디시고 마을굿은 다수 실제하고 있고,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장승, 솟대, 당산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복합문화체와 마을풍물패의 존재는 현재 전국에 걸쳐 가장 많이 살아있는 전통문화유산일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지역전통문화에 주는 의미도 지역의 산적된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매우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바로 이러한 '주목받지 못한' 지역문화자산도 잘 이해하여 문화적 자생력을 세우는데 일조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지방자치의 승패는 비단 정치와 경제에서의 영역만이 아니라 문화에 있어서도 지역문화를 옹기 세우려는 노력에 주어진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지역문화 중에서 전통문화만이 지역문화의 모든 중심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혀 자기 지역의 특색있는 전통문화가 맥을 못췌 채, 전국의 획일적인 문화를 가져다가 동어반복

하는 지역문화를 무언가 '뿌리 없는 문화' 라고 단언을 내릴수 있는 탓이다.

이쯤 써두고 보면 전국의 교육현장에 퍼져있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막중함을 느낄 수 있다. 불과 한달여 전의 일이다. 국립민족박물관에서 발간한 '한국의 제당'이란 책이 발간되었다. 약 30여년전에 교사들이 수집한 민속자료의 1차본 출간이다. 새마을 운동 직전에 전국의 교사들에게 의뢰하여 마을제당을 조사하게 하고 사진을 찍게하여 수집된 자료들이 비로서 햇빛을 보게된 것이다. 과연 30여년 전에 산간벽지에 대학을 나온 '인텔리'가 바로 교사들 자신이 아니었던가. 그들의 손에 의하여 훗날 민족생활의 모습을 증언해줄 보고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지역에 있는 교사들의 힘은 막중한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교사들에 의하여 마을에 흩어진 채로 방치된 민속유물들이 하나씩 수집되어 학교에서 전시된다면 교육적 효과가 대단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수집된 유물들은 언젠가 제 값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지방화시대에 전통문화의 현주소와 교사들의 역할에 대하여 곰곰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주강현

- 경희대학교 국문과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 박사)
- 대학강사, 신문칼럼니스트
- 「굿의 사회사」
- 「북한 민속학사」 외



# 고등학교 국어,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 상세화 및 평가기준 개발연구

최 성 옥(본원 학교발전연구본부 연구원)

\* 이 글은 허경철, 이인제, 백순근, 김수환, 최성옥, 박경미, 이성영, 손영애, 김창환이 연구한 연구보고서(RR 95-23)를 요약한 것임.

## 1. 서 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국어' 과목과 중학교 '수학' 과목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상세화 하고 이에 따른 절대평가 기준을 개발,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이미 지난 '93년도에 6차 교육과정에 의거, 고등학교 '공통과학'과 '공통수학', '94년에 고등학교 '공통영어'와 '공통사회'의 교육과정 상세화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국어'와 중학교 '수학' 두 과목의 교육과정 상세화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 동안의 연구에서 다소간 진전을 보

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평가 기준의 개발을 시도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언급된 교육목표를 더욱 상세화하는 한편,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성취기준에 의한 절대평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원이 수행한 선행의 연구들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96년부터 학교 현장에 새롭게 도입하게 되는 종합생활기록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는 (1)교육과정 상세화 이론 및 실태 분석, (2)절대평가의 이론적 쟁점 및 실태 분석을 다루고, 제 2부는 고등학교 '국어' 과목의 교육과

정 상세화 및 성취수준의 등급화 방안을 제시한다. 제 3부에서는 중학교 '수학' 과목의 교육과정 상세화 및 성취수준의 등급화 방안을 예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2.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과정 상세화 방식 모형 제시 및 국내외 실태

교육과정을 상세화한다는 말은 이제까지 그것은 주로 교육목표의 세분화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렇지만, 교육내용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방식이나 교육방법 내지는 교육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목표중심의 상세



화는 실상 목표행동의 상세화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절차화된 형식을 따랐고 교육과정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내용중심의 상세화는 지식의 체계적 명료화를 내세워 교육과정의 의미를 다시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한편, 방법내지 활동중심의 상세화는 교수방법의 다양화나 교수-학습활동의 계열화를 강조하고 있어 또 하나의 대안적인 교육과정 상세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상세화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교육과정을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인가 하는 판단은 근본적으로 '교육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이른바 교육관에 달린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 중 어느 한 가지를 가장 유망한 유형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세 가지 방식이 지닌 그 나름의 특징을 살리는 방향에서 병렬적인 모형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병렬식 모형이란 세 가지 유형의 특징을 적당히 혼합한 절충형과는 구분된다.

병렬적 모형을 제안한 이유는 단일유형의 상세화 방식을

고집할 절대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유형을 제안함으로써 교육과정 상세화의 선택폭을 넓히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교육을 둘러싼 여건을 두루 감안하여 그에 적합한 상세화 방식을 취하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을 진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상세화의 구체적인 작업이 현장교육과의 접목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중심의 상세화 방식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핵심으로 하는 6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앞두고 '교육내용의 지역화'라든가 '운영방식의 지역화' 등 새로운 움직임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외의 사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지나치게 한 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개선,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상 생략한다.

#### 나. 절대기준 평가모형 정립 및 국내외 실태

우리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평가의 방식은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객관적이면서도 타당한 성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등급화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의 쉬움과 어려움, 또는 집단의 특성이나 능력분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절대평가라고 할 수 없다. 동시에 학생 개인의 교수-학습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에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각 교과목별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에 따른 절대평가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각 교과의 학년별 내용영역을 약 10개 정도의 소영역으로 나누고, 각 소영역의 성취도를 3등급(상, 중, 하)으로 등급화하기 위한 기준을 작성한다. 예컨대, '학

등급은 각 소단원에서 해당 학년이면 누구든지 성취해야 할 필수적인 성취기준에 해당하고, '중' 등급은 정상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보통 수준의 성취기준이며, '상' 등급은 보다 심화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서만 성취하리라 기대되는 고급수준의 성취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등급에 대한 성취기준을 객관적으로 재점 가능하도록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을 근거로 하여, 1학기 말에 각 교과별 성취수준을 등급화한다. 이때는 1학기 동안 배운 소영역에서 어떠한 등급을 받았느냐에 근거하여 현행의 "수, 우, 미, 양, 가"식 5단계로 등급화한다. 예컨대 어떤 교과에

서 1학기 동안 배운 소영역이 5분야이고 각 소영역의 성취도를 3단계(상, 중, 하)로 나누었다고 하자. 이 때 각 소영역에서 "상"을 받으면 2점, "중"을 받으면 1점, "하"를 받으면 0점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이 교과에서 받을 수 있는 최하점은 0점이고 최고점은 10점으로 11등급(0점에서 10점까지)이 된다. 이를 다시 10점과 9점을 받으면 "수", 8점과 7점을 받으면 "우", 6점, 5점, 4점을 받으면 "미", 3과 2점을 받으면 "양", 1점과 0점을 받으면 "가"로 재구성할 수 있다. 2학기 말에도 1학기과 같이 2학기의 성취수준을 5단계로 등급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교과목별로 산정된 1학기의 성적과 2학기의 성적을 고려해서 각 교과목별 매 학년 성적을

5단계(수, 우, 미, 양, 가)로 등급화한다. 각 학교급(초, 중, 고)을 졸업할 때는 상급 학교의 진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교과목별로 각 학년의 성적을 고려해서 15단계로 등급화한다. 각 교과목별로 15단계로 등급화하는 방법은 각 학기별 성취수준을 점수화하여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예컨대 고등학교의 경우 어떤 교과의 학기별 성적이 "수"면 4점, "우"면 3점, "미"면 2점, "양"이면 1점, "가"면 0점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1, 2, 3학년 총 6학기 전체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4점이며, 이 점수를 근거로 하여 15등급으로 재조직하면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소단원1 (3등급)	소단원2..... (3등급)	학기말..... (5등급)	학년별..... (5등급)	학교급별 (15등급)
상	상	수	수	1
		우	우	2
중	중	미	미	.
		양	양	.
하	하	가	가	14
				15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에 의한 절대평가의 절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 교과목별 등급화의 상대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학습내용 및 성취수준을 문장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또 가능한 한 그것의 위계적인 등급을 구성함으로써 성취기준에 의한 절대평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등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개별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수준과 장 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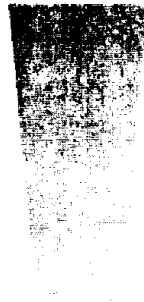
이상에서 제시한 절대평가 방식을 따를 때 학생 개개인의 강·약점을 파악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 적절한 교육적인 처방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차나 교육환경의 차이 등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상호 비교가 가능한 성적평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고등학교 '국어'과의 교육과정 상세화 및 성취수준의 등급화 방안

여기서는 국내외의 교육과정 상세화 모형(또는 체계)에 대



지도 방안으로는 각 영역별로 일반적인 지도 방법을 먼저 제시하고, 상세화한 내용 중에서 국어 교육의 특성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선정하여 그 지도 방안을 구안, 예시하였다.



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6차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상세화 체계(안)를 마련하였다. 국어 과목의 지도 내용은 크게 지식, 기능, 태도 및 습관의 네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체계에 따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영역의 지도 내용을 각각 상세화하였다. 각 영역별 지도 내용의 항목은 그 성격에 따라 본질, 원리 및 실제, 태도 및 습관 요인으로 일차 분류하고, 각 항목별로 주요 학습요소를 추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각 항목의 내용을 상세화하였다. 상세화한 내용은 내용분류의 체계에 따라 일차 배열하고, 동일 성격의 학습 요소들은 위계에 따라 재배열하였다.

지도 방안으로는 각 영역별로 일반적인 지도 방법을 먼저 제시하고, 상세화한 내용 중에서 국어 교육의 특성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선정하여 그 지도 방안을 구안, 예시하였다. 또한 영역별 지도 내용을 학습하고 난 뒤에 학생들이 도달한 성취 수준을 판단하는 데 적합한 평가 방법 예시 평가 문항을 개발, 예시하였

다. 평가 방안은 지도 방안과 마찬가지로 영역별로 일반적인 평가 방법을 먼저 제시하고, 국어 교육의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데 적합한 지도 내용을 선정한 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영역별로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교사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데 길잡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끝으로, 국어 과목의 학업 성취 수준을 등급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국어 과목의 학력 수준은 국어 과목의 영역별 성취 수준의 총화라는 관점에서 단원별 또는 학년 학기별 성취 수준의 개념보다는 영역별 성취 수준을 등급화하였다. 영역별 성취 수준의 등급화는 3단계로 하여 제시하였다.

#### 라. 중학교 '수학'과의 교육과정 상세화 및 성취수준의 등급화 방안

이 부분의 연구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수학 교육과정 상세화 관련 모형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의거하여 지식, 기능, 문제해결, 태도에 의한

상세화 모형을 정립하였다. 지식은 수학의 용어, 개념, 법칙의 회상 및 이해; 수학적 개념에 대한 예와 반례의 제시와 확인; 수학적 개념의 여러 가지 수리적 (기호, 식, 도형, 표, 그래프) 표현; 수학적 개념들 사이의 비교 및 관련성 파악 등의 네 가지를 포함한다. 기능에는 올바른 해결 절차의 선정; 해결 절차의 수행 능력; 해결 절차가 적절한지에 대한 인식 및 정당화의 세 가지가 포함된다. 문제해결은 문제의 인식과 형식화; 다양한 전략을 이용한 문제의 해결; 풀이의 타당성 입증; 귀납과 유추에 의한 수학의 법칙성 발견; 연역적 추론에 의한 논증의 전개 등의 다섯 가지를 포괄한다. 태도는 수학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과 흥미가 있는지, 수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문제해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수학의 유용성에 대하여는 정도 가치 인식을 하고 있는지 등의 네 가지 항목을 포괄한다.

둘째, 상세화의 모형을 틀로 하여 중학교 1, 2, 3학년의 수학 교육과정을 상세화하였다.

상세화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내용의 소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태도 영역에 대해서는 소영역 단위로 기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중영역 차원에서 기술하였다.

셋째, 중학교 3개 학년 수학의 평가 기준 및 그 예시 문항을 개발하였다. 평가 기준 연구에서는, 현 상황으로는 다소 요원한 절대평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학교 1, 2, 3학년 수학의 각 중영역에 대하여 3수준의 등급을 설정하고, 각 수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서술하였다. 또한 하나의 수준 내에서도 그 내용을 구현할 수 있는 문제가 다양하여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가 기준과 더불어 각 수준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예시 문항을 제시하였다. ●



# 국민 학교 교수·학습공간 재편성 모형 개발

박 재 윤

※ 이 글은 박재윤, 류호섭이 연구한 연구보고서 (RR 95-9)를 요약한 것임.

## 1. 서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95년 연구과제로, '국민학교 교수 학습 공간 재편성 모형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국민학교의 교수 학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 추세와 이에 따른 요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공간구성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이며 공간 모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 제시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획일적 교수 학습을 벗어나기 위해 최근 국민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수업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한편, 정보화 사회의 커다란 변화에 발맞추어 컴퓨터와 기타 각종 첨단 기술을 수업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이 추세가 구체

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며 그러한 교수 학습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업 여건과 설비, 공간 등 물적 여건이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종래의 획일적인 수업 방식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크게 보아 학생 개인의 능력과 성격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열린 교육'과, 정보 기술을 효과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며 통신 기술을 도입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양질의 수업을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열린 교육의 개념은 여러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동과 학습, 그리고 지식을 보는 새로운 관점에서 개방성, 자유, 책임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라고 하겠다. 획일적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하여 열린 교육은 하나의 내안적 관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알맞게 대응하는 공간의 구성과 설비가 필수적인 것이다.

정보화에 대응한 수업의 개선은, 컴퓨터의 활용 증가와 통신 기술의 도입으로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학습 집단이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는 이른바 텔레클래스룸 (teleclassroom),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과 통신 기술의 결합 형태인 텔레-CAI 등의 기법과 전화,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 방송 등을 교수 학습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컴퓨터를 국민학교에서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론도 있으나 이 시점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업에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며, 컴퓨터 활용은

앞으로 급속하게 증가될 전망이다. 학교 교수 학습 활동도 정보사회 추세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불가피한 과정이라 하겠다. 컴퓨터나 정보 기술의 활용은 교사가 수업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적인 사용과 관리가 수반되며 이에 따라 종래의 교수 학습 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모형의 공간 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 연구는 '국민학교 교수 학습 공간'을 교수 활동과 학습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그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교수 활동과 학습 활동, 공간의 개념 등을 분석하였다. 학교에서의 교수 학습 공간은 교사의 활동과 학생의 활동 그리고 이것을 위한 기기와 자재 등에 의해서 구상되게 된다. 따라서 교수 학습 공간의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수 학습 공간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교수 학습 활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열린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그리고 기타 컴퓨터 등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학교 등 시범적 교수 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학교들을 선정하여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당해 학교 교사들과 협력 연구 활동을 통하여 공간 실태를 파악하여 공간 구성 방안 수립에 참고하였다.

## 2. 열린 교육을 위한 공간의 조건

열린 교육에 대응한 국민학교의 교수·학습 공간은 기존의 일제 수업 방법과 아울러 여러 다양한 교육 방법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적으로나 건축적으로나 여러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목적 공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필요한 조건을 열거하면, ① 공간의 융통성 ② 공간의 연속성 ③ 동적 활동의 공간 ④ 학습 집단의 규모(영역감)에 대응하는 공간 ⑤ 보다 충실한 실내 환경 계획 등이다. 한편, 다목적 공간은 ① 보통 교실과 완전히 대면할 것 ② 보통 교실과 시각적인 연속성이 있는 구성으로 할 것 (경우에 따라서는 가동 칸막이

의 사용도 필요함) ③ 다목적 공간의 면적은 학급이 아닌 학년에 대응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할 것 ④ 각 학년마다의 다목적 공간은 반드시 설치하며, 복수 학년의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도 설치 ⑤ 다중·다양한 학교용 교구의 준비와 여러 코너를 설치할 것(바닥재로 카페트의 사용을 고려할 것) 등이 충족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열린 교육에 대응한 교수·학습공간의 유형과 활용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학년 대응의 다목적 스페이스

- 1) 커다란 공간에 여러 코너가 설치된 홀 타입(보통 교실과 일체형)

커다란 대공간에 여러 코너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여러 코너를 순회하면서 학습 활동을 진행하게 하는 타입이다. 따라서 학습 활동이나 학습 방법, 학습 집단에 따라 특별 교실의 기능을 포함한 여러 종류나 크기의 코너의 설치가 필요하며, 각 코너는 이동식 칸막이나 교구 등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의 학교나 소인수의 학급에서 현실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유리한 면이 있어, 소규모 학교의 새로운 교수, 학습 공간의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학년의 다목적 스페이스로서 생각할 수 있다.

2) 현재의 교실+다목적 스페이스(교실과 복도 사이의 벽을 없앴)

① 다목적 스페이스의 폭을 4.5 m 정도로 하는 것: 현재의 학생수 조건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이다. 현재 고양시의 성저국민학교와 교동(계획도면)국민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상태이므로 학년 단위의 학습 활동보다는 각 학급 단위의 활동 위주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교사에서 열린 교육을 전개하는데 있어 집단 형성이나 그에 따른 코너 설정에는 훨씬 자유로움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교구 배치가 상당히 제한되며 따라서 코너의 종류에 따라서는 학년 공유의 코너를 설치해야 할 경우도 있다. 교구가 많이 배치되면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시에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체 학생들의 러그 미팅이나 집단 활동에 자장을 초래

하기 쉽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학급당 인원수가 30명 이내인 경우와 학급 규모가 비교적 적은 학교에서는 적극 고려해 볼지도 하다.

② 다목적 스페이스의 폭을 교실 폭의 1배 정도로 하는 것: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이며, 통합 교과나 주제에 따라서 학년 단위의 학습 활동을 비롯하여 개별 활동이나 학급 단위의 여러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여러 다양한 교구의 설치와 이하에 언급되는 여러 코너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이동이나 러그미팅 등의 면적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학년당 3학급 정도까지가 바람직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분절하여 계획하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다. 현재의 상명 국민학교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실제로 열린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이 타입에 대한 요구가 크다.

여기에서는 두가지 타입으로 분류했지만, 교실과 다목적 스페이스의 대면 상태에 따라 다시 세분화 될 수 있다. 즉 각 교실과 다목적 스페이스가 전부 대면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대면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다목적 스

페이스가 모든 교실과 면적이거나 위치 조건이 균등한 경우에는 각 학급이 또는 학년별로 열린 교육을 전개하기 쉬운 조건이 되며, 그렇지 않고 일부 교실에만 다목적 스페이스가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시일의 경과에 따라서는 불균등한 공간 조건으로 인해 열린 교육의 전개나 다목적 스페이스의 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쉽다.

3) 학년별 다목적 스페이스 (교실과 분리)

기존 교사의 형태에 각 학년이 이용할 다목적 스페이스를 설치하는 것인데, 설치시에는 해당 학년의 교실과 최대한도로 연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학습 활동에의 활용보다는 특별활동이나 생활 활동만 이용되기 쉬운 면도 내포하고 있다. 이 타입은 신축시에는 부지 형태나 조건에 따라서는 앞서 언급한 유형보다 대응하기 쉬운 면이 있으며, 아울러 기존 교사의 증축시에 바람직하다.

나) 다(복수)학년 대응의 다목적 스페이스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이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 스페이스이다. 이 다목적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각 학년별로의 다목적 스페이스가 충족되어 있는 상태에서 2개 학년 이상의 복수 학년이나 학교 전체로의 무학년제의 개별화 학습, 예를 들면 단계별 학습이 가능한 단원이나 교과를 택하여 단계별 코너를 설치하여, 학생은 자신의 단계에 맞는 학습지 코너에서 개별 학습을 진행해 가는 학습 등을 하고자 할 때 유용한 활용이 예상되는 스페이스이다. 공간의 규모가 크므로 우천시의 체육 행사나 학교 전체의 급식실로서도 활용 가능하며 학예회나 연극 등의 활동과 기타 학교행사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 전체의 미디어 센터로서의 기능도 부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스페이스는 학교의 중심에 위치하고, 또한 각 학년별의 다목적 스페이스와 연결되어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컴퓨터 활용을 위한 공간 조건

교수 학습 활동에서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① 컴퓨터 실의 충실화 ② 보통 교실, 특별 교실에서 컴퓨터의 활용 설비 확충 ③ 시청각교실, 도서실, 학습 자료실, 교재 연구실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컴퓨터를 컴퓨터 실에서만 이용하는 개념보다는 특정 교과의 특정 시간에 특정 학급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수 학습 활동에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자료 검색과 활용에도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종래의 컴퓨터 실 설치에서 더 나아가 보통 교실, 특별 교실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청각교실은 종래 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거나 멀티미디어의 활용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현재 국민학교에서 필수 시설로 되어 있지 않은 도서실은 필수시설화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자료의

검색 기능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학습 자료실은 도서실과 시청각교실에서 학습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적당한 수량의 컴퓨터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확보한다. 교사들이 이용하는 교재 연구실에서는 컴퓨터 활용을 위한 각종 매뉴얼과 교사 수에 따른 적당한 수량의 컴퓨터 및 다른 학교와의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통신망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를 교수 학습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① 교수 활동과 학습 활동이 우선 고려되고 이에 따라 컴퓨터의 활용 방안이 수립 시행되어야 하고, ② 교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수업 활용 가능성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양질의 연수가 요구된다. ③ 학생과 교사 등 사용자들의 안전과 보건 위생적 측면에서의 충분한 고려 등이 중요하다.

컴퓨터 교실도 현재와 같이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컴퓨터를 설치하여 통행의 불편이나 수업의 애로를 초래하면

안될 것이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설비도 구비해야 할 것이며 휴식을 위한 공간, 자료 보관을 위한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 4. 원격 수업을 위한 공간

원격 수업은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 교수 학습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재정, 사회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새로운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될 전망이기 때문에 적절한 설비 투자와 교사들의 이해와 참여만 보장된다면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원격 수업은 원격 수업을 주관하는 중심 학교와 이를 수신하는 분교의 교수 학습 활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종전의 한 교실 내의 공간 개념과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 개념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원격수업실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공간이 필요하고 수업을 위한 준비실, 자료제작실, 통신 및 제어 공간 기타 다양한 기기의 설치와 이를 위한 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원격 수업은 종래와 같이 방송의 송수신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매체의 교환이 요구되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것이 전망되는 만큼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망으로 발전되어 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와 같이 원격수업실과 방송 장비 이외에 멀티미디어의 제작과 보관을 위한 공간, 각종 텔레커뮤니케이션 망의 활용을 위한 설비와 공간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 5. 새로운 정보 기술과 설비 공간

현재 새로운 정보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대학 및 사회교육뿐만 아니라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도 이러한 신기술을 교수 학습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새로운 정보 기술은 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간적 제한을 넘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정보의 획득 자체가 곧 학습은 아니라고 하여 지나친 정보 검색과 획득에 치우친 경향에

대하여 비판도 하고 있으나, 어쨌든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충분조건은 아니라 해도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다.

새로운 정보 기술을 국민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교사들의 교수 활동을 위해 유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의 교재 연구실이나 교무실의 교사 공간에는 새로운 정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각종 통신 설비와 컴퓨터 등 기본 설비가 비치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적절한 공간의 확보가 요망된다. 아울러 도서실과 컴퓨터 실, 시청각교실 등에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신과 정보검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갖추어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정보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간단한 활용을 가능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이나 컴퓨터실, 시청각 교실에는 추가설비가 필요하다. ●



# 월반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네 교육제도



김 경 애 (성남 서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은 백년대제라 했던가?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예전이나 순수한 학부형의 신분이 된 지금이나 우리네 교육정책에 대한 그 변화 무쌍함에 늘 초조함과 답답함을 느낀다. 새로 입학한 아이들을 주기로 무수한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던 교육정책으로 해서 일선의 교사나 학부모들은 허둥대며 뒤따르기에 바빴고,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에 이끌려 강박 관념 속에 자중과 불만이 쌓여 온 것도 사실이다.

모든것이 발전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한 형제들 사이에서조차도 〇〇세대, 〇〇세대로 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색다른 등급이 나누어질 정도로 주기가 짧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또다른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속진제'라는 제도가 발표되었다. '속진제'로는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우리 교육 환경의 여건상 학교 교육의 연수를 단축시키는 학년별 속진일 것이다. 물론 우수한 학생이나 영재아들을 평범한 학생들 속에서 가려내어 좀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빠른 시간에 받도록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그 후에 야기될 많

은 난제들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첫째, 대상의 선별 방법으로는 시험을 치르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교육열을 부추겨 또다른 형태의 시험제도에 대비한 특수 과외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둘째, 또래들끼리 어울려 자연스레 익혀야 할 사회성과 인성교육의 결여다. 그것도 가장 기초적인 사회의 적응력을 배우는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속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영재라해서 모든 분야에 뛰어날 수는 없다. 어휘력과 언어능력이 뛰어난 사람, 과학 분야에 뛰어난 사람, 예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등 특출한 분야가 각기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외고, 과학고, 예술고등 특수 목적고가 있지 않은가?

헌데 굳이 기초 교과 과정을 1년, 2년 앞당긴들 무슨 큰 의미가 있으랴. 진정 속진제가 필요한 제도라면 그 대상은 모든 기초 과정을 끝내고 인성 교육의 완결 단계인 대학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여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속진제 말이다.

무엇보다 일체감을  
느끼도록 해야...



김 일 환 (서울교대부속국민학교 교사)

월반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기초 작업이 시작되었고, 실험 학교도 몇 차례 운영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개념이 상충하고, 교육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미루어지다가 교육 개혁의 차원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월반 제도의 시행 의도를 잘 이해하고 규칙을 순리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한다면 월반제의 부작용은 별로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예기치 않았던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무리하게 운영을 하여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4년 전 교육부 지정 월반제 실험학교 운영에 참가한 적이 있다. 학부모와 아동들에

게 월반제를 이해시키는 한편,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제로 월반을 시키고 그들을 관찰하였다.

월반 아동들은 대체로 무난히 적응을 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 중 하나는 월반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이었다. 정서적 부적응이란 지적 부적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불안정서, 그리고 교실 내에서의 사회적 부적응을 일컫는 말이다.

사실은 월반 대상 아동의 선발 기준에 심신 발달과 건강 상태, 사회적 적응력, 그리고 정서 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사회적 부적응 상태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발 기관에서는 자칫 이러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지능이나 학력 점수처럼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선발 기관에서는 자칫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거나 경시할 우려가 있다. 지적 수준만 높으면 정서적 수준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은 아동도 정서적 적응을 하지 못하면 월반에 실패를 맛보고 만다.

실제로 실험학교 운영에서 우려할 만한 문제가 나타난 적이 있다. 6학년으로 월반한 5학년 아동이 6학년과 동급생 취급을 받지 못하였다. 6학년 어떤 어린이들은 형으로 부르라고 강요하였다. 어떤 어린이는 월반 아동을 끔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이지메와 같은 현상은 없지만, 혹시 월반 아동이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월반은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관찰한 결과를 보면, 학업에 대한 적응은 3개월도 안 되어서 빠르게 나타나지만, 정서에 대한 적응은 그보다 훨씬 느렸다.

## 정서적 적응이 더욱 중요한 월반제



홍 광 식 (서울대길초등학교장)



월반제는 우리 나라 실정에서 손쉽게 영재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과잉 교육열 때문에 월반제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필자가 서울서정국민학교에서 근무하던 때인 1991년부터 1992년까지 2년에 걸쳐 교육부 지정 월반제 실험학교를 맡아 운영한 적이 있다.

그때 월반제에 대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월반제 시행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과반수 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월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았다.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있었다. 자신의 자녀가 월반 대상자에 포함 될 수 있을 것 같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 20%의 학부모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포함될 지 포함되지 않을 지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학부모가 약 40%에 달하여 60%의 학부모들이 월반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월반제도가 시행될 경우, 월반을 시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반수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이다. 여기에 반응한 특별한 노력이란 곧 부모의 직접적인 지도, 혹은 과외 교습을 의미한다.

어떤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월반 대상 아동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 월반 대상 아동은 월반이란 낱말의 의미 그대로, 그냥 한 학년을 뛰어 넘어도 아무 탈이 없는 아동이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그 점을 잘 알아야 한다. 자녀의 월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반후의 학업 적응은 물론, 사회 심리적으로 정서적 적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파해야 한다.

나의 우려가 기우로 끝나야 할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심리검사 기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벌써부터 지능검사에 대한 붐이 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한다. 월반제 지침이 발표된 후, 문의 전화가 갑자기 늘었고, 어떤 학부모는 2~3번 자녀를 데리고 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능검사는 연습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여러 차례 검사를 하다보면 연습이 되어 IQ가 높은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

학교에서는 이런 아동들의 월반을 방지해야 한다. 학부모와 월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는 한편, 월반 기준에 교과 성적 기준을 강화하며, 월반 후 부적응이 있을 때, 즉시 환원 시킬 수 있는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영재아를 학년 제도 때문에 보통 수준에 묶어 두는 것 보다는 월반 시켜 속진 교육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건강한 정신을 갖춘 인간으로 행복하게 자라도록 발달심리적 측면에서 단계적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 속진의 참의미



윤 옹 섭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 ○ 속진제 시행 지침의 작성 의도

평준화 제도 시행과 민주화의 과정에서 평등주의와 기회 균등의 이념의 보편화 추세 속에서 우리 학교 교육은 특수재능 교육이나 우월성 추구를 위한 교육에 민감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 교육체제 속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서 모두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특수재능아의 범재화 현상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시대상황으로 보아 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극심한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수 특수재능아에게도 정당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습절차를 일반 학생과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에는 너무도 가까운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가 조기에 육성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고자 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

## ○ 속진의 방법

이번 시행지침에서는 속진의 여러가지 방식 중에서 주로 학년 속진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학생 선택이 대폭 확대되는 교육과정 운영 방법이 적용되면 교과별 속진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1회,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1회를 허용하여 12년의 과정을 10년에 마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자는 ① 지능이 상위 1% 이내이거나 지능지수가 140 이상인 자 ② 학업성적이 뛰어난 자 ③ 수학, 과학, 외국어, 예·체능 분야의 특수재능아인 자 중 적어도 1가지 이상에 해당되고, 공통사항으로 심신의 발달과 건강상태, 정서의 안정성, 사회적응력,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을 교사가 추천하고 부모와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같은 학년 학생수의 1%를 기준한 범위에서 학생을 선정한다.

지도방법은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도의 학급을 편성해서 특별지도를 하는 형태

는 택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능력별 이동수업을 운영하거나 체계적인 심화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차상급 학년의 학습내용을 자학자습의 형태로 이수토록 한 후 년중 적절한 시기에 조기이수 인정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전 과목에 대한 이수인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같은 학년 전체 학생수의 1% 범위내의 학생수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진급을 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학년도초 약 1개월 남짓 되는 기간동안 부족한 부분의 보충지도를 해줄 수 있어야 하며, 조기진급 후 심한 부적응 현상을 보일 때는 60일 이내에 원래의 학년으로 복귀조치할 수 있으나 조기졸업을 한 학생에게는 복귀의 기회가 없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칙을 보완하여야 하며, 학교내에 이수 인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각종 평가 도구의 개발, 인정기준의 설정, 평가방법 및 시기의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중·고교의 경우는 과목별로 복수의 교사로 이루어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

○ 재능아의 올바른 이해

이 제도의 시행에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중학교 연구주임교사, 고등학교 교감회의를 통하여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특수재능아는 일반적으로 평균이상의 능력, 높은 창의성과 과제 집착력이 있는 학생을 말하고 있음(Renzulli: 1978)을 학부모가 이해해야 한다. 결코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되거나 검사를 자주 받는다곤 해서 IQ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릴때부터 가정을 통해 형성되는 성격,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를 하는 어머니의 역할이며, 학교에서 교사의 관심과 전문성, 그리고 이들의 발전을 위해 사회 전체가 지원해 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 속진제에 대비한 부모의 자세



조 석 희 (본원 영재교육특임본부 책임연구원)



### ○ 속진제에 대비한 부모의 자세

국민학교 3년의 형식이는 대단한 독서광, 컴퓨터 박사, 곤충수집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대단히 똑똑하나, 일단 다른데 관심이 생기면 수업은 엉망인 형식이는 학교의 골치이다. 형식이는 두툼이 채 안되서 혼자서 글자를 읽기 시작했고, 만 세살에는 동화책을 술술 읽을 정도로 능숙해졌다. 숫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 글자를 알아보기 전부터 숫자를 읽기 시작하여 지금은 6학년 수학문제를 재미있게 푼다. 학교성적은 상위에 속하지만 언제나 1등은 아니다. 속진제는 반이나 전학년에서 1등하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조숙하고, 강한 호기심으로 질문이 대단히 많고,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깨우치는 아이들에게도 배울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교육은 장거리 달리기이다. 1년을 속진시키기 위해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집중 훈련을 시키면 장거리 달리는 실패할 것이 뻔하다. 진정한 속진 대상자는 속진을 하기 전이나 후나 충분히 놀고, 잠자고,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속진 자격 평가시, 지능과 학교성적을 고려한다. 학교성적은 과외로 좋아질 수 있어 속진 대비 과외를 생각해 보는 학부모도 있다. 속진자의 평가의 원칙은 다양한 자료를 참고로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빼놓아서 안되는 것은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의 평가다. 이 능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로 쉽게 향상될 수 없다. 복잡한 자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줄 알며, 해결방식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끙끙거리며 찾아낼 수 있는 아이들이 속진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속진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부모는 자녀의 신체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중학교 1학년생 민우 엄마는 고등학교 수학도 척척 풀어대는 이 아이를 속진시켜야 할 것인가 고민이다. 공부를 잘해도 같은 학교 안에서 3학년으로 속진하는 경우, 선생님들께서 속진대상 학생을 도와주지 않는다는데, 3년생들이 후배를 건방지고 공손하지 않게 여기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속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또 민우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아 키가 작다. 중학교 시기는 신체발육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인데, 아직 또래에 비하여 키가 작다면, 차라리 자기 학년에서 여유있게 공부하면서 지적 발달간의 균형을 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속진 학생이 윗학년 반에 가서 “저 꼬마는 누구야?”라는 질문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만약 이런 질문을 받더라도 이를 상담을 통해서 달래주고 공감해줄 교사가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겠지만, 대체로 우리 학교에는 아직 이런 상담을 해 줄 교사가 충분치 않다.

만약 속진 대비 과외를 시킬 생각을 해본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 속진해서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속진할 필요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아이들이 진정한 속진 대상자이다.

○ 속진제의 의미와 방법

을 2학기부터 월반·속진제가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시범연구 학교인 경주 신라중학교에서 월반 학생 5명이 처음으로 나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은 「속진」하면 「월반」을 떠올리지만 속진의 형태는 무려 17가지나 된다. 이들 방법은 그것이 얼마나 급진적이냐에 따라 학년별 속진(월반), 이수과정 압축, 교과별 속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 2학년이 3학년 과정을 배우지 않고 교과로 진학하는 방법이 학년별 속진, 중학 3년 과정을 2년 동안에 모두 배우는 방법이 이수과정 압축, 특정과목만 상급하는 과목별 속진이다. 그런가하면 교과별 속진은 학생에게 가장 부담이 적고 창의성 계발의 여지도 크다. 그러나 교과별 속진은 현행 교육체제로는 학교에서 달라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아직은 실시하기가 어렵다. 학생들이 다양한 수준의 교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교실의 수가 더 많아져야 하며, 교사의 수도 더 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신라중학교는 학년별 속진(월반)방식을 택했고, 횡성의 민족사관고교는 이수 과정 압축 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 과목별 속진은 대학에서의 학점제와 유사하나 현재는 이를 실시하는 학교는 실제로 없다.

여러나라의 학자들은 영재성 계발에 속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2, 3년 정도를 뛰어넘는 급진적인 속진은 위험할 수 있다는 주의를 빠뜨리지 않는다. 사실 일반인들은 학급에서 1, 2등 하는 학생을 속진대상으로 보지만, 오히려 이들은 그다지 속진이 필요하지 않다. 그만큼 속진 학생을 판별하는 작업은 어렵다. 현행 학교 체제라면, 속진이 필요한 학생은 중학 수준에서 이미 학습 부진아가 되어버렸을 가능성이 많다. 국민학교 때부터 학교공부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재라도 현재 학년에서 잘 적응하는 학생에게는 특별히 속진이 필요치 않다. 너무 학습속도가 빨라 현재 학년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충분히 지적 도전감과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 속진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체격, 사회성이 잘 발달해 상급학년, 상급학년이나 학교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학생이어야만 속진이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

속진제는 반드시 심화학습 프로그램과 병행 실시돼야 한다. 이는 속진 대상자의 판별이 더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그들의 창의성을 충분히 계발시켜 주기 위해서다. ㉠

# 협동 학습 구조의 연구 동향

정 문 성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 박사)
-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사회교육연구」(공저), 「사회과에서의 협동학습전략」 외

## 1. 경쟁의 시대는 가고...

“협동의 시대가 오고 있다. 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아를 거쳐 플로리다까지, 호주에서 이스라엘, 영국을 거쳐 노르웨이까지. 교사와 교육행정가들은 학생의 성취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미개척의 천연 자원을 발견하고 있다. 협동 학습의 효과에 관한 본질적인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협동 학습 권위자인 Slavin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협동 학습 운동의 상황을 이렇게 웅변적으로 표현하였다. 협동 학습이 이처럼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협동 학습이 기존의 교수-학습 이론과 실제의 한계에 대한 자각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협동 학습은 다른 교수-학습 이론과는 달리 이론적으로 명료하게 체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교실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강력한 실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실은 경쟁, 개별, 협동의 세 가지 학습 구조 중의 하나이다. 협동 학습은 기존의 경쟁 및 개별 학습의 한계와 그로 인한 교육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유 재산과 자유 경쟁을 원리로 하는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경쟁적인 환경에 적응하고 아동의 경쟁력을 키워 주는 것이 학교의 존재 이유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 학습 구조는 인적 자본의 양성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극소수의 승자를 배출하는 대신에 대다수의 패자를 양산하는 비능률의 표본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학습 구조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데 기준을 두었으므로, 개인의 지적 능력



을 충분히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경쟁 학습 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개별 학습 구조였다. 개별 학습 구조는 아동의 지적 능력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며, 무조건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을 시킬 것이 아니라 아동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잠재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개별적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경쟁 학습 구조 하에서의 대다수 패배자들이 자기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의 능력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별 학습 구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혀 지적 자극이나 교류 없이, 편견으로 가득찬 지식을 가진 사회성이 결여된 극단적 개인주의자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경쟁과 개별 학습 구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성격을 잘못 판단하였다. 즉 우리 사회는 경쟁 위주의 사회가 아니며 더욱이 혼자 사는 사회도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 사회 구성원은 전체 사회 속에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함으로써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간다. Johnson의 말처럼 90%의 협동과 10%의 경쟁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사회이다. 그러므로 학교가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로 나갈 준비를 시켜 주는 곳이라면, 교실은 협동 학습 구조가 채택되어야 했던 것이다.

## 2. 협동 학습 구조 이론의 전개

협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전통적인 생존 방식이었으므로 협동이 학습 활동에 적용된 것도 오래 전의 일이었다. 1700년대에 Lancaster와 Bell이 영국에서 실천적으로 협동 학습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였고, 1806년에는 미국 New York에 Lancaster School이 설립되면서 협동 학습이 미국에 소개되었다. 그 후 20세기 초반 John Dewey와 Parker 등에 의해서 협동 학습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 공립학교에서 경쟁적 수업이 강조되면서 협동 학습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 그 후 Lewin(1948)과 Deutch(1949)등이 구조화된 협동 학습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면서 협동 학습은 다시 관심을 끌게 되었다. Lewin은 1900년대 게스탈트 심리학파의 주장에서 힌트를 얻어 '집단의 본질이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에 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Lewin의 제자였던 Deutch는 1940년 후반 Lewin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협동과 경쟁 이론을 만들어 내었고, 그 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협동 학습 모형이 개발 보급되면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미네소타대학의 Johnson 형제들과 존스 홉킨스 대학의 Slavin 이 이론 및 협동 학습 모형의 개발과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협동 학습의 효과를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동기론과 인지론이다. 목표 구조 이론에 의하면 교실은 공동의 목표가 주어지는 협동, 한명 또는 소수만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주어지는 경쟁, 자신에게만 목표가 주어지는 개별의 세 가지 목표 구조로 나누어진다. 동기론자들은 협동 목표 구조에서는 학생들의 집단 목표 달성이 곧 개인의 목표 달성이므로, 동료들의 학습 활동을 서로 도와 줄 뿐만 아니라 동료에 대해서나 학습 활동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학업 성취 동기를 증진시켜 인지적 효과를 높여 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전통적인 경쟁 목표 구조에서는 경쟁 상대인 동료에 대한 태도나 학습 활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따라서 학업 성취의 동기가 낮기 때문에 협동적 목표 구조에 비하여 학업 성취의 효과가 작다고 주장하였다. (Slavin, 1990) 동기론은 목표 구조의 변화가 학생의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비하여, 인지론은 소집단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그 자체가 인지적 효과를 얻게 한다고 주장한다. 동기론은 크게 인지 발달론(cognitive development theory)과 인지 승화론

(cognitive elaboration theory)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지 발달론은 아동의 지적 능력은 타 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협동 학습은 학습 내용에 대한 합리적 토론, 인지적 갈등의 생성, 높은 수준의 개념 이해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적 발달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Slavin, 1987; 1990) 한편 인지 승화론에서는 지적 능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료를 인지적으로 재조직하거나 정교화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때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협동 학습에서 발생하는 동료간의 교수 활동이 협동 학습의 인지적 효과를 높여 주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Wittrock, 1978; Webb, 1985)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협동 학습이 다소 소개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관심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박성익, 1985; 문용린, 1988; 양낙진, 1990; 이동원, 1990, 1991; 정순례, 1992; 정문성, 1994, 1995, 1996) 재미있는 것은 협동 학습 이론이 소개되기 전에 Jigsaw(현재는 JigsawIII까지 개발되어있다)와 같은 협동 학습 모형들이 먼저 소개되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입시 지옥이라는 전형적인 경쟁 학습 구조가 지배하는 우리 나라의 독특한 교육 상황이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협동 학습 구조가 착상되기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학습 구조가 아니라 단지 학습 모형의 하나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3. 협동 학습 구조의 특징

이처럼 협동 학습 구조의 효과는 동료 간의 토론 및 교수 활동을 통한 긍정적 상호 작용에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여러 명의 학습 정보원을 확보하게 된다. 과거 유일한 정보원이

던 교사만 멍하니 쳐다보는 대신, 다양한 배경의 동료들로부터 다양한 지적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동료들과의 토론이나 교수 활동은 자신들의 언어로 이루어지므로 훨씬 이해가 쉬울 뿐 아니라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고, 구체적 도움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협동 학습 구조는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Slavin, 1989)

첫째, 협동 학습 구조에는 집단 목표(집단 보상)가 주어진다. 그리고 개인의 목표 달성도 각 집단의 공동 목표 달성 여부에 달려 있도록 조직한다. 둘째, 협동 학습 구조에는 집단 구성원 개 개인은 다른 구성원에 대해 개인적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즉 집단 구성원의 개인 성적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적에 반영되거나 과제의 분업을 통해 무임승차 할 수 없도록 조직한다. 셋째, 집단 구성원 개인의 기본적 능력에 관계없이 구성원 누구나 개인의 노력을 통해 집단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넷째, 소집단간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소집단 구성원들의 학습 동기를 촉진시킨다. 다섯째, 소집단 내의 각 구성원들이 과제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모든 학습자들이 협동



우리 사회는 경쟁 위주의 사회가 아니며 더욱이 혼자 사는 사회도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 사회 구성원은 전체 사회 속에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함으로써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간다.

학습에 참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협동 학습의 특징은 협동 학습의 종류에 관계없이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최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런 특징이 많이 반영된 협동 학습 모형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 4. 협동 학습 연구의 쟁점과 전망

협동 학습 연구의 쟁점은 대부분 그 효과에 관한 것이다.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대체로 협동 학습이 경쟁 학습이나 개별 학습, 또는 전통적 일제 학습에 비하여 인지적 정의적으로 더 효과가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Stahl & VanSickle, 1992; Colomb, Chilcoat & Stahl, 1992) 그러나 그러한 협동 학습의 효과가 모든 협동 학습 모형에서 다 나타나지는 않는다. 수업 요인이나 학습자 요인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도 있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의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도 있다.

첫째로 수업 요인에 관한 대표적인 논쟁은 상호 작용의 효과와 보상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인지론자들은 협동 학습의 효과를 학습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찾는다. 특히 동료들간의 교수 활동이나 토론은 교사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쉽게 이해되고 정보의 교환량이 많으며 쉽게 모델링이 되는 등 상호 작용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기론자들은 상호 작용 만으로는 협동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집단보상이나 개별적 책무성등 상호 작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학습 동기가 첨가되어야 협동 학습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동기론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아직 보다 더 엄밀한 실험적 연구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학습자 특성에 관련된 대표적 논쟁은 누가 협동 학습의 혜택을 받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들이 협동 학습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

나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학습 능력이 낮은 학습자가 지적, 정의적 효과를 가장 많이 얻었고, 다음이 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 있는 인지승화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문제는 중간층의 학습자들인데 이에 대해서는 중간층의 학습자들이 다른 학습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았을 뿐 다른 학습 구조에 비해서는 효과가 높다는 주장도 있고, 협동 학습의 사각지대에서 전혀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외의 개인적 변수들이 협동 학습의 효과와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들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셋째로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의 특성에 관한 논쟁으로 협동 학습이 모든 내용 영역, 목표 영역에 대하여 다른 학습 구조보다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다. 예를 들어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교과에서 기능적 지도는 개별 학습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러한 내용 영역에 따른 협동 학습의 효과는 더 많은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 준다.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고급사고와 저급사고에 대한 효과이다. 일반적으로 협동 학습은 소집단 토론 과정에서 많은 정보의 반복으로 단순한 지식을 오래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은 많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협동 학습이 고급사고에도 효과적이나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물론 대부분의 협동 학습 모형이 동료들간의 토론을 주된 학습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모험적 사고, 열면 논쟁의 참여 등을 유발시키고 고급사고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적 주장은 설득력은 있으나 실제 경험적 연구들은 뚜렷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요한 이유는 고급 사고를 엄밀하게 측정하기도 곤란하고 고급 사고가 단기간에 성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실험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초·중등학생들의 수학적 문화 형성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개발 연구

김 수 환



- 서울대 수학교육학과 졸업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학과 졸업  
(교육학 박사)
- 본원 교육과정연구본부 연구원
- 과학고등학교 「수학 III」

본 연구자는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의 개념에 비추어 가치 지향적이고 의도적인 과정으로서의 인본주의적인 '수학교육'을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문화의 구성 요소는 이념적, 사회적, 정서적, 기술적 범주들로 나눌 수 있으며, 도구의 제조와 수단 이용에 관한 기술적 범주의 요소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기술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계류나 장비 뿐 아니라 말과 글을 포함한 수학적 기호 체계가 인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늘날의 수학은 문화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었으며, 여러 사회들에 의해서 오래도록 발전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수학적 문화란 문화의 수학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 민족으로서 한글이라고 하는 자랑스런 우리의 말과 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학적 문화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가 하는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세계 공통의 언어인 수학은 초사회적인 문화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미래 사회에서도 그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학적 문화의 '개방성'보다는 '신비성'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즉, 수학은 전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잘 모른다고 느끼는 교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세계적인 교육과정 개혁 운동의 실현을 위해서는 거시적 관점의 교육과정 개혁도 중요하지만, 교실 현장에서의 미시적 관점의 교수-학습의 개혁이 요망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의 수학 교육과 문화적 활동에 내재한 수학으로서의 민속수학의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수학적 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교수-학습에서의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으로서의 수학 교육에 입각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교수-학습의 방향을 정립한다. 셋째, 학생

들 각자에게 의미 있는 수학적 경험을 제공하여 수학적 힘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넷째, 개발된 교수-학습 모형을 토대로 수학적 활동과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방법을 모색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네 가지 연구문제들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수학적 문화 형성

수학적 문화 형성수학이 개인의 사회 문화적 생활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수학자들의 문화를 전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오랜 인류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수학적 요소인 가치 있는 활동으로서의 수학적 문화를 형성하게 함을 의미한다. 문화적 활동에 내재한 수학으로서의 민속수학을 포함한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수학적 문화 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는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이 요망된다. 수학적 문화의 공통적인 활동으로 구성된 개념 중심의 요소인 셈하기, 위치 잡기, 측정하기, 설계하기, 놀이, 설명하기 등을 기본적인 틀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수학적 문화를 예증할 수 있는 전형적인 탐구 자료들로서의 문화적 요소와 함께 역시 수학적 지식 발달의 전형적인 예제를 구현하는 사회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내용보다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 개념, 탐구, 프로젝트 등을 중요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서양수학이라 할 수 있는 오늘날의 학교수학은 실용적 목표, 도야적 목표, 문화적 목표, 사회적 목표와 같은 4가지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명제의 체계라 할 수 있는 수학적 진리와 사회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잘 정비된

언어 기호(표기) 체계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범세계적인 공통 언어로서의 수학은 물리학, 천문학, 고고학, 예술, 스포츠 등의 여러 가지 분야에 잘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 생활 중에도 잘 이용되고 있다. 이것이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이유이다. 문화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인 동시에 우리 문화의 통합적인 부분인 수학의 발전은 '환경적 요청'이나 '수학 내적 요청'에서 비롯된다. 일상적인 도구로서의 수학적 활동들을 수학 교실에서 대상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교수-학습의 측면에서는 주어진 지식의 전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치 있는 사회 문화적 활동들을 중심으로 한 '수학적 문화 형성'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활동들을 중심으로 수학적 문화를 새롭게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교수-학습의 구성주의적 관점에다 그 구성의 상황을 문화적으로 특수하게 설정해주는 '문화 형성 과정'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대동소이한 수학의 내용을 활동 중심의 개념, 탐구,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위하여 문화적 활동에 내재한 수학으로서의 민속수학과 일상적인 도구로서의 수학에 대한 관심이 요망된다. 즉, 자기가 속한 고유한 문화의 민속수학의 사고방식과 아이디어 등을 살리면서 아울러 다른 문화권의 민속수학의 사고방식과 아이디어 등을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도구로서의 일상의 지식과 대상으로서의 학교에서의 지식의 차이는 있지만, 성공적인 수학적 개념화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도구로서의 개념에 이미 접근해 있는 상황이 대상으로서의 개념으로의 전이에 용이하다. 또한 핵심 개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의 이해와 자연언어를 통한 원래 상황의 표상은 도구에서 대상으로서의 개념의 전이를 도울 수 있다.

## 수학적 문화 형성을 위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수학의 학습에서 아동들의 어려움은 개념적 결핍보다는 의사소통의 장애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아동들의 수학적 활동과 상호작용에 의한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여야 한다. 수학은 창의적인 인간의 활동이며 교실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수학을 세계적인 공통언어로 본다면 의사소통으로서의 수학교육의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언어 교육에서도 문법적 지식에 강조 점을 두기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에 강조 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학적 생각들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교수-학습 전략의 재 구조화가 요망된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 교수-학습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의 교수-학습을 학습자의 수학적 문화 형성을 위한 과정으로 볼 때, 문화적 관점에서의 폭넓은 수학적 활동을 통한 학습자들의 상호 작용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학적 문화의 가치들 중에서, '개방성'보다는 '합리성', '통제성'보다는 '진보성', '신비성'보다는 '개방성'을 강조함으로써, 수학적 지식의 절대주의보다는 상대주의를 지향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수학을 형태들의 연구를 포함한 동적인 교과로 봄으로써 생생한 토론과 탐구를 통한 개방적인 상호 작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소집단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 의견의 교환과 상대방의 설명에 대한 요구와 같이 언어의 상호 작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업을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수-학습의 새로운 방향은 학습자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의 수학을 대상으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수학적 활

동들과 아울러 고유한 민속 수학적 활동들이 융합된 독창적인 수학적 문화의 형성을 위한 상호작용의 과정이어야 한다.

둘째, 수학적 문화 형성을 위한 교수-학습에서의 의사소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은유는 단지 시의 장식적인 고안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을 창출하기 위한 중심적인 언어적 전략들 중의 하나이며, 수학의 주관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지식의 교섭을 위한 도구로 볼 수 있다. 언어 교육에서 문법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것처럼 수학 교육에서도 가치 있는 사회 문화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 개념, 탐구,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수학적 문화를 새롭게 형성해가도록 해주어야 한다.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의 방법은 듣고 말하는 것과 읽고 쓰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말하기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고를 조직화하는 탐색적 대화와 함께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를 이해시키는 설명적 대화를 복돋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언어적 전략과 언어적 전략의 개발이 요망된다. 수학 교실에서의 말하기 의사소통에서 수학적 '통용어'로서의 수학 언어 사용역의 창출은 은유와 유추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유추란 용어는 그리스 수학에서 쓰이던 '비례'라는 의미의 'analogia'를 그리스 문법가들이 차용하였는데, 오늘날의 수학 교육에서 유추와 은유의 언어적 의미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음은 '유추의 부메랑 효과'라 할 수 있다 말하기의 무형적 성질은 영구성을 감소시키므로 잘 변형되고 재해석될 수 있는 반면에 쓰기 언어의 주요한 특성은 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영구성과 반복가능성을 갖는다. 기록의 유형은 말로 쓰기, 혼합형 쓰기, 기호로 쓰기의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기호로 쓰기는 높은 수준의 기록 방식으로 대부분의 수학 교사들이 지향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한편 언어학에서의 전형적인 구문론인 촘스키의 변형 이론은 구구조문법과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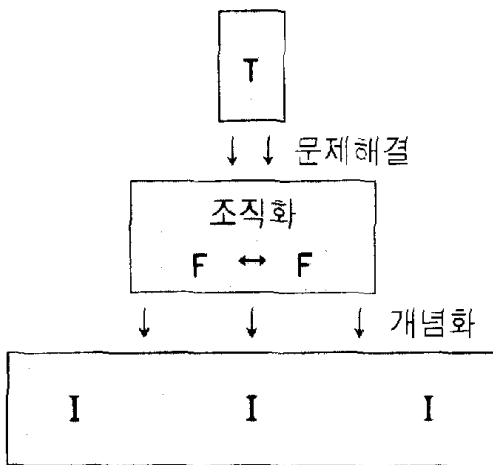


의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수학에서도 구조적 설명과 구조적 변화의 요소들을 탐구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구현될 때, 아동들의 수학적 경험들의 공유와 대조의 과정을 통한 수학적 의미의 사회적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동일한 개념이라 할 지라도 의사소통을 통하여 그 다양한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수학적 문화 형성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ME 교수-학습 모형

수학적 문화 형성을 위한 ME 교수-학습 모형의 기본 철학은 수학적 문화의 형식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수학적 지식의 집합 F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교실에서는 지적으로 도전적인 수업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이 모두 수업의 주역이 되고, 가정에서는 학생이 수학적 문화의 주도자가 되고, 사회 생활에서는 대중이 모두 수학을 가까이하고 수학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수학적 문화 형성의 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ME 교수-학습의 일반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교수-학습의 ME 일반 모형

위의 <그림>은 수학적 문화 형성을 위한 ME 일반 모형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단계별로 기본 모형, 확장 모형, 완성 모형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활동 중심의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수학 교육과정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구비된 상황이라면, 기본 모형만으로도 수학적 문화 형성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교육과정이 전형적인 수학적 문화에 증해줄 만한 다양한 탐구 활동이나 프로젝트 활동을 안내하지 못하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확장 모형과 완성 모형을 제시하였다.

확장 모형은 특히 고유한 문화 속의 독특한 수학적 탐구 활동이나 다른 문화 속의 가치 있는 수학적 생각들을 공유하고 대조하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이 학습자와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동들의 개발을 위한 것이다. 또한 완성 모형은 직접적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수학적 활동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을 인식하고 수학적 활동을 생활화하는 질 높은 문화를 형성하게 하자는 것이다.

첫째, ME 기본 모형은 개념 중심의 기호적 요소를 교수-학습하기 위한 교사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것이다. 기호적 요소는 수학에서 설명력 있는 중요한 개념들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모형에서의 교수-학습은 학습자의 환경에 기초를 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수학적 활동과 의사소통의 활성화에 의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개념화 단계는 I 수준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F 수준과 연계시키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학습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 여러 학생들의 활동성과 개성의 존중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므로, 개념적 지식(Hiebert & Lefevre, 1986)의 획득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이고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들이 요구

된다. 개념화의 범주에는 수학적 지식의 회상, 표상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되, 학습자의 활동과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교사는 이를 고무할 뿐 아니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자연 언어를 통한 사회 문화적 경험들의 공유와 대조를 통하여 수학적으로 공인된 언어사용역을 이용한 의사소통의 활성화가 그 초점이다.

조직화 단계는 F 수준의 개념이나 용어들이 상호 작용하여 정교화된 지식의 체계를 갖도록 하는 단계이다. 비 형식적인 수준의 수학적 사실들이 형식적 수준의 개념화 또는 기호화로 연결된 상태에서, 학생들 각자는 기존의 지식 체계에 새로운 개념적, 절차적 지식을 첨가하여 확장된 지식의 연결망을 갖추어가도록 해주어야 한다. 주로 수학의 형식적 수준의 기호들 간의 정교화가 발생하고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상호 작용하는 단계이므로, 조직화의 범주에는 간단한 추측, 증명 방법의 선정, 문제해결의 알고리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행조직자의 제시와 활발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 해결 단계는 정교화된 수학적 용어와 개념의 지식 체계를 가진 F 수준을 T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수학적 개념이나 절차의 발견에 해당하는 창의성의 발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 개인에 있어서 머리 속에 짜여져 있는 지식의 연결 망을 토대로 새로운 문제 상황이 제기되었을 때, 당장에는 쉽게 해결될 수 없지만 주어진 문제 상황을 의식하고 해결하려는 도전 의식을 고무시키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한다. 문제해결의 범주에는 개념화나 조직화의 범주에 속하는 활동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특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추론이나, 수학 내외적 연결성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는 상황적 문제 해결, 메타 과정에 대한 중시, 문제 해결 과정의 모델화 등이 요구된다.

둘째, ME 광장 모형은 개념 중심의 기호적

요소에 더하여 탐구 중심의 문화적 요소를 교수-학습하기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간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한 기호적 요소의 학습만으로 모든 학생들의 수학적 문화 형성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기본 모형의 보완을 위해 모든 문화들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탐구 자료와 다른 문화권에서 독특하게 보유하는 탐구 자료들로 구성된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탐구 활동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수학의 전형적인 탐구 자료들을 예증하고 구현함으로써, 수학적 문화 형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셋째, ME 완성 모형은 개념 중심의 기호적 요소, 탐구 중심의 문화적 요소에 더하여 프로젝트 중심의 사회적 요소를 교수-학습하기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 사회 간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활동과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수학적 탐구 자료들의 탐구를 통해서도 수학적 문화의 형성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기본 모형과 확장 모형의 완성을 위하여, 인간의 생활 터전은 사회라는 점을 토대로, 과거, 현재, 미래 사회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실제로 학생들이 해결함으로써 수학적 문화 형성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회적 요소로서의 프로젝트는 수학적 설명력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를 예증하고 구현함으로써 수학적 문화 형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

#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국립대학 방문기

곽 병 선

## 방문 목적

필자는 지난 1995년 10월 15~30일간 유네스코 본부의 위촉을 받아 구소련 연방에서 신생 독립한 아제르바이잔의 국립대학교발전안을 유네스코에 건의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그 나라의 수도인 바쿠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필자가 유네스코로부터 위촉받은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전환기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사회에서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의 경제학, 사회학, 과학, 수학, 인류학 등 제 학문분야의 교육과정을 재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둘째, 사회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셋째, 대학의 정보처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는 것이었다. 필자가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 재건을 위한 유네스코 자문관으로 위촉을 받게 된 데에는 필자를 유네스코 본부에 소개한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아제르바이잔에 입국하기 전까지 필자가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95년 6월 경 중앙일보에 실린 한 특집 기사에서

단편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있었고, 그 담당기자를 수소문하여 약간의 안내를 받기는 하였다. 그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은 구 소련연방에서 독립한 나라이고, 회교 국가이며, 많은 석유매장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어나 소련어를 모르는 외국인은 언어문제로 약간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은 대사를 교환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 입국 비자를 얻으려면 서울 주재 소련 대사관을 통해서 수속을 밟던가 아니면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이 있는 제삼국에서 받아야 한다. 한국과 아제르바이잔간에는 전화, 팩스와 같은 통신수단이 원활하지 못하여 입국 수속을 밟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필자는 한국에서 어렵게 아제르바이잔 유네스코 대표와 통화할 수 있었으나, 일단 소련에 들어오면, 별도의 비자없이도 자기 나라의 공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대답을 받았다. 필자는 마침 아제르바이잔 입국 직전, 교육의 기준에 관한 주제로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모스크바에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 알아본 바로는 입국 비자없이 아제르바이잔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외무부에 초청장 발송을 의뢰하였으나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모스크바에 있는 유네스코 대표부(러시아 유네스코 위원회가 아님)의 도움을 받아 아제르바이잔 입국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입국비자 수수료로 40달러를 지불하였다. 모스크바에서 아제르바이잔 행 비행기는 매일 운항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까지는 3시간이 걸렸다. 공항에는 바쿠 국립대학에서 국제대학장이 마중나와 있었다. 여장은 그들의 안내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호텔에 투숙하였다. 필자의 일정은 바쿠 국립대학에서 마련하였다. 주요 일정은 대학에서 마련한 스케줄에 따라 단과대학 학장들을 돌아가면서 만나 그들의 문제와 건의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문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시설, 프로그램, 연구업적 등을 소개받았다. 그외에 아제르바이잔 교육부 장관과 외무부의 유네스코 대표를 만났으며,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피난민 가족을 면회하였다.

필자의 아제르바이잔 방문 결과는 영문 보고서(A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Baku State University of Azerbaijan)로 작성되어 유네스코 파리본부에 접수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바쿠 국립대학의 어려운 현재의 여건을 기술하고, 이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 기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지를 건의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다음은 필자가 관찰한 아제르바이잔과 바쿠 국립대학의 현실을 간략히 기술한 것이다. 이 보고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한 신생 독립국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과 관계있는 나라

아제르바이잔은 지리적으로 북쪽으로는 소련과 경계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그루지아와 아르메

니아, 남쪽으로는 이란과 접경하고 있으며, 동쪽은 카스피해를 접하고 있다. 면적 8만 6천 평방킬로 미터에 인구 7백 50만을 가진 나라로서 인종은 아제르바이잔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제르바이잔 민족은 이란에 많이 살고 있으며(이란 인구의 절반에 가깝다는 말을 필자는 현지에서 들었다) 터기에도 일부가 있다고 한다. 우랄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문화, 정치면에서 터키와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말은 불의 나라라는 뜻이라고 한다. 지하에 석유와 가스가 많이 있어서 땅에서 불이 솟고 한번 불이 나면 꺼지지 않아 사람들에게 경외심과 공포심을 주었다고 한다. 이 나라에는 불을 신으로 섬겼던 조로아스터교의 흔적이 남아있다.

역사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은 옛 비단길의 끝으로서 중국 상인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서쪽 끝이었으며, 유럽 상인들이 비단을 받아가는 동쪽 끝이었다고 한다. 즉 동양 문물과 서양 문물의 교역지대로서 교량역할을 한 지역이다. 따라서 동서 문화권이 만나는 지역적 요충으로, 그리고 인접한 민족들과 문화권의 상충하는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많은 역사적 유물이 남아있는 나라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성벽의 나라고 불릴 만큼 많은 성벽을 도처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아제르바이잔은 그 문화적 원류를 중앙아시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점을 지닌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의 한 부족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이동하였고 동쪽으로 이동한 후손들의 나라가 동쪽 끝으로 한국, 그 다음이 몽고이고 이어서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나라들이 이 계열에 속하며 서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과 끝으로 터기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의 생김과 문화는 우리와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는 연구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랄 알타이어 어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친근감을 갖게 하는데, 바쿠대학교 역사대학장은 이점을 매우 강조하여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유대발전을 크게 희망하였다. 현지에서 아제르바이잔 언어를 연구하면서 사전 번역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 전문가들의 전체에 따르면 언어 구조가 우리말과 유사하며, 어떤 낱말을 우리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위를 여기서는 가위치라고 한다는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에는 난민구호와 아제르바이잔 역사 및 언어 연구를 목적으로 주재하는 한국인이 몇 분 계시며, 대우 자동차 지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필자가 머무르는 동안 한국 정부가 지원하여 바쿠국립대학에 우랄알타이어 연구소를 개설하는 개소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관의 공사님이 직접 참석하여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관심표명이 있었다.

## 시련과 낙관

정치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은 1918년에 건국하였으나 러시아 혁명으로 소련 연방에 편입되었다가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1991년에 독립국가가 되었다. 새 정부는 시장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옛 체제에 저항하여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독립과 더불어 인접한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 카라바크 지역에서 국경 분쟁이 발생하여 영토의 20%를 상실당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이 피난민이 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이는 신생 아제르바이잔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은 만년설이 뒤덮인 해발 5000미터의 고산지대에서 아열대 해안 기후를 (세계 11대 기후권 가운데 7개의 기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함) 가진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여러가지 식물 재배가 가능한 나라로 알려졌다. 특히 바쿠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석유 채취로 발전하였던 지역으로 알려졌다. 노벨상도 노벨 형제가 여기서 석유채취로 번 돈을 기금으로 하여 창설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바쿠 지역의 석유는 소련이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채 원유만 채취해가, 옛 시추 시설들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황폐화되어 있고 바쿠 지역의 석유는 바닥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바쿠 인근 가스피해 연안에는 향후 지구 석유 소비의 1세기분을 담당할 정도의 매장량이 있다고 한다. 아제르바이잔은 이 석유를 국가 발전의 지렛대로 삼고자 하여 1994년에 소위 세기의 계약으로 불리는 석유 시추 계약을 외국 10대 석유 회사로 구성된 콘소시엄과 체결하였다. 우선 30년간의 시추 계약을 통하여 300억불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의 수송, 제련 등에 따른 부대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격심한 사회 변동을 겪고 있다. 우선 독립국으로 토대를 쌓고 있는 과정에서 정치적 안정이 여러번 흔들렸다. 여러 차례의 쿠데타 음모가 있었으며, 소련군에 의한 희생,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으로 인한 인명과 영토의 상실, 그리고 백수십만명의 피난민의 발생과 같은 재해가 이 나라의 현실을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구소련 체제에서 개방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지지부진하고, 소련과 연결되어 있던 경제 관계가 갑자기 단절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각종 생산활동의 중단, 그리고 옛 통제체제에 향수를 가진 기성 세대와 새 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경험 부족과 사회에 만연한 각종 비리와 부패 등으로 경제 침체가 가속되어 일반 시민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이 아제르바이잔의 평균 임금으로 제시한 지침은 월 17달러라고 한다. 대학교수의 한달 봉급은 20달러이하로 알려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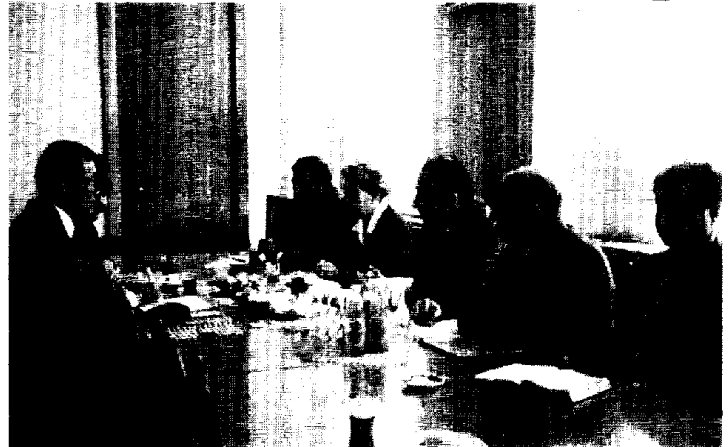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은 그 장래를 매우 낙관할 수 있는 나라이다. 이곳에 부임하여 수년째 일하고 있는 국제연합개발기구의 대표는 만약 아제르바이잔이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만 있다면, 곧 21세기에 이 지역에서 천국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내다보고 있다. 비옥한 땅과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과 많은 역사적 유적지, 인접한 여러 나라들과 연결 통로에 있는 지리적 요충의 특성은 이 나라의 장래를 밝게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은 사람들이고 그것은 교육받은 사람들의 세계관과 능력에 달린 문제이다.

###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대학

아제르바이잔의 대학은 구 소련 교육제도의 영향으로 10년간의 초 중등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94년 현재 약 150,000명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학 진학자는 10,800명이다. 전국적으로 65개의 대학이 있으며, 대학생 총 수는 약 180,000명이다. 이 가운데 바쿠 국립대학은 아제르바이잔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다.

바쿠 국립대학은 1919년에 설립되었다. 1994년에 창설 75주년을 기념하였다. 1991년까지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으로 불리다가 바쿠 국립대학으로 개칭하였다. 현재 17개 학부에 110개 학과, 1,200명의 교수진, 12,000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다. 50여개 나라에서 500명의 외국 학생이 유학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아제르바이잔 역사와 언어 전공으로 두명의 학생이 등록해 있다.

최근 이 대학은 교육과정을 옛 체제에서 서구 대학을 모델로 개편하였다. 그 두드러진 특성을 구 소련체제에서의 전문가 양성과정인 과학자 양성과정-최고 학위를 과학자(scientist)로 하고,



▲ 아제르바이잔 교육부장관과 면담하고 있는 필자(왼쪽)

그 수료 정도에 따라 후보 과학자(candidate of scientist)로 부르는 제도, 즉 학사-석사-박사 학위로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하여, 1994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가 석사과정은 1997년 박사과정은 1999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목도 조정하여 과거 정치 이데올로기 관련 학과들을 새로운 정치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이론 과목으로 고쳤다. 바쿠 국립대학은 무료 교육 기관이 있으나 최근 국가의 대학 재정 지원이 여의치 못하여 학생들로부터 학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2주일간의 일정을 통해 나름대로 파악한 바로는 바쿠 국립대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그것은 정치 사회 안정이 달성되지 못하고 국가 전반이 경제활동 침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학교 환경이 지난 수년간 계속적인 악화의 길에 들어서 있었다는 점이다. 교수가 학교 봉급으로 연명하기 힘들고, 대학의 시설과 각종 교수 자료는 보수되거나 보충되지 못하고 있다. 복사기 1대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실험실의 컴퓨터 장비는 지난 3년 동안에 보완되지 못하였으며, 93년 이래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수도 하



비옥한 땅과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과 많은 역사적 유적지,  
 인접한 여러 나라들과 연결통로에 있는 지리적 요충의 특성은  
 이 나라의 장래를 밝게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은 사람들이고 그것은 교육받은 사람들의  
 세계관과 능력에 달린 문제이다.

수도, 교통 통신 시설 등 각종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 빈약으로 학교의 위생환경과 정보 통신 능력도 매우 뒤떨어져 있었다.

한편 과거 정치·이데올로기 관련 과목들은 새로운 개방 사회 원리와 시장 경제체제 관련 철학과 이론들을 가르치는 과목으로 대체되었으나 옛 체제이론을 가르치던 정치 이데올로기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의식면에서의 변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즉 새로운 민주 사회, 개방 시장 경제 사회를 지향하는 이론을 제공하고 변화를 주도해야 할 대학의 지성사회가 매우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학과의 교육과정은 여전히 교수 중심으로 경직되게 편성되어 학생의 다양한 교과 선택기회는 별로 없어 보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필자는 유네스코 본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였다. 첫째, 개방 사회의 이론과 개방 사회로의 변화를 주도하는데 관련된 코스들을 확충하고 학생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그들의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혁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개혁과 아울러 새로운 코스를 담당할 교수진을 위해서 교수진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교수진 재교육 프로그램은 국내 연수 프로그램 강화는 물론 국외 교환 교수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을 건의 하였다. 셋째, 대학의 문서 행정 및 정보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 학사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다. 넷째, 대학의 도서관 장서를 비롯해서 각종 교수 자료를 현대화할 것을 건의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바쿠대학 총장과 아제르바이잔 교육부장관은 국제 사회가 바쿠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규모의 파다에 불문하고 무엇이든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지금 넓게는 아제르바이잔, 작게는 바쿠 국립대학 사정이 그만큼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다.

필자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은 매우 특별한 경험에 속하는 것이다. 필자의 유네스코에 제출된 보고서가 다소나마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을 돕도록 국제사회를 자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화 경제적 이유를 대지 않더라도 한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이 그 교육적 질을 유지하도록 돕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교육공동체 속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



#### 박 병 선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마케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 본원 수석연구위원
- 「민주 사회 민주 시민」, 「좋은 수업을 위한 질문법」의

# 일본 소학교의 열린 교육

이 해 영

필자는 한국열린교육연구회가 주최한 열린 교육 일본 연수단의 일원으로 1996년 1월 22, 23일 이틀간 일본의 소학교 세 곳을 방문하여 학교 시설과 수업을 참관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의 실태와 특성을 기술함으로써 일본 교육의 한 단면을 포착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세 학교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첫번째 방문 학교인 네기시 소학교는 외형이 우리가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학교의 모습과는 달랐다. 우리의 학교는 예외 없이 교사 앞 쪽에 교문과 운동장이 있어서 걸 모습 부터 다른 시설과 뚜렷이 구별되지만, 네기시 소학교는 학교의 입구가 대로 변에 접해 있고 출입구도

일반 건물과 다르지 않아 걸 모습 만으로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 학교가 가진 또 하나의 외형상 특징은 상당히 넓은 열린 공간(open space)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실의 구조 또한 색다르다. 학년별로 학급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데, 학급을 구분하는 칸막이만 있을 뿐, 교실과 복도를 구분하는 벽과 출입문이 일체 없이 열려 있으며, 이것과 연결되어 학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열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열린 공간의 면적이 교실보다 넓다.

열린 공간			
1-1	1-2	1-3	1-4

구분	네기시 소학교	오오이소 소학교	이와테 소학교
위치	도쿄도 다이도구 (東京都 東區)	가나가와현 나카군 (神奈川縣 中郡)	지바현 기사라시스 (千葉縣 木更津市)
역사	124년	120년	86년
학생수	873명	982명	623명
교원수	33명	41명	30명
학급수	24학급	29학급	19학급
교사(校舍)형	오픈(open)	일부 오픈	재래식

열린 공간은 학년별로 공유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비치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다. 각종 실험 기구들도 이 공간에 비치하여 두고 있었다. 교사들은 학년별로 많은 학습 자료가 필요한 교과 및 제재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작하여 열린 공간에 배치해 두고 학생들이 조사 활동이나 수업 시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예컨대 4학년의 열린 공간에는 사회과의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의 삶”이라는 제재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료가 배치되어 있었다. 배치되었던 자료들은 계속 축적해 놓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고쳐 가면서 계속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교사들이 협력하여 수업 계획을 짜고 학습 자료를 만드는 과정의 예를 들어 보겠다. 5학년 국어과에는 “양리 뒤낭”이라는 제재가 있다. 교사들은 학년회의를 소집하여 수업 계획을 논의하고 양리 뒤낭에 대한 자료 수집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에 따라 양리 뒤낭 연구소 사람들을 초빙하여 양리 뒤낭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고, 일본 적십자사를 방문하여 자료를 얻어, 학년의 열린 공간에 게시한다. 물론 교사들이 직접 자료를 제작하기도 한다.

네기시 소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방식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두 학급이 협동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팀티칭(team teaching)이었다. 팀 티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나는 진도별 팀티칭이고, 다른 하나는 과제별 팀티칭이다. 진도별 팀티칭은 능력 수준별로 팀을 구성하여 수업하는 것이고, 과제별 팀티칭은 학습 제재를 몇 개의 과제로 나누어 팀을 구성해서 수업하는 것이다.

진도별 팀티칭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1학년 산수 시간에 관찰할 수 있었다. 수업의 제재는 “큰 수”였는데, 3반과 4반의 두 교사가 학습 진도에

따라 수업 내용을 분담하고 학생들은 학급에 관계 없이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단계마다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는 학습지를 통해서 확인한다.

과제별 팀티칭은 6학년 사회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간과 환경”이라는 제재를 두 학급이 협동하여 학습하고 있었다. 한 교사는 “인간과 물”이라는 과제를 담당하고, 다른 한 교사는 “인간과 공기”라는 과제를 담당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급에 관계 없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제를 선택한다. 같은 과제를 선택한 학생들은 3~5명씩 조를 짜서 학습 활동을 한다. 학습은 교사의 설명보다는 학생들의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나의 과제에 대한 학습이 끝나면 다른 과제로 옮겨서 학습을 한다. 이와 같은 과제별 팀티칭의 장점으로서는 교사가 과제를 분담하므로써 맡은 과제에 대한 수업 준비를 보다 충실하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네기시 소학교에서는 팀티칭과 함께 “계약 학습”이라는 방식이 시도되고 있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학습 계획을 세워 그 계획대로 학습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수립한 학습 계획은 엄격한 심사를 받는데, 심사에 통과되었을 때만 학습을 전개할 수 있다. 학습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교사는 계속해서 안내(학습자료 등)와 점검을 한다. 점검은 학습 계획을 잘 때 설정한 체크 포인트(check point)에 비추어 행해진다. 체크 포인트를 정할 때에도 학생과 협의를 한다.

두번째로 방문한 오오이소 소학교는 외형이 우리 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학교와 똑같았다. 다만 기존의 건물에 열린 공간을 증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점이 달랐다. 이 학교에서는 일제





일본의 소학교 방문을 통해 배운 두가지는  
 교사 간 서로 협동하여 수업 계획을 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을 통합한 팀티칭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과  
 수업을 잘하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는  
 "전문가 정신"이 살아 있다는 점이다.

수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부분적으로 팀티칭을 도입하고 있었다. 3학년 산수과에서 네이시 소학교에서와 같은 진도별 즉, 능력 수준별 팀티칭을 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11년 전부터 팀티칭을 시도해 왔다고 한다. 일본 교육계는 팀티칭을 보급하기 위해

4년 전부터 15 학급 이상에 한 사람씩의 가배(加配)교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증치 교사와 유사한 성격의 것이다. 가배 교사는 교과를 특정하지 않고 담임 교사와 함께 수업에 임한다.

6학년에서는 색다른 팀티칭이 시도되고 있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명의 교사가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에게 가서 수업을 받는 것이다. 즉, 학생이 교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급은 학생들이 많아서 서서 수업할 정도였고, 어떤 학급은 10명 미만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는 "인기"가 덜 한지는 모르지만 개별화 수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시도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학교에서는 총합 학습을 시도하고 있었다. 총합 학습은 교과들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자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한 학습을 하므로써 주변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통합 교육과정과 성격이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학교에서는 연간 학습 계획을 검토한 후 재조정하여 중학년에 연간 30 시간, 고학년에 연간 45 시간을 총합 학습에 배당하였다. 학습 주제는 학생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사는 접치는 주제를 조정하거나 주제의 범위에 따라 통합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6학년의 경우 "환경", "복지", "국제 이해"의 3가지가 학습 과제로 선정되었다. 총합 학습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학기 직전의 여름 방학 한달 전에 주제를 선정하였고, 여름 방학 기간(40일)에 사전 준비를 하였다. 우선 총합 학습 실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총합 학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여기서는 "몸으로 활동한다"는 사실

을 주지시켰다고 한다. 이어서 교사가 자료를 얻는 방법과 해야 할 활동 등에 대해 힌트를 주고, 학생들 스스로 활동하게 하였다. 예컨대 6학년에서는 학습 주제가 “복지”인 경우 학교 근처의 사회 복지 기관 견학하기, “환경”인 경우 환경 연구 센터의 인사를 초빙해서 이야기 듣기, “국제 이해”인 경우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듣기 등의 활동을 반드시 하도록 지도하였다고 한다. 학생들은 “환경”에 대한 학습을 할 경우 우리 고장의 오염도를 조사하는 활동 등을 하였으며, 필요한 자료를 지역 사회의 여러 기관, 기업, 자원 인사들을 통해서 수집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세번째 방문 학교인 이와네 소학교는 학교의 외형도 전통적인 학교의 모습을 띠고 있었고, 수업도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참관 대상이 되었던 것은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수업의 명인으로 존경받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노구찌 교장 선생님은 일본의 교사들이 뽑은 수업의 명인 3인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날에는 3학년의 한 학급에서 국어 수업을 공개해 주었다. 우선 교장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한번도 호흡을 맞추어 본 적이 없는 학급에 갑자기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서도 아이들로 하여금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하게 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이상에서 필자가 참관했던 세 개 소학교의 수업의 실태와 특성을 기술하였다. 이 세 학교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두 가지 배울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첫째는 교사들이 자신의 학급에만 갇혀 있지 않고, 서로 협동하여 수업 계획을 짜고 교수 학습 자료를 제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을 통합한 팀티칭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 학급만 잘 가르치고 운영하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우리의 교직 풍토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는 수업 잘 하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는 “전문가 정신”이 살아 있다는 점이다. 교사들 자신이 수업의 명인을 뽑고, 존경하며, 그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는 점, 교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교단에 서서 후배 교사에게 수업을 해 보인다는 점은 우리 교직 사회가 본받을 만한 점이 아닌가 한다.



#### 이 혜 영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본원 교육정책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교육이란 무엇인가」 외

# KEDI 연구뉴스



## 원 장

\* 2월 6일 안병영 교육부 장관은 본원을 방문하여 KEDI의 현황을 시찰하고, 본원 원장 및 관계자, 교육방송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가졌다.

\* 본원 이돈희 원장은 4월 1일~7일간 중국 NCEDR 창립 사내 기념회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 교육과정연구본부

\* 미국 Fulbright 재단 및 Columbia University의 초청을 받아 1994. 12. 20일부터

1996. 2. 28까지 1년 2개월 동안, '국민학교 영어 교육 과정 개발' 연수 및 연구 과정을 마친 박기화 박사가 3월 23일 귀국을 앞두고 미국 현지에서 연구 결과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 교육과정연구본부의 각 교과서 연구·개발팀에서는 1996년 1학기부터 적용되는 개편 또는 신편 교과용 도서의 개발을 완료하고, 2학기부터 적용될 정본 교과용 도서 및 2학기에 실험 예정인 실험본 교과용 도서 개발에 들어갔다.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되는 교과용 도서는 초등학교 3, 4학년 1학기 도덕, 국어, 사회, 자연, 그리고 중학교 국어 2학년 1학

기, 사회 2학년, 고등학교 공통사회 및 정치 등이다.

\* 교육과정연구본부의 광병선 본부장은 World Bank의 자문관으로 위촉되어 파키스탄 국립교육평가원 및 연수원 설립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3월 9일 귀국 예정으로 지난 2월 28일 이슬라마바드로 출국했다.

\* 최석진 연구위원은 한국미래연구소의 주관하에 베트남 사회과학원의 초청을 받아, '베트남의 통일과 사회과학적 문제에 관한 워크숍'에 참가차 지난 1월 26일부터 26일에 걸쳐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다녀왔다.

## 교육정책연구본부

\* '국가 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 분석 연구'팀에서는 연구 계획의 구체화 및 연구 모형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3월 마지막 주에 개최할 예정이다.

\* 96년도에 교육부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통일교



육 자료 개발연구' 협의회가 지난 2월 23일 오전 10 및 본원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에는 본원의 이돈희 원장 및 연구진과 교육부의 신상조 장학관을 비롯한 통일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었다. 이제 통일교육은 규범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사실적이고 개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기초하여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자료를 개발할 것이다.

### 멀티미디어교육연구본부

\* 전국 시도 교육청 컴퓨터 교육 담당관 협의회가 2월 9일에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본 멀티미디어 교육연구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컴퓨터 교육 관련 시·도 공동 추진 사업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아울러 제5회 전국 교육용 S/W 공모전 운영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진이 구안한 센터 설립·운영 방안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가 3월 8일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 정책·기초팀은 '학교 컴퓨터 교육 종합 평가 연구'의 실행 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2월 23일 류완영(한양대 교수), 이남호(교육부 연구사), 김학영(서울시교육청 장학관) 등 컴퓨터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의 추진방향,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 2월 15일 서울교육대학에서 전국의 교육대학교 컴퓨터 교육 관련 교수를 대상으로 교육용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새빛(SAEBIT)'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 김영민 책임연구원은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개최된 AECT(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학회에 참석하여, 과학 오개념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원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 손병길 책임연구원은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OECD와 NCAL(National Center on Adult Literacy)가 공동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정보 공학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 훈련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 S/W 개발팀은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교육용 S/W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영어 및 환경에 대한 CD-ROM 타이틀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육용 S/W 운영 환경에 대한 제한점을 극복하게 되었으며, 교육용 S/W의 질적인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교육용 멀티미디어 S/W는 지난 3년간 개발한 교육용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새빛(SAEBIT)'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할 계획이다.

\* '멀티미디어 데이터 라이브러리 연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

로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본원에서 개발된 491편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멀티미디어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로 활용하고자 원시 자료의 수정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 멀티미디어 교육연구본부의 자생적인 연구 모임인 '도시락 모임'이 지난 2월초부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 모임은 매주 수요일 12:30~13:30 사이에 열리고 있으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거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2. 1 교육용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새빛 설명회(서영석)
- 2. 7 코스웨어 설계전략 비교-구성주의와 객관주의 -(서희전)
- 2. 14 컴퓨터 통신교실 21세기 프로젝트와 그 이후 (이인숙)
- 2. 22 상황 학습과 프로그램 학습의 효과 비교(유정아)



◆ 기획조정실-'96년도 연구실행계획서에 대한 심의회를 가졌다.

### 기획조정실

\* '96년도 연구실행계획서에 대한 심의회가 2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본원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96년도에 본원에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21개 기본 연구 과제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 국제연구협력실

\* 국제연구협력실에서는 96. 1. 24. 본원 제1회의실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 수급체제 개발 연구와 관련한 주한 외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의 해외연구협력진 구성을 목적으로

로 한 이 회의에는 영어사용 5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외교관계자와 문화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연구자들의 연구에 대한 소개에 이어 참석자들은 각국의 연구협력기관을 선정하고, 그들의 역할과 협력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국제연구협력실-원어민 영어 교사 수급체제 개발연구와 관련한 주한 외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제연구협력실에서는 미국 Clark 대학교의 Richard Traina 총장을 초청하여 '96.3.15. 본원 제2회의실에서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라는 제목의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강연회에서는 경제 발전과 환경 문제, 국제적 협력과 평화를 위한 문화 격차 해소,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민 의식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 교육정보자료실

\* 교육정보연구팀에서는 국가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5년 7월부터 한국전산원과 교육부의 위탁사업으로 (주)한일정보통신과 본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멀티미디어 교수-학습DB 개발이 완료되었다. 이 DB에는 국민학교 3~6학년 자연과목 32개 단원과 관련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소리 등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 20,000여개가 수록되어 있으며, 단원별로 또는 주제어별로 검색해 볼 수 있으며, DB에 수록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만든 HTML 파일(일종의 멀티미디어 교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가 발족과 함께 주전산기 환경이 구축되는 대로 시범 서비스 단계를 거쳐 전국 초

등학교 교사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당분간은 본원의 주전산기에 일부 단원의 한정된 데이터만을 포함하여 시범테스트 중이며, LAN 환경과 모뎀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 주소로 접속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3. 27~28일 무역전시관에서 전국적인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다.

(\* DB 주소 : <http://202.31.182/253/kediwww>)

\* 교육정보연구팀에서는 1995년도 본원 교육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교육지표 DB 시스템(KEIS)이 개발되어 본원 주전산기에 포팅이 완료되었다. 이 시스템은 sybase의 전문 검색언어인 sql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원하는 대로 통계표와 그래프를 재작성할 수 있으며, 본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교육지표 1995」에 수록된 통계표와 그래프는 화면상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료를 ms-excel 등의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게 하였다. 단, 현재는 1995년 유치원과 초등 학교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되었으나 단계적으로 전학교·급 및 각년도의 자료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교육정보연구팀에서는 본원이 1984년도부터 발간해 온 한국의 교육지표 1995년판이 종전에 비해 대폭적으로 개편된 체제로 발간되었다. 한국의 교육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 50여개만을 대상으로 해설, 통계표, 그래프, 국제비교 자료를 함께 싣고 있으며 고급 지질과 칼라로 인쇄하였을 뿐 아니라, 책에 실린 모든 자료를 디스켓에 담아 함께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자료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였다. 단 종전에는 많은 부수를 발간하여 무료 배포하였으나 300부만을 한정 배포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1996년 상반기 중 인터넷의 Web 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 전산운영팀에서는 인터넷 및 전산망 중심의 전산 시스템 활용안내서를 개발하였다. 이 자료는 인터넷과 전산망(하이텔, 천리안 등)을 아직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며 사용절차 중심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인터넷의 개념과 사용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교육정보자료운영팀에서는



도서관 전산화를 위하여 주전산기와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테스트 중이다. 주전산기는 Tandem Unix 기종이 도입되었으며,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으로는 삼보정보에서 개발한 Vintage LAS가 선정되었다. 이 시스템은 도서관의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는 토털 시스템으로서 이용자들은 검색/열람 모듈로 들어가 LAN을 통해 연구실에서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얻고자 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시스템의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본원에서 구축한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시스템에 올려 금년 전반기중 오픈할 예정이다.

### 방송통신교육연구본부

\* 지난 2월 4일에서 15일 사이에 전국의 43개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1995학년도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금년도 졸업생수는 4,437명으로, 졸업생 각자의 여건과 처지는 다르고 나이와 환경 또한 같지는 않지만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뤄낸 기쁨과 보람은 더없이 크고 고귀한 것이다. 이번 졸업식에는 본원의 이돈희 원장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참

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어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1996학년도 방통고 신입생들이 사용하게 될 본원 개발의 '공통영어, 공통수학, 공통과학'이 교육부의 인정 도서 합격 결정 및 사용 승인에 따라 전국 방통고에 배포되었다. 금년도에는 1997학년도에 사용하게 될 '영어 I, 수학 I, 물리 I, 생물 I'을 개발하게 된다.

\* 방통고 학생들을 위한 방송강의 안내서인 '방송강의 요람'과 보조 학습 자료인 '통신 학습' 3월호, 그리고 교사들의 학사 운영을 위한 지침서인 '운영 요람'이 발간되어 학생과 교사들에게 배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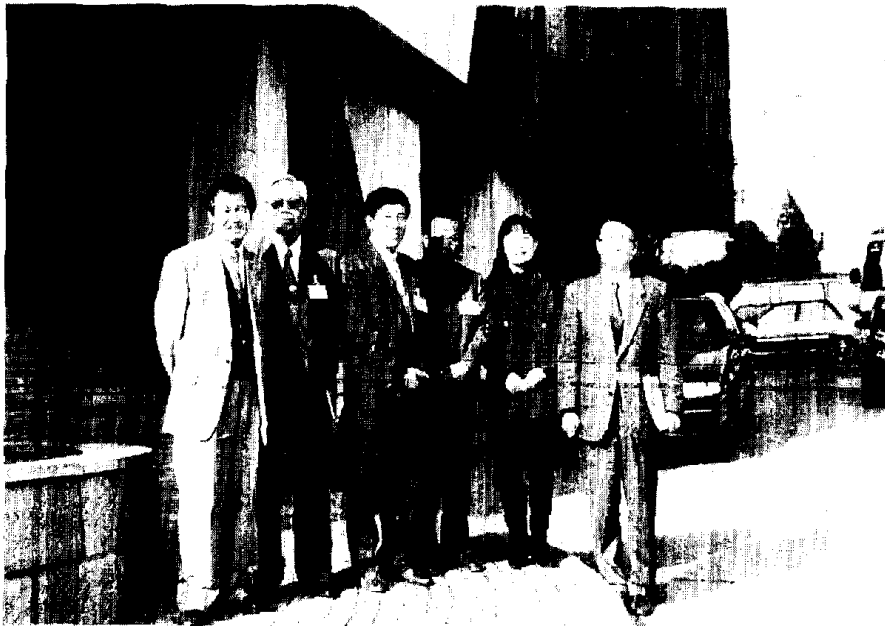
\* 현재의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규모를 배가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2차에(1995. 12. 10 ~ 14, 1996. 1. 19 ~ 23) 걸쳐 홍성고, 전주여고, 속초상고, 강릉상고, 목포고 등 25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출장 방문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담당 교사, 동창회 간부, 학생회 간부들과 함께 효과적인 신입생 유치 방안 마련 및 재학생 중도탈락 방지 대책을 숙의하였다. 그 결과 1996

학년도에는 학생 규모가 좀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업기술교육연구특임본부

\* 직업기술교육연구특임본부는 1월에 「신경제 5개년 계획」 중 '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제도 개편' 사업의 일환으로 '9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공고 「2·1 체제」 교육과정 모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사업'의 3년간 사업으로 '96년도 사업을 수임 받았다. 이 사업은 공고 졸업생의 산업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3학년 학생들에게 1년간 산업체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함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고 「2·1 체제」 운영에 활용될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운영 지원을 위한 각종 연구를 수행함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본부는 '94년부터 이 사업을 교육부로부터 수탁 받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문교과서 32책과 전문교과용 영상자료 5편을 개발하는 동시에 '공고 「2·1 체제」 졸업생의 산업체 적응 실태 조사 연구', '공고 「2·1 체제」 홍보 및 교사 연구', '공고 「2·1 체제」 시범학교 및 시범 산업체 운영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직업기술교육연구특임본부-캄보디아 직업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 담당 관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 한국-유네스코 공동 Fellowship에 의한 직업기술교육 훈련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캄보디아 직업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 담당 관리를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연수를 실시하였다. 참석자는 Mr. Pich Sopoan (직업기술교육 및 고등교육국장), Mr. Chan Choeun(직업기술교육부국장), Mr. Rot Bunia (직업기술교육과장) 등 3인이다.

연수의 주요 내용 및 방법은 1) 한국 교육제도 및 직업교육의 이해를 위한 강의 및 토론, 2) 직업기술교육 훈련 기관 및 산업체 방문, 3) 개인 연구 및 평가, 4) 자유 토론 등이었다. 교육개발원으로서의 처음 맞이

한 캄보디아 연수단은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평가표를 제출하였다.

### 영재교육연구본부

\* 수학 영재 판별 도구 연구 개발팀 및 영재 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팀에서는 2. 9 (금)일 오후에 외부 인사 9인 및 원내 인사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수학 영재 판별 도구 및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방향 협의회를 본원 제2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영재 교육 교원 연수 자료 개발팀에서는 2. 28 (수)일 오

후에 외부 인사 8인 및 원내 인사 10인이 참석한 가운데 영재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자료 모델 구안 및 내용 상세화를 위한 협의회를 본원 제1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시 · 도 교육연구원 활동

##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화 자료 발간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청 단위로 '96학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사회과 탐구(4-1) '부산의 생활' 학습 지도를 위한 다양한 자료가 개발, 보급되었다.

이번에 개발 보급된 자료는 인정도서 '부산의 생활 교사용 지도서'(4×6배판, 230쪽)와 교과서의 내용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부산의 생활 VTR 자료'(60분용, I·II)와 부산 지역 견학 안내서인 '우리가 사는 부산'(4×6배판, 180쪽) 등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사회적 사실을 탐구하도록 개발되었다.

### 자아 이해 지도 자료 발간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아는 일은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하고 현실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통하여

도와 줄 필요가 있어 자아의 성장·발달에 관한 이론과 자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실제 활동 프로그램으로 지도 자료가 엮여져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충분한 자아 이해 지도 자료로서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 대전시 교육연구원

### 초등학교 세계화 지도 자료 개발

초등학교 세계화 교육을 위해 세계화의 총체적 의미로 제시된 일류화, 합리화, 한국화, 인류화의 구현을 중심으로 한 초등학교 세계화 지도자료를 개발하였다.

이 자료는 총론과 각론, 부록으로 나누어 교육과정 형식의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이에 대한 학습은 직접 체험으로 이루어지도록 활동 중심, 탐구 중심, 문제해결중심으로 편성하여 세계 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하는데 유용한 학습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녀교육의 지혜' 증보판 발간

'95학년도에 초등학교 취학 어린이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의 지혜'를 이미 발행한 바 있는데 '96년도에도 요청이 있어 5세 어린이 입학 허용과 조기 진급, 조기 졸업에 관한 최신 교육정보들을 보완하여 20,000부를 발행, 관내 초등학교 및 유관기관에 보급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모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은 가정교육의 슬기, 제2편은 꿈을 가꿔주는 진로교육, 제3편은 학교생활을 돕는 부모의 역할 등으로 짜여져 있다. 취학을 앞둔 자녀교육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 '대전 진로교육' 제 11호 발간

'중·고등학교 신입생 학교생활 안내자료'를 특집으로 한 '대전진로교육' 제11호를 발간·배부하였다.

이 자료는 첨단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학교생활 오리엔테이션 자료와 최신 직업정보를 중심으로 한 진로지도 정보자료로 엮여져 있다.

새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학교생활을 안내하는 진로 교육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 시청각 교육 담당교사 회의 개최

'96년 2월 8, 9 양일간에 걸쳐 초·중·고등학교 시청각 교육담당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금년도 교육자료전시회 작품제작에 관한 협의와 본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와 시설 안내 및 활용방법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본원에서 개발·제작한 「재미있는 무늬 꾸미기」, 「도형의 아름다움」, 「백제미술」 등 3종 5편의 VCR자료를 배부하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알찬 시청각 교육자료 개발 및 본원 시설활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 현장교육연구 방법 등에 대한 연수회 개최

현장교육연구 교사제 운영계획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초·중등 교원 305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연구 방법 및 보고서 작성 방법, 자료 활용 방법에 대한 연수회를 실시하여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돕는 교직원 연구 풍토 조성에 노력하였다.

#### 교육부 지정 전국 보고서 요약집 보급

본 시교육청 지정 '95 연구·

실험·시범학교 운영결과 우수 실천 사례 일반화 자료집 및 교육부 지정 전국 보고서 요약집을 발간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였다.

#### 초등학교 자연과 강사요원 연수 실시

'96. 1. 22.~2. 2.(10일간 60시간)까지 관내 초등학교 자연과 강사요원 4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바 초등학교 과학 실험·실습 지도능력 향상 및 자연과 교수-학습 지도 방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임용교사 직무연수 실시

'96. 2. 12.~2. 24.까지 10일간(62시간) 인하대학교에서 초·중등 신규 임용 교사 및 복직 예정교사 초등 191명, 중등 535명을 대상으로 전전한 교직원 확립 및 사명의식 고양, 교직 전문성 제고, 실무능력 및 교육현장에서의 적응력 배양을 목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 광주시 교육과학연구원

#### 초등학교 4-1 사회과 탐구 교수·학습 자료 보급

제6차 교육 과정에 의하여 4-1 사회과 교과서인 '광주생활

이 개발·배부됨에 따라 '초등학교 4-1 사회과 탐구 교사용 지도서' 개발·보급과 동시에 관내 초등학교 교사 24명으로 구성된 자료 제작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살기 좋은 우리 광주', '광주의 산업과 생활', '발전하는 광주'등 3개 분야에 걸쳐 TP 자료 원안과 영상 자료를 제작·보급하였는데, TP 자료 원안은 사회과 탐구 교과서와 함께 광주의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을 학습할 때 어린이들이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상 자료는 광주의 현황, 문화, 산업, 교통, 공공기관 등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화면을 담아 단원별, 차시별로 편집 제작하여 애향심은 물론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 고등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학생의 수준이나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극 활용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멀티미디어실 운영

제1기 멀티미디어 전문요원 연수가 지난해 11월 9일부터 금년 2월 29일까지 4개월에 걸쳐 총 144시간을 전문요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어 제2기 연수가 3월부터 6월 말까지 초·중등 교사 및 전

문직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또한, 1, 2기 수요자를 중심으로 30~35명 정도의 CD-ROM 타이틀 개발팀을 구성하여 초등학교 3년 사회과, 중학교 1년 수학과와 CD-ROM 타이틀을 97년 8월까지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1기 연수생 40명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0박 11일간 미국 연수를 다녀왔는데 인디애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대학 등을 방문하여 멀티미디어 시설 견학과 소프트웨어 제작·활용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며 초·중등학교 멀티미디어 수업도 참관하였다. 특히, 이번에 수집한 정보와 자료들은 앞으로 CD-ROM 타이틀을 개발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강원도 교육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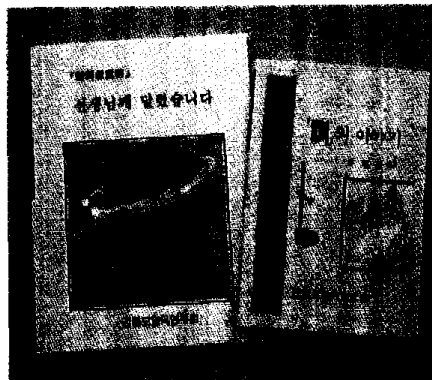
□ '훈의 이야기' 발간·보급

감동적인 훈화자료, '훈의 이야기'가 강원도 교육연구원 이찬오 원장이 직접 써서 출간, 도내 초·중·고교에 보급되었다.

메말라 가기 쉬운 청소년들의 정서를 「훈」으로 적셔주려는 이 책은,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적 선현들의 거룩한 삶이 짧

고도 감동적으로 실려 있어 인성교육의 한 지침이 되고 있다.

□ '창의성 교육' 선생님께 달렸습니다' 발간·보급



본 연구원에서는 '창의성 교육' 선생님께 달렸습니다.'를 발간·보급하였다.

'창의적 인간' 교육은 5·31 교육개혁의 중심 이념일 뿐 아니라, 우리 강원교육의 지표이기도 하다.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간교육'이 절실한 이 때, 본 자료는 더없이 적절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책 속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아이를 기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책 속에 있는 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 아이'가 되도록 교육에 많은 도움되기를 기대한다.

**충북 교육연구원**

□ '96 중학교 신입생 학업성취도 진단 평가 실시

96년 2월 14일 도내 중학교 신입생 26,000명에 대한 '96 중학교 신입생 학업성취도 진단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급 편성 자료와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 영역과 문항수는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사회, 자연과는 각 40문항, 산수과는 25문항으로써 교육 과정의 목표 성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중점을 두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진단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급 편성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수·학습 방법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어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진단평가 문제 출제에 따른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 충남 교육연구원

인성교육자료 '착하고 바르게 사는 길' 발간



충청남도 교육연구원(원장이창희)에서는 고전 및 명언을 활용한 인성 교육 자료로 '착하고 바르게 사는 길'을 초·중등 교수용으로 발간·보급하였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이 있듯이 본 자료는 고전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를 병행하여 구성되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고전적인 윤리적 덕목 요소를 이해하게 하고, 그 속에서 현대적인 도덕성을 발견하고 재조명하여 봄으로써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발견해 보자는 것이다.

책의 내용은 개인 생활 영역으로 효행, 예절 등 7개 덕목과 사회 생활 영역으로 협동, 질서 등 7개 덕목을 지도 덕목

으로 선정하여 덕목별 현대적 해설과 핵심 요소를 추출, 이에 대한 관련 고전 및 명언을 수록하여 해설하고 덕목별 예화 자료를 실는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 경북 교육연구원

□ 「東賢의 敎訓」 발간,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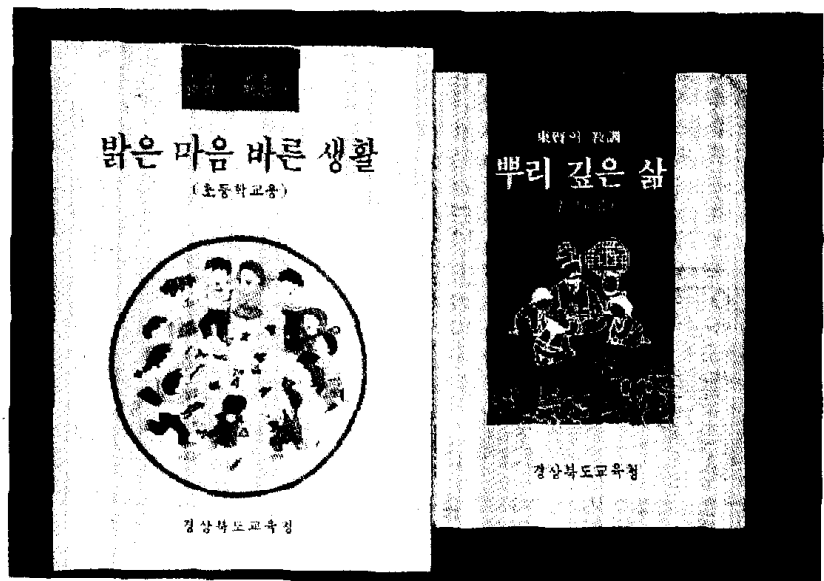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데 있다. 이는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의 관계 속에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도덕적 인성을 함양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전통윤리의 정신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東賢의 敎訓'을 발간·보급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의 지혜가 담긴 전통윤리의 현대적 이해로 자라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심성과 도덕심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이번에 교육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선현의 말씀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東賢의 敎訓'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맑은 마음 바른 생활'(초등학교), 「뿌리 깊은 삶'(중학교)'을 발간하여 보급하였으며 교사들을 위하여 '지도 안내서'를 함께 보급하였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성찰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 실정에 맞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급수별 컴퓨터 프로그램 학습지 개발**

급증하는 지식과 정보를 기억, 처리, 가공하는 데 인간의 능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컴퓨터가 없이는 정보의 관리가 어려워졌다.

컴퓨터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일 뿐이므로 컴퓨터를 마음대로 다루려면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알아야 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이 컴퓨터를 잘 다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여 본원에서는 프로그램을 쉽게, 친숙감을 가지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학습지'를 개발하였다.

이 책에서는 베이직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누구든지 이 책을 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쉽고 초보적인 내용을 실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행번호 베이직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경남 교육연구원**

**사회과 탐구 「우리 경상남도」 교과서 편찬·발간**

교육부의 초등학교 4-1 사회과 지역 교과서 발간 취지에 따

라 '94년 개발된 교과서를 95년도 본도내 3개 실험학교의 연구 실험 과정을 거쳐, 다시 수정 보완된 교과서를 최종 정리하여 '96학년도부터 본도 내 전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와 함께 전 초등학교에 보급하였다.

본 교과서는 제1단원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남도' 편에서 우리도의 특색, 경상남도의 모습, 호국의 고장으로 꾸미고, 제2단원 '살기 좋은 경상남도' 편에서는 활기찬 생활 모습, 보람찬 일터, 가까워진 여러 고장으로, 제3단원에서는 도민의 생각, 우리 생활을 돕는 곳, 내일의 경상남도로 꾸며져 있다.

**「부모의 지혜 성공적인 자녀 교육」 발간·보급**

가정 교육을 올바르게 하여 자녀들을 기품있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스스로 사회에 공헌하고 자신의 행복한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키우기 위한 자녀 교육의 지도 자료로 발간·보급하게 되었다.

자녀들의 소질과 성격이 천차만별이듯이 자녀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가정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며, 또 달라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녀 교육은 넉넉한 사랑과 자기 자녀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부모가 지혜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썼으며, 내용은 마음속에 새길 교육 명시(名詩), 교육 명언들을 통해 부모들에게 작은 감동을 주고, 개개인 다른 특성과 소질, 개성을 지닌 자녀들의 학습면과 생활면을 중심으로 '가정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장마다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95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보고집」 발간·보급**

본도 교과교육연구회는 현장 교원 중심으로 조직하여 자율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울러 교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 교육의 현안 문제 및 교육 개혁 과제의 해결 방안 연구를 통하여 교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각 연구회별로 알찬 계획을 수립·추진함은 물론, 각종 협의회, 연수회, 세미나, 발표회, 워크숍, 회지 연구지 발간 등의 다양한 연구와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연구회 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63개 연구회의 연구내용을 초·중등 연구회별 '95. 활동 상황을 연구회 조직 상황, 시·군(지역별) 지회 조직 상황, 사업추진

##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및 활동 상황, 주요 사업(지정 과제 연구 추진) 및 활동 소개,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반성 및 제언, 앞으로의 사업·활동 계획, 회칙 순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실었다.

### □ 「전통 민속놀이 지도 비디오 자료」 제작 계획

지난해에는 땅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민속놀이 6종을 비디오 자료로 제작하여 교육현장에 보급하였다.

이 자료는 종류별 민속놀이의 유래, 놀이의 명칭, 놀이방법 등을 실연으로 보여 주어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어서 지금 계획중인 제2편에서는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민속놀이를 자세히 분석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소도구 사용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3월중에 콘티를 작성하여 제작에 들어간다.

이 자료들이 완성되어 보급되면, 우리의 전통놀이에 흥미를 갖게 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

### 제주도 교육연구원

### □ 봉사활동 사례집 「사랑의 상담실」 발간·보급

1995년 12월 진로교육부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학생 인성교육자료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사례집인 「사랑의 상담실」을 발간, 중·고등학교 및 봉사자 활동 학교에 보급 활용토록 하고 있다.

### □ 연구보고서 제9집 발간·보급

1995년 12월 지도보급부에서는 교육부 및 제주도 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결과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를 발췌하여 편집하고 연구보고서 제9집을 발간·보급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

### □ 「교육제주」 발간

자료보급부에서 발간되는 「교육제주」는 교육현장에 다양한 교육정보를 알리고자 기획특집으로 편집하여 발간하고 있으며 1994년도 교육부 선정 우수간행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6,000부를 발간하여 일선교원들에게 1권씩 배부하고 있다.

### □ 지역화 교재 자료 「향토사 교육자료」 간행 예정

국사 교육의 지역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용 자료로서 '향토사 교육자료'라는 교단 지원

자료를 간행하여 각급 학교, 사회과 교사, 교육전문직, 관계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지금까지의 제주도사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망라하여 국사교과서의 체제에 맞추어서 역사과 교사들에 의해 역었으며, 그 내용은 선사시대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각 시대별로 제주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을 개괄하여 중앙사와 제주도사의 변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엮은 개설서이다.

# 한국교육개발원 대행 출판 자료 목록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초등학교 특활영어	배움책(상)	6,000	민주시민 교육자료	우리와 나(초등학교 3-4	1,600	대 한 교 과 서(주) (02) 3451 -3861
	배움책(중)	6,000		학년 학생용)		
	배움책(하)	6,000		우리와 나(초등학교 3-4	2,600	
	지도서(상)	2,500		학년 지도서)		
	지도서(중)	2,700		우리와 나(초등학교 5-6	1,600	
지도서(하)	2,800	학년 학생용)				
배우며 생각하 며 (초등학교용)	배움책(1-2)	4,800	우리와 나(초등학교 5-6	2,400		
	배움책(3-4)	4,000	학년 지도서)			
	배움책(5-6)	3,700	민주사회 민주시민	1,600		
	지도서(1-2)	3,300	(중학교 학생용)			
	지도서(3-4)	3,600	민주사회 민주시민	3,100		
지도서(5-6)	3,200	(중학교 지도서)				
배우며 생각하 며(중학교용)	배움책	2,700	민주사회 민주시민	2,900		
	지도서	3,400	(고등학교 학생용)			
생각하는 수학공부 (초등학교용)	1학년용	2,600	민주사회 민주시민	4,000		
	2학년용	2,700	(고등학교 지도서)			
	3학년용	3,3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	2,400		
	4학년용	3,700	용)			
	5학년용	3,700	민주사회 학생지도서 민주	3,800		
	6학년용	3,900	적 학교운영(총지침서)	4,500		
생각하는 학습자료 (초등학교용)	(1-2학년) 상	1,300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중	1,100	한국 교육의 과제			
	하	1,400	성 교육 자			
	(3-4학년) 상	1,800	아직도 아기라고요	2,000		
	중	1,600	(초등학생용)			
	하	1,700	어른이 되나봐요(중학생용)	2,500		
생활경제 학습자료 (초등학교용)	(5-6학년) 상	1,700	우리는 예비어른	2,900		
	중	1,900	(고등학생용)			
	하	1,900	초등학교 영어학습 자료			
	지하마을의 전설	1,400	3학년용	12,000	삼 화 출 판사 (02) 776 -6687 ~8	
	태호와 드송	1,500	4학년용	12,500		
	내일은 야구왕	1,500	교사용지도서	2,400		
욕망과 선택	1,500	우 등 생 이 되기 위한 글 읽기(초 등학생용)				
동수의 병	1,400	중심내용 과학 학습전략	1,800			
화해	1,300	자기점검 학습전략	1,200			
이루코부족과 무역선	1,500	관계짓기 학습전략	1,200			
짱구의 물가비행	1,400	정교화 학습전략(Ⅰ)	1,700			
한지붕 두 마음	1,300	정교화 학습전략(Ⅱ)	1,900			
물고기의 교훈	1,400	읽기학습전략훈련지침서	1,200			
지도서(상)	500	환 경 교 육 자료(초 등 학교용)				
지도서(하)	400	즐거운 환경탐구	1,500			
민주시민 교육자료	유치원 민주시민	35,000	(1,2학년용)			
	교육프로그램(학생용)		재미있는 환경탐구	1,700		
	유치원 민주시민	3,300	(3,4학년용)			
	교육프로그램(지도서)		보람찬 환경탐구	1,900		
	우리나 나(초등학교 1	1,300	(5,6학년용)			
-2학년 학생용)		환경탐구 시리즈	3,200			
우리나 나(초등학교 1	2,200	(교사용 지도서)				
-2학년 지도서)		영 재 교 육 자료				
		이야기나라	1,400			
		(초등학교 3,4학년용)				
		축정의 세계( " )	1,200			
		사람들이 사는 곳( " )	1,700			
		자석에 관한 연구( " )	1,100			
		미술감상( " )	1,600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영재교육자료	교사용 지도서(초등학교 3,4학년용)	2,500	삼 화 출 판 사(02) 776 -6687 ~8
	신문기사(초등학교 5,6학년용)	1,000	
	확률의 신비( " )	1,100	
	우리나라의 풍습( " )	1,400	
	깨끗한 물( " )	1,100	
	동요만들기( " )	1,800	
	교사용 지도서( " )	3,300	
	에너지와 우리생활(중학생용)	1,400	
	전기와 그 이용( " )	1,200	
	인간과 생태계( " )	1,000	
	바다의 신비( " )	1,100	
	우리가 사는 지구( " )	1,300	
	교사용 지도서( " )	2,800	
	수학과 학습자료(중학생용)	수학 문제 해결의 지혜(1학년용)	
(2학년용)		2,700	
(3학년용)		2,700	
영어능력신장자료(중학생용)	영어 읽기	3,300	
	영어 쓰기(1)	2,700	
	영어 쓰기(2)	2,000	
	영어 쓰기(3)	2,100	
한국교육개발원 집단지능검사	초등학교용(A형)	750	한국 적 성 연구소(02) 515 -5722 (02) 515 -5725
	초등학교용(B형)	750	
	중학교용(A형)	750	
	중학교용(B형)	750	
	고등학교용(A형)	750	
	고등학교용(B형)	750	
	대학교용(A형)	750	
	대학교용(B형)	750	
	초등학교용 추가검사	750	
	중학교용 추가검사	750	
고등학교용 추가검사	750		
진로성숙도검사	중·고등학생용	750	
아동용 개인 지능검사(KEDI-WISC)	만 5세-만 15세	104,000	도서출판 특수교육(02) 812 -0348
	만 5세 초등학교-6학년용	184,000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유아인지 학습자료	자료A(색막대놀이외2종)	231,000	국민서관(02) 710 -7751
	자료B(곰돌이 도미노외 10종)	132,000	
	자료C(그림수찾기외9종)	110,000	
	자료D(바둑판게임외7종)	187,000	
언어교육 활동자료		165,000	





## [KEDI 도서회원] 가입 신청서

접수번호 : NO. \_\_\_\_\_

구독자 (기관) 주소	우편번호	-		
개인 의 경우	구독자 성명		전화번호	
	근무처		직위	
단체 의 경우	구독 단체명	대표자명 ( )	전화번호	
구독구좌수	구좌 (신규, 재가입 :          년도회원)			
회비  ■ 가입 년회비 (1구좌당) : 60,000 원	<input type="checkbox"/> 납입처 :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0006202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01-0379-171 한국교육개발원』  <input type="checkbox"/> 송금액 :                  원 <input type="checkbox"/> 송금년월일 : 199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송금자명 :			
<p>본인은 상기와 같이 귀원의 도서회원으로 가입코자 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199 . . . .</p> <p style="margin-left: 100px;">신청자 (개인, 단체)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교육개발원장 귀하</p>				

## [KEDI 도서회원] 안내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 교육의 종합적인 연구 산실로서 각종 연구 보고서와 교육 교재 및 학습 자료 등의 간행물을 계속하여 발간 배부함으로써 한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본원의 연구 산출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교육 관계자 및 기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87년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에게 각종 간행물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회원에 대한 특전

- (1) 본원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6 회), '한국교육'(연 1 회) 우송
- (2) 당해년도 '연구보고서' 20 종~25 종(발간 즉시 우송)

### 2. 연도별 회원제

회원자격은 1년간 주어지며, 가입년도에 본원이 수행한 정규 연구보고서(매년 3월중 발송)와 정기 간행물을 받으실 자격이 주어짐.

### 3. 가입 방법

가입 신청서와 함께 회비를 납부하면 됨.

### 4. 연 회 비(1 구좌당)

- 가입 년회비 : 60,000 원

### 5. 회비 납부 방법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0006202,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01-0379-171,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입금.

### 6. 문의처 : 우편번호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사무국 총무부 출판계(대표전화 572~5121, 교환 408, 411)

◎ 가입신청서는 이면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거나 복사 사용하지기 바랍니다.

◎ 재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입신청서'를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 이달의 명상



### 베짱이의 다짐

추운 겨울이었다. 교과서에는 나의 처량한 겨울나기 얘기도 어김없이 실렸다. 행복한 개미에게 쌀 한줌을 구걸하는 처량한 모습으로.

이제 봄이 오고, 머지 않아 여름도 오리라. 개미는 이른 봄부터 땀을 쏟으며 나를 부러워하리라. 지독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 내가 부러워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개미를 비웃지 않으리라. 개미의 땀을 식혀 줄 수 있는 시원한 노래로 벗하리라. 신께서는 나의 고운 목청을 나만을 위해 주지 않았음을 잊지 않으려나.

겨울 내내 여름날의 내 노래가 쌀 한톨도 만들지 못한 쓸데없는 짓이었다고 얼마나 원망했던가? 이제야 깨닫는다. 나는 노래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음을. 개미의 일까지 하려 들 수 없음을. 그리고 내 노래가 개미의 땀을 식혀줄 때 비로소 아름다운 노래가 됨을.

천 세 영  
(본원 선임연구원)





“교육의 미래를 여는 한국교육개발원”